미리 말하자면 나는 결단코 남에게 악담을 막 하는 사람이 아니다.

적어도 현실에 존재하는 실제 사람한테는 말이다.

잊을 만하면 다시 나타나는 시그롯 이 자식

우리 여주는 귀족이라고 맨날 습격당하는데

황태자인 얘한테도 암살자 하나쯤 안 오나요?

“이 자식 또 나왔네….”

시그롯 신수안도 없는 니가 칼릭스한테 잘난 척할 군번이냐

길 가다 새똥 밟고 넘어져서 이마나 깨졌으면 좋겠다

“남주야! 참지 마! 화낼 때는 화내야지!”

작가님 시그롯 그만 좀 등장시키시면 안돼요?

악역이니 작가님의 소설에 필요한 건 이해해요

근데 저는 남녀주 로맨스가 보고픈데 해도 해도 너무 많이 나옴

시그롯 저 나쁜 놈이 벌 받는 거 볼 때까지 하차 안할 겁니다

“시그로오오옷….”

액정 위를 신경질적으로 두드리던 손가락이 기어코 핸드폰을 떨어트릴 뻔했다.

안 되지, 안 돼. 아직 약정이 반년이나 남았다. 지난달에 경조사로 나간 돈을 생각하면 이번 달은 통장과 화해해야 한다.

그래서 솔직히 요즘엔 웹소설 결제도 좀 줄이려고 했는데….

‘마약 같은 소설이야. 매화 화내면서도 재밌어서 소장권을 사게 만들거든.’

그 놈의 팬심이 뭐라고, <백작영애와 용병 황자>의 새 편이 올라올 때마다 조건반사적으로 새 화 결제를 누르는 내 손가락이 문제다.

그래도 이번 화는 모처럼 남주와 여주가 꽁냥거리는 장면이라 결제한 보람이 있다 싶었는데, 하필 마지막에 시그롯이 등장할 건 뭐람? 비록 소설이라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이름만 봐도 자동으로 분노가 솟는다고!

시그롯 멜프라우.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로맨스판타지 소설 <백작영애와 용병 황자>의 메인 악역이자 멜프라우 제국의 황태자, 그리고 남주인공인 용병 칼릭스의 숙적이기도 하다.

이 제목과 프로필을 보고 소설 좀 읽어본 사람이라면 대강 머릿속에 그려질 것이다. 사실은 칼릭스가 진짜 황태자이며, 과거에 사정이 있어 시그롯이 칼릭스의 자리를 뺏고 대신 황태자가 되었을 거라는 사실 정도는 말이다.

그 말대로 시그롯은 실제 황자가 아니라 시녀의 아들이었다. 태어났을 때 시녀가 황후의 아들과 자기 아들을 뒤바꾸는 바람에 둘의 운명이 갈라지고 말았다는, 뭐 그런 흔한 전개다.

<백작영애와 용병 황자>의 스토리는 이 두 남자 사이에 백작영애이자 시그롯의 약혼녀였던 여주인공 리리샤가 등장하면서 시작한다. 바로 1화에서 시그롯에게 일방적으로 파혼당한 리리샤가 수도원에 가기 싫어 가출한 길에 용병왕인 칼릭스와 만나기 때문이다.

여기서 둘이 만나 꽁냥꽁냥만 한다면 좋았겠지만, 문제는 칼릭스가 황족만이 가지고 있다는 신수안의 소유자라는 게 나오며 진짜 황태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시점부터다.

신수안이 없는 시그롯은 그녀의 연인 칼릭스가 제 자리를 뺏을 위험이 있다는 걸 알게 되자 온갖 간악한 술수로 두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한다. 거기다 칼릭스가 가진 모든 것에 열등감을 폭발시키며 자기가 찬 리리샤에게 진상 구남친마냥 다시 집적거리기까지 한다.

여기서 이 놈이 찌질한 1회성 악역 정도로 퇴장했다면 괜찮았을 테지만 시그롯은 안타깝게도 이 소설의 메인 악당이었다.

즉 소설 연재 후반부인 지금까지도 오뚜기처럼 안 죽고 등장 중이며 주인공들 뺨치게 등장신이 많다는 뜻이다.

나는 요즘 이 소설 최신화가 뜰 때마다 제일 먼저 가서 결제한 뒤 시그롯이 등장하면 빠짐없이 악플을 다는 걸 하루 일과로 삼고 있었다. 그 내용은 주로… 가 아니라 거의 전부 시그롯이 이런저런 불행을 당해서 다음 화에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

혹자는 내가 댓글을 좀 심하게 쓴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악플을 다는 데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었다.

첫째, 실존인물에게는 달지 않는다. 물론 부패 정치인이나 악질 범죄자에게는 가끔 인터넷 기사 댓글로 욕하기도 하지만.

둘째, 작가님이 속상할 수 있는 쌍욕 사용은 최대한 매너를 지켜 자제한다.

내가 시그롯에게 악플을 다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캐릭터가 작가가 만든 소설 속의 가상 캐릭터기 때문이다. 게다가 예쁘라고 만든 남주여주도 아니고 대놓고 욕먹을 짓만 골라서 하는 악당 캐릭터였다. 우리 엄마아빠도 매일 드라마 보면서 악역들을 욕하는데, 나라고 못할 건 또 뭐가 있겠어?

나도 밖에 나가면 상사한테 깨지고 야근이 힘들어서 집에서나마 소설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평범하고 상식적인 직장인이다. 그런 내게 악플은 그냥 일종의 스트레스 해소 창구일 뿐이다.

솔직히 소설 캐릭터를 상대로 하긴 했지만 뭐 그렇게 심한 말까지는 안 썼다고 자부한다.

…적어도 죽으라는 말은 한 번도 쓰지 않았었다고.

그런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였을까?

나는 지금 눈앞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가고 있는 소년을 보며 혼란에 빠져 있었다.

금사를 녹인 듯한 찬란한 금발에 신록과 같은 녹색 눈동자. 작중 묘사로는 미남이었지만 그 비뚤어진 성정 탓에 비열한 표정과 잔악한 웃음으로밖에 표현되지 않았던 남자.

멜프라우 제국의 가짜 황태자.

시그롯이 죽는 게 나 때문이라고?

시간을 잠시 조금 전으로 돌려 보자.

오늘도 야근하며 영업부 김 팀장의 개소리에 굽실거리다 열두 시가 넘어 집에 들어온 나는 화장도 지우지 않은 채 침대 위에 엎어져 <백작영애와 용병 황자> 새 편이 올라왔는지 체크하고 있었다.

‘매일 한 편씩 자정에 올라오니까 지금쯤은 새 편이 있겠지?’

얼마 전 소설이 200화로 완결이라는 공지가 올라온 후 나는 이 소설의 엔딩을 조금 시원섭섭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열심히 보던 소설의 엔딩이 다가오는 건 좋은데… 이제 끝나버리면 매일 밤 무슨 낙으로 사나 싶어서.

‘이제 시그롯을 욕하며 악플을 달 날도 얼마 안 남았구나.’

징글징글한 시그롯은 완결을 두 편 앞둔 지금 시점에서도 아직 살아 있었다. 물론 이쯤 되면 소설 내용의 클라이맥스도 지나갔기 때문에 가짜 황태자로 살아온 가면이 벗겨지고 황궁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말이다.

시그롯은 지금 황태자를 사칭한 죄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다. 진짜 황태자로 등극한 남주와 지난 화에서 그에게 청혼을 받고 곧 황태자비가 될 여주의 처분만을 기다리면서.

‘사형당하겠지.’

납치, 살인, 사기, 협박, 고문, 게다가 마지막에는 칼릭스를 죽이려고 발악하기까지.

그간 이 놈이 한 비열한 짓들을 생각하면 사형길만 걸어도 모자랄 지경이지만….

문득 생각했다. 시그롯의 마지막 모습은 어떨까?

죽을까, 살까? 제대로 된 벌을 받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오늘 업로드된 <백작영애와 용병 황자>의 199화를 누르고 제목을 보았다.

<외전 - 시그롯>

응?

잘못 본 것 같아서 다시 보았다.

<외전 - 시그롯>

…?

마지막화까지 두 화 남은 시점에… 시그롯 외전?

‘스토리 마무리되고 엔딩 나기에도 부족할 편수에 악당 외전이 나온다고?’

로맨스 소설에 완결나기 전 외전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지는 않다.

주로 주인공이나 다른 캐릭터의 시점으로 과거라든지, 몰랐던 사실이나 복선을 풀어주며 본편을 이해하기에 도움을 주는 장치로 가끔 중간 중간에 외전을 끼기도 한다.

그런데 200화로 끝나는 소설의 199화에서 이러는 건 아니지?

그것도 남주나 여주도 아닌 악당 시점의 외전이라니? 작가님…?

‘일단 읽어보자.’

시그롯이 지금까지 했던 악행들을 처절하게 후회하고 반성하는 내용일 수도 있다. 그간 장편소설에서 한 축을 담당한 악당 캐릭터니 작가님도 뭔가 생각이 있어서 쓰신 거겠지.

설마하니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 내용은 아닐 거야.

‘사실은 얘한테도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다.’ 같은 전개는 아닐 거라고.

어떤 사람들은 사연 있는 악당 캐릭터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나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소설을 볼 때 주인공을 열렬히 응원하는 나는 악당에게 괜한 사연을 붙여 괜히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하는 전개를 정말, 너무나 싫어했다.

물론 나는 시그롯이 이미 아주 싫었지만, 딱 하나 좋은 점이 있다면 동정의 여지가 없어 마음껏 욕해도 양심이 간지럽지 않다는 점이었다.

그랬는데.

지금 읽는 활자 속에 등장하는 소년은 내가 아는 시그롯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신수안이 없는 황태자라니 더 볼 가치 없는 황가의 수치로군."

공부 성과를 보고하러 알현실에 갔다가 아버지인 황제(물론 친아버지는 아니다.)에게 차갑게 외면당한 여덟 살 시그롯이 바들바들 떨면서 그의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죄, 죄송합니다, 폐하. 하지만 신수안이 없더라도 제가 꼭 차기 제위에 어울리는 후계자임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 제국에서 신수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자는 제위에 오를 자격이 없다. 하지만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성과를 보인다면 혹시 모르지."

황제는 매정한 말과 함께 시그롯에게서 돌아섰다. 그리고 제 방으로 힘없이 돌아온 시그롯은 책상에 앉아 공허한 눈으로 이렇게 중얼거린다.

"완벽한 황태자가 되어야만 해."

…잠깐, 잠깐, 잠깐만.

혹시 이거… 진짜로 알고 보면 불행했던 악당의 과거는 아니지?

막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제 자신과 이상과의 괴리감에 몸부림치다가 돌아버렸다는 그런 진부한 전개는 설마… 아니겠지?

나는 제발 내 불길한 예감이 들어맞지 않기를 바라며 시그롯 외전을 계속 읽어나갔다.

황제인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시그롯. 그는 자신만이 제국의 유일한 황태자라고 믿으며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이 소설을 읽어온 독자라면 익히 아는 사실대로 그는 모든 면에서 재능이 어중간했다.

무술도 웬만큼, 지식과 정치도 웬만큼, 악기 연주나 춤 실력도 웬만큼. 팔방미인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재능이 많았고, 그 모든 것들에 피를 토하며 노력한 만큼 성과는 나왔지만 뭐든 최고는 되지 못했다. 그 결과 아버지 뿐 아니라 스승과 황후, 측근들에 이르기까지 시그롯을 인정해 주는 이가 거의 없었다는 모양이었다.

"방계 황족 중에도 신수안을 가진 자가 있는데, 황태자로 태어나서 저런 꼴이라니…."

"기사들이 전하와 대련할 때 일부러 지기도 힘들어 애 쓰는 게 다 티 난다면서요?"

어느 정도로 자기편이 없었냐면, 명색이 제국의 지고한 황태자인데 황제에게 외면당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식으로 업신여기는 목소리가 많을 정도였다.

시그롯의 자존심은 날로 무너졌고, 그는 점점 예민해져 주변에 화풀이를 하기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더 열심히 하면 누군가 알아주리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깎아가며 계속 노력했다. 외전 안에서 시간은 계속 흐르고 흘러 어느덧 열여섯 살 시그롯이 성인식을 맞아 신수 계약식을 치르는 시점까지 와 있었다.

신수 계약식.

신수안(神獸眼)을 가지고 태어난 황실의 장손은 누구나 열여섯 살이 되면 만인이 보는 앞에서 황가를 수호하는 신수 중 하나와 계약을 하는 의식을 치른다. 그 신수가 무엇을 관장하는지에 따라 다음 황제의 치세에 중심으로 할 정책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신수는 신수안을 가진 황족만을 선택하여 계약한다. 신수안이 없는 시그롯에게 이 계약식을 연다고 갑자기 없던 눈이 생겨 신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리 없었다. 그런데도 황제는 일말의 희망을 가졌던 건지 성대한 계약식을 거행하고 그를 내보내기에 이른다.

그리고 예정된 수순대로 시그롯은 어떤 신수와도 계약을 맺지 못한다.

사람들의 야유와 비웃음 소리, 역대 어떤 못난 황태자라도 맺을 수 있었던 신수의 계약을 혼자서만 맺지 못한 덜 떨어진 황족이란 오명. 그 굴욕적인 경험을 겪고 난 뒤 시그롯은 황실의 비밀스러운 독들을 모아놓은 금지된 방에 들어가 스스로 독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한다.

당연하지만 죽지는 않았다. 하긴 과거편에서 죽었으면 본편에 나올 수 있을 리 없으니까. 하지만 그건 시그롯이 황태자로서 어릴 적부터 독에 익숙했기에 가능한 설정이었다.

게다가 죽지 않았다고 해서 독이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다.

"하하, 하하하, 카하하하핫!"

바닥에 쓰러진 채 피를 토하며 고통에 몸부림치는 시그롯. 하지만 누구도 말리지 않기를 바라며 금지된 방에 몰래 들어간 것이었기에 그는 한참 뒤에야 다른 사람들에게 발견된다. 황실 의사들의 치료로 목숨은 구했지만 독이 머리에서 무슨 작용을 했는지 몰라도 그는 예전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

"신수안 따위 없으면 어떤가. 내가 황태자다. 내가 이 제국의 차기 황제다!"

부하와 측근들에게 폭력과 권력을 휘두르며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이용하는 안하무인, 제멋대로의 폭군 꿈나무. 바로 내가 익히 알고 있던 악역 황태자 시그롯으로 말이다.

외전은 거기에서 더 이상 넘어가지 않았다.

‘끝? 진짜로 여기서 끝이야?’

나는 믿겨지지 않아 페이지를 더 넘겨보았다. 하지만 보이는 건 내가 너무 빨리 읽었는지 아직 댓글 하나 보이지 않는 청정한 댓글란 뿐이었다.

‘이런 게 대체 어디 있어?’

완결을 한 편 앞두고 이제 와서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악당 캐릭터의 불행한 과거사라니. 그것도 뭐 지금 전개에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딱 여기서 끝이라니?

어이가 없었다.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껏 열심히 욕해왔던 악역 시그롯의 과거사를 보고 숙연한 기분마저 들었다. 이래서 악당의 뒷사정 같은 건 알고 싶지 않았던 건데.

머리 식히려고 보는 소설에서 괜히 악역 같은 걸 동정하고 싶지 않았단 말이야.

‘댓글… 아직 하나도 안 달렸네.’

나는 눈처럼 하얀 댓글란을 보다 습관처럼 댓글창을 열었다. 하지만 늘 생각 없이 잘만 써졌던 악플이 오늘만큼은 잘 나오지 않았다.

마음을 다잡아야지. 그래봤자 시그롯은 악당이다. 나는 칼릭스가 리리샤 대신 시그롯에게 잡혀 고문을 당하던 장면과 시그롯의 전매특허 악당 웃음소리 ‘카하하하핫!’(볼 때마다 정말 기분 나빴다.)을 마음속으로 백 번 상기한 뒤 액정 위로 손을 올렸다.

말이 좀 심했나? 하지만 뭐 틀린 말도 아니잖아. 소설 속 남주와 여주는 시그롯보다 더 힘든 일도 겪는데 그러고도 비뚤어지지 않고 잘 컸다고. 어릴 적에 불쌍했다는 게 저 자식이 지금까지 했던 일들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잖아.

나는 시그롯이 싫다. 동정하고 싶지 않다. 내가 고작 세 줄짜리 댓글을 쓰고 올리는 데 망설이고 있다는 사실도 싫었다.

하지만 늘 쓰던 글이었기에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댓글 올리기"를 누르고 있었다.

‘올라갔다.’

반사적으로 내가 단 댓글이 어떻게 올라가 있는지 확인하려 했을 때였다.

“어?”

내 댓글에 답댓글이 하나 달려 있었다.

방금 전에 올렸을 텐데 벌써 읽고 답댓글을 단 사람이 있다고?

딱한 사연 있는 건 알겠는데 마지막의 마지막에 시그롯 외전은 좀 아닌 듯

힘들다고 주변에 짜증이나 부리고 다니니 저런 순간에 옆에 아무도 없죠

차라리 평생 반성하지 말고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백 번의 저주. 이걸로 모든 조건이 갖춰졌어.

“저주?”

뭐야, 뭐야? 저주라니?

순간 피부에 소름이 돋았다. 누구야, 중2병도 아니고 남의 댓글에 대고 이렇게 기분 나쁘게 다는 사람은? 나도 악플 쓰고 있지만 웬만하면 실제 사람 상대로는 안 하거든?

닉네임 : 독한박쥐

저주라니 남의 댓글에 쓰실만한 말씀은 아닌듯한데요;

조건이 갖춰졌다는 건 대체 뭡니까? 장난하세요?

나는 망설이다 내 댓글에 달린 글에 다시 답댓글을 달았다. 그냥 시그롯의 팬이거나 소설을 보던 어린애가 질 나쁜 장난으로 단 글일 거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안하며.

그러나 내 글에 아래 다시 달린 답댓글은 한 수 더 뜨고 있었다.

시그롯은 죽게 될 거야.

너의 제물로.

뭐? 시그롯이 죽어?

“지금 진짜 장난하는…!”

나는 분명 ‘장난하는 거야?’라고 외치려고 했었다. 들고 있던 핸드폰 액정에서 원인 모를 눈부신 빛이 쏘아져 나와 내 몸을 감싸기 전까지는 말이다. 내가 플래시 기능을 잘못 건드렸나? 이 빛은 뭐지?

…어, 설마, 빛에 둘러싸였다가 눈을 떠 보니 다른 세계라던가 하는 전개는 아니겠지.

아니라고 믿고 싶다.

아닐 거야! 하하하!

나는 스스로의 말도 안 되는 생각에 헛웃음을 치며 눈을 감았다 떴다. 그리고 내 몸이 푹신한 내 방 침대에서 어느 새 딱딱한 바닥 위에 누워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눈을 떠 보니 보이는 낯선 천장.

방금 퇴근한 그대로 스타킹만 좀 벗다 만 데일리 룩 패션의 나.

“윽, 으윽, 큭, 크하악….”

그리고 내 옆에는 책에나 나올 법한 화려한 예복 차림의 처음 보는 금발 미소년.

소설 속 클리셰와 다른 점을 꼽아 보자면 저 미소년이 내게 칼을 들이대거나 다정하게 말을 거는 대신에 배를 움켜쥐고 피를 토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정도?

피를 토하면서?

나는 패닉에 빠진 채로 몸을 일으켰다.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눈앞에서 온 몸을 뒤틀며 눈물까지 흘리고 있는 소년이 누구인지도 모르겠어서 어쩔 줄 몰라 하고만 있는데, 불현 듯 머릿속에 조금 전에 내 댓글에 달렸던 답댓글의 내용이 스쳤다.

‘백 번의 저주. 이걸로 모든 조건이 갖춰졌어.’

‘시그롯은 죽게 될 거야. 너의 제물로.’

설마.

“시그롯…?”

나는 반신반의하며 그 이름을 입에 올렸다. 그러자 금빛 머리카락의 소년이 희미하게 이 쪽을 바라보았다.

소년은 입술을 달싹거리며 내게 말했다.

“너는… 누구지, 왜 내 이름을 알….”

“저, 정말로 이름이 시그롯이세요?”

“여긴, 금지… 된… 크윽!”

그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다시 목에서 무언가가 울컥 올라오는지 가슴에 손을 댄 채로 고꾸라졌다. 덜덜 떨리는 손과 파리한 안색, 보라색으로 변색된 입술.

시그롯이 외전에서 금지된 방에 들어가 스스로 독을 마시던 장면이 본능적으로 떠올랐다.

스스로 생각하고도 믿기지 않았다. 내가 방금 전에 소설 속에서 본 장면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이거 지금 꿈이지? 야근이 힘들어서 씻지도 않고 바로 잠든 거지?

하지만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은 꿈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리얼했다.

온 몸을 비틀며 몸부림치는 시그롯도, 그 옆에 떨어져 있는 잔과 액체도, 입가에서 흐르다 못해 바닥에 흩뿌려져 있는 피와 고통에 찬 처절한 신음소리까지.

‘시그롯은 죽게 될 거야. 너의 제물로.’

“의, 의사….”

나는 떨리는 목소리와 함께 바닥을 짚으며 일어섰다. 그 과정에서 정신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어 몇 번이나 다시 미끄러졌다. 내가 매일 댓글로 욕하던 시그롯은 소설 속 가상의 캐릭터였지만 지금 내 눈 앞의 시그롯은 꿈속인지 알 수는 없어도 어쨌든 실체가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정신없이 시그롯에게 달려가 그를 부축했다. 당장 그를 의사에게 보여야 한다는 생각밖에 머리에 없었다. 나보다 키는 좀 컸지만 뼈마디는 가느다란 소년의 팔을 대충 어깨에 걸치고 몸을 지탱한 뒤 필사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문, 여기서 나가는 문이 어디지?

아무리 봐도 문처럼 보이는 곳이 없었다. 대신 벽면의 여러 가지 색 병이 전시된 장식장이 묘하게 다른 것들보다 더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시그롯의 몸을 잠시 내려놓고 장식장으로 다가가 벽 사이를 들여다보았다.

‘외전에서 읽었어. 금지된 방에 들어가려면 특정한 장식장을 밀어야 한다고….’

밑져야 본전이다. 나는 양팔로 있는 힘껏 장식장을 밀기 시작했다. 일단 왼쪽으로 밀어보고 안 되면 오른쪽으로 밀어볼 생각이었다.

“으랴아아아아!”

아, 이 소리는 그냥 내가 힘을 줄 때 내는 기합 소리일 뿐이다.

드르르르릉!

된다!

다행히 두 번째 시도까지 갈 것 없이 장식장은 덜컹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눈앞에 짧은 지하통로 같은 곳이 나타났다. 나는 시그롯이 있는 곳을 잠시 돌아봤다가, 그래도 의사를 불러오는 게 먼저라는 생각에 혼자 통로 안으로 뛰쳐나갔다.

벽면에 달린 술 같은 것을 잡아당기자 반대편 벽이 문처럼 움직였다. 그리고는 중세시대의 성 같은 번지르르한 방이 보였다.

시녀처럼 보이는 여자 한 명이 청소를 하다 경악한 눈으로 날 쳐다보는 걸 보고 나는 앞뒤 가릴 것 없이 외쳤다.

“당장 황실 의사를 불러주세요!”

좀 더 그들이 빠릿하게 움직일 만한 문장을 생각하면서.

“황태자가 독약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내가 지금 이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이유다.

‘꿈이라면 이제 슬슬 깨고 싶다.’

씻지도 못해 찝찝한 몸과 습기 차고 딱딱한 바닥이라니. 이럴 줄 알았으면 외전을 읽기 전에 먼저 화장 지우고 샤워부터 할 걸. 뜬금없이 외출하고 돌아오면 씻기부터 하자는 교훈을 얻고 있으려니 멀찍이서 저벅거리는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금지된 방에 숨어들었다는 자가 이 여자인가?”

“네, 근위대장님.”

끼릭, 하는 소리와 함께 감옥 문을 열고 들어온 건 몸집이 산만한 갑옷 차림의 남자였다. 운동선수 같은 엄청난 풍채에 나는 나도 모르게 조금 쪼그라졌다.

“나는 황실 근위대장 랏셀 바르드다. 이 멜프라우 제국 황궁의 경비 책임자기도 하지. 분명 쥐새끼 하나 성에 숨어들지 않도록 철저히 경비하고 있었을 텐데.”

“…….”

“어디에서 어떻게 온 자객이기에 황태자 전하를 암살하려 했는지 밝혀라. 그러지 않으면 그 목이 제 자리에 붙어 있지 못할 것이다.”

자신을 근위대장 랏셀이라 밝힌 남자가 허리춤에 찬 두꺼운 칼을 뽑아 내 목에 갖다 대며 말했다. 저기요, 혹시 이거 진짜 칼인가요?

“사, 살려주세요. 전 자, 자, 자, 자객이 아닙니다.”

경찰도 뜬금없이 총 들이대며 취조하지는 않거든?

“빤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는군. 자객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 경비를 뚫고 황족만이 아는 금지된 방에 들어갔단 말이냐?”

“누, 눈 떠 보니까 거기 있었어요! 제 발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네 발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 말은 누군가가 네 배후에 있다는 뜻이냐? 혹시 흑마법사의 술법 같은 건….”

“나도 몰라요!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살려만 주세요!”

나는 아까부터 돼지 바베큐처럼 꽁꽁 묶여 있는 손목과 발목을 최대한 불쌍하게 근위대장의 앞에 들이대며 외쳤다. 니네 황태자가 독 마시고 쓰러져 있는 걸 구해줬는데 고맙다고 말하지는 못할망정 무자비하게 끌고 와 지하 감옥에 묶어서 쳐 넣는 게 말이 되는 상황이니?

비록 황족 말고는 들어갈 수 없는 금지된 방에서 나타났고, 독을 마셔 위태로운 황태자와 함께 있긴 했지만 다짜고짜 암살자로 의심받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더 이상의 인도적인 심문은 무의미한 것 같군. 그 특이한 복장을 보아하니 우리가 파악하는 적대 세력은 아닌 모양이야. 우선 옷부터 전부 벗겨 조사하도록 하고, 이 자는 고문실로 옮겨라.”

“네, 근위대장님!”

자, 잠깐만요. 옷을 벗겨? 고문실? 나는 잘못 들었나 싶어 귀를 의심했다. 하지만 랏셀의 뒤에 서 있던 병사들이 척척 내게로 다가오는 걸 봐선 아무래도 농담이 아닌 모양이었다.

“저기요! 야! 하지 마!”

나는 진짜 내 옷을 벗길 기세로 손을 뻗는 병사들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미개한 판타지 세계관 같으니! 할 거면 하다못해 여자 병사로 해달라고!

“이거 성희롱이라고! 신고할 거야!”

최대한 반항이라도 하기 위해 되도 않는 소리를 하며 발악을 하던 순간이었다.

“물러서라.”

감옥 밖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렸다.

잠시 멈칫한 병사들 사이로 보이는 창살 너머에 금색 머리카락의 소년이 서 있었다. 옷은 토해낸 피로 검붉게 물들어 있고 파리하게 질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얼굴 그대로.

제국의 황태자가 나타났는데도 병사들은 바로 물러나지 않은 채 난처하게 어딘가를 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 시선 끝에 있는 건 근위대장 랏셀이었다.

지금 황태자가 말하는데도 자기네 대장의 눈치를 먼저 살피는 건가?

“전하, 누워 계셔야 합니다.”

“응급처치는 했으니 당분간은 괜찮다. 바르드 경, 병사들을 물려라. 두 번 명령하지 않겠다.”

랏셀이 염려하는 말을 하자 시그롯이 고개를 저으며 그를 노려보았다. 초점이 잘 맞지 않는 녹색 눈에 핏발이 서자 상당히 날카로운 표정이 되었다.

그가 그대로 눈조차 깜빡이지 않고 서 있자 랏셀이 이내 한숨을 쉬며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그만둬라, 너희들.”

그제야 병사들이 재빨리 내게서 떨어졌다.

“전하를 암살하러 온 자입니다. 아무리 황태자 전하셔도 저희 체계가 있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구셔서는 곤란합니다.”

“날 죽이러 왔다면 심문도 내가 해야겠지. 저 자와 잠시 둘이서만 할 이야기가 있으니 팔다리를 풀어주고 사람을 물리도록 해라.”

“전하! 폐하께서 아시면 가만 계시지 않을 겁니다!”

“제국의 차기 황제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군, 바르드 경. 경이야말로 그간 목을 너무 오래 제 자리에 붙이고 다닌 것 아닌가?”

시그롯이 아직 보랏빛이 희미하게 남아 있는 입술을 비틀어 올리며 말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일순간 얼음처럼 차가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내가 읽었던 외전에서 시그롯은 독약을 먹고 살아나 정신이 홱 가기 전까지 성실하고 올바른 황태자였다. 저런 식으로 누굴 비꼬거나 빈정거리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아무래도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닌 건지 랏셀과 병사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다가, 주춤거리며 난처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저, 전하. 전하의 안전이….”

“이 자의 손을 묶은 채로 둘 테니 누구도 지하 감옥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라. 만일 잘못되는 일이 있다면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시그롯이 팔짱을 끼며 차갑게 덧붙였다. 이번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얼마 안 있어 감옥 안에는 다리가 풀려 손만 묶인 상태인 나와 시그롯, 단 둘만이 남게 되었다.

보기만 해도 부담스러운 병사들이 사라진 건 좋았지만 이건 또 이 분위기대로 숨 막혔다. 그것보다 시그롯은 몇 시간 전에 독을 마시고 쓰러졌을 텐데, 아무리 응급처치를 받았다고 한들 지금 이렇게 서 있어도 괜찮은 건가?

“어… 몸은 괜찮아요?”

“…….”

“괘, 괜찮은가? 생명에 지장은 없는 수준인가…봐요?”

생각해 보니 외전에서 시그롯은 독을 마시고 오랫동안 방치당한 뒤에도 몸에 독 내성이 있는 탓에 목숨을 건졌다고 했다. 그럼 내가 혹시 괜한 짓을 한 건가? 그래도 기왕 살 거면 치료는 한시라도 일찍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부탁이 있다.”

침묵을 지키던 시그롯은 불현 듯 입술을 움직였다.

“저기, 나 알아요? 내가 누군 줄 알고 부탁 같은 걸?”

“모르지만 짐작은 간다. 아마 아버지가 보낸 사람일 테지.”

“뭐라고요?”

나는 놀라서 눈만 깜빡였다. 정확히는 어이가 없어서였다. 시그롯의 아버지라면… 이 시점에서 친아버지가 누군지 알 리가 없으니 황제일 텐데? 황제가 날 보낸 걸로 아는 거야, 지금?

“너를 이 성에서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게 해 주는 조건으로 부탁하마. 원한다면 돈도 요구하는 만큼 주지.”

그러나 내가 경악하든 말든 시그롯은 저 하고 싶은 말만 계속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로운 자세로 서서 아직도 떨리는 손을 피로 물든 옷깃으로 감추며.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죽여 다오.”

‘죽여 달라고?’

나는 방금 시그롯이 한 말을 믿을 수 없어 귀를 의심했다.

“아니, 왜 갑자기….”

대체 이런 소리를 왜 하냐고 물을 작정이었는데, 방정맞은 입에선 다른 말이 튀어나왔다.

“저 사람 죽일 줄 모릅니다.”

내가 잘하는 거라곤 야근할 때 배달음식 시키는 거랑 댓글란에서 네 팬들이랑 싸우는 것뿐이라고요.

“바르드 경의 눈을 피해 황궁에 몰래 숨어들 줄은 알면서 사람을 죽일 줄은 모른다?”

시그롯이 기가 차다는 얼굴로 헛웃음을 지었다. 아직 앳되어 보이는 데다 독 때문에 초췌한 모습이기는 했지만 오만해 보이는 자세와 경계심 많은 눈빛에서 희미하게 내가 아는 소설 속의 시그롯이 느껴졌다.

…그나저나 저런 모습인데도 꽤 잘생겼구나. 보통 악당의 외모를 크게 묘사하지 않는 소설에서만 읽다 보니 본판은 미남이란 것 말고 딱히 아는 게 없었는데, 직접 눈앞에 두고 보니 만일 멀쩡한 모습이었으면 그림에서 튀어나올 법한 미소년이겠다 싶었다.

“저도 거기 왜 있었는지 모르겠고 또… 아, 황제폐하께서 보내신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제 방에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럼 누가 보냈지? 재무대신인가? 아니면 던칸 후작?”

“아무도 보내지 않았다니까요? 그냥 빛이 확 하더니….”

가만, 따지고 보면 그 빛이 나를 이리로 보낸 셈인가?

나는 다급히 옷 주머니를 뒤적거리기 시작했다. 혹시나 핸드폰이 옷 어딘가에 남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그러고 있는데 앞에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다.

“누구든, 어떻게 왔든 그건 더 묻지 않겠어.”

시그롯이 피곤해 보이는 눈으로 날 쳐다보고 있었다.

“나를 죽여라.”

“시, 싫어요. 제가 왜!”

“얼마를 주면 해 줄 거지?”

“아니, 왜 자꾸 사람한테 죽는다 죽는다 소리를….”

“너라면 봤으니 알겠지. 그 독은 내 스스로 입에 댄 것이다.”

“헉….”

나는 그 순간 할 말이 없어져 답싹 입을 다물었다.

맞아, 그러고 보니 여긴 소설 속 199화, 시그롯 외전 속이었다. 도대체 왜 이걸 스스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를 노릇이었지만 적어도 소설 속 장면이 그대로 내 앞에서 벌어졌었고 나는 지금 자신을 황태자 시그롯이라 말하는 소년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내가 기억하기로 그 외전 속 시그롯이 독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한 날은….

“신수… 계약식?”

무심코 흘러나온 말에 쿵 하고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았다.

“나를 제법 잘 알고 있군.”

“그게, 제가 이걸 아는 이유는요.”

“대답할 것 없다. 내가 오늘 계약식에서 아무 신수에게도 선택받지 못한 채 굴욕을 당하고 왔다는 사실이 이미 온 제도에 퍼졌을 터, 모르는 게 더 이상하지 않으냐.”

“아….”

아오, 젠장! 괜히 입을 잘못 놀려서! 이 숙연해진 분위기 대체 어떡할 거야?

나는 제발 이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으로 묶여 있는 손목을 꼼지락거렸다. 그래봤자 여기서만 단 둘이지, 밖에 나가면 병사들이 진을 치고 있을 테니 도망은 꿈도 꾸지 못할 테지만 말이다.

시그롯은 아까부터 그런 나를 관찰하듯 묘한 시선으로 보고 있었다. 보고 있는 게 꼭… 개인적인 추측일 뿐이지만 황궁에 숨어든 개나 고양이를 보는 것 같기도 한 시선이었다.

그래서였을까? 그는 자세를 바꿔 앉아있던 의자에서 편한 자세로 고쳐 앉았다.

정말로 지나가는 동물을 대하는 것처럼 무심하고.

“신수를 갖지 못한 황태자는 이 제국에 필요 없는 존재다.”

무방비해 보이는 얼굴로.

“아버지가 결과를 아시면서도 계약식을 여신 건 공개적으로 내게 제위를 이을 자격이 없음을 공표하기 위함이시겠지. 황가의 방계에서 신수안을 가진 친족을 골라 내 대신으로 앉힐 생각이실 터다. 재무대신이 미는 사촌 동생일 수도, 던칸 후작이 지지하는 내 조카일 수도 있겠군. 어머니마저도 더 이상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나를 감싸주시지 않아.”

“…….”

“신수안도 없고, 그걸 대신할 만한 빼어난 재능도 무엇 하나 가지지 못했지. 나는 누구에게도 필요한 사람이 아니야. 그렇다면 최소한 스스로의 수치를 알고 사라지는 게 마지막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길이 아니냐.”

시그롯이 눈가를 찌푸리며 말하는 동안, 나는 도대체 뭐라고 반응해야 할지 몰라 불편하게 앉아 있었다. 아니, 잘생긴 금발의 제국 황태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나도 뭐 딱히 그렇게 잘 하는 건 없지만 이냥저냥 살고 있다고밖에….

원래 다 그런 것 아닌가? 어릴 때야 내가 좀 천재 같고 대단한 사람 같지만, 커 보면 내가 가졌다고 생각한 것들이 생각보다 별 게 아니었다는 거. 다들 자신이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다는 걸 깨닫고 나면 괴로워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뭐 적당히 살아가고 그렇게 어른이 되게 마련인 건데.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던 나는 문득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아, 그렇지.

얘 열여섯 살이지.

‘만 나이려나? 중딩? 아니면 고딩 정도….’

시그롯은 작중에서 남주 칼릭스와 동갑인 스물 세 살로 등장한다. 하지만 외전인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한참 자아가 비대해지고 예민해질 나이의 사춘기였다.

사춘기를 훌쩍 지나 이미 직장인이 된 내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지만, 한참 그런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시그롯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크고 중요한 것들.

소설 캐릭터도 사춘기를 겪을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시그롯의 상황을 평범한 가정학대 청소년에 비유해 보면 그가 지금 하는 말을 왠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방황은 사실 정말로 평범한 청소년이라면 어른의 충분한 상담과 관심을 통해 충분히 발전적으로 갈 수도 있는 문제였다.

하지만 내가 읽었던 외전에서 시그롯에게 그런 역할을 해줄만한 어른은 없었다. 아버지 황제와 어머니 황후, 주위 사람들, 심지어 그를 진짜 황태자인 칼릭스와 바꿔치기하고 사라진 친어머니 시녀마저도. 사실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보통 소설을 읽는 독자는 주인공이 아닌 악당에게 그렇게까지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나도 그랬다.

“아.”

내가 대체 거기다 무슨 말을 쓴 거지?

순간 현기증이 나서 이마를 짚었다. 그러자 아까부터 말 못 하는 인형에 대고 하는 마냥 미주알고주알 이야기하고 있던 시그롯이 그제야 내가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는지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다.

“의미 없는 이야기였군. 사과하마.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나를 죽여 달라는 이유를….”

“저, 저기, 저기요. 시그롯? 아니, 황태자 전하!”

나는 또 그가 땅을 파는 걸 보기 전에 재빨리 시그롯이 하는 말을 멈췄다.

아아, 진짜! 이럴 때는 도대체 뭐라고 말해야 한담? 난 상담이나 위로 같은 건 정말 못한단 말이야. 내가 학교 다닐 때도 누가 간섭하면 짜증부터 냈었는데, 남한테 어떻게 좋은 말 같은 걸 할 수 있겠어?

악플 밖에 달아보지 않은 나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가식적인 것 말고는 다정한 말은 오글거려서 할 줄 모른다.

하지만, 뭔가… 뭔가 없을까?

내 철칙이라고. 실존인물에게는 욕하지 않는 거! 여기에 오늘 하나 더 추가하면 어린애한테는 욕하지 않는 거! 비록 지금 눈앞에 있는 애는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본 소설 속 가상 캐릭터지만, 그래도 당장 보이는 모습은 사람인 걸 어떡해?

시그롯이 어리둥절한 눈으로 날 쳐다보았다. 내가 그의 옷깃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았다. 비록 양손이 묶인 상태라 멋진 장면이 아니라 뭔가… 전쟁포로가 마지막 반항으로 적국 왕자를 습격하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나 때문에 놀라서 말을 잃은 소년을 보고 나는 망설이다가,

“그게요. 어, 음… 전하는 가진 게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장점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결국 떠오르는 말이 없어서,

“내 장점이라니, 날 처음 보는 네가 그걸 어떻게 안다는 거지?”

“누구나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으시죠.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 남들은 평생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아주 귀중한 장점 말이에요.”

“…그, 그게 무엇이냐?”

“권력이요.”

“…….”

아무 말 대잔치를 시작했다.

나에게 붙잡힌 시그롯이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대충 표정으로 추측을 해보건대, 어떻게 권력 같은 걸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처럼 보였다.

“전하, 일단 제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혹자는 내가 지금 억지나 오지랖을 부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지금 내가 나 자신에게 하는 생각이 딱 그랬으니까. 하지만 솔직히 말해, 방금 눈앞에서 자살시도를 한 뒤 살아난 애 앞에서 ‘네 방황은 그 나이 때면 누구나 하는 거니 살다보면 지나간단다.’ 라는 소릴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게다가 소설 속 상황설정이라 그런지 실제로 좀 많이 심한 환경이기도 했고.

“일단은 들으마.”

“전하는 태어날 때부터 황태자셨으니까 전하가 가진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시그롯이 태어날 때 시녀의 아들이었단 사실은 내가 제일 잘 알지만 일단은 덮어두었다.

“틀렸다. 이 제국에서 권력을 가진 자는 지고한 자리에 계신 황제폐하 한 분이야. 황태자라고는 하나 내 힘은 전부 유명무실할 뿐이다.”

“그래서 실제로 황제폐하 말고 전하 위에 계신 분이 누가 계세요? 없죠?”

“내가 폐하의 눈 밖에 나 있는 이상 권력은 한낱 종잇조각에 불과….”

“그런데 그거 아세요? 진짜로 권력이 없는 사람은 여기 저랑 단 둘이 있겠다고 병사들을 쫓아내지도 못해요. 저 근위대장인가 뭔가 하는 사람 앞에서 입도 뻥끗하지 못한다고요.”

시그롯이 우울한 눈으로 나를 보았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참는 듯한 기색이었다.

참을성이 많아 보이는 소년이었다.

“전하, 저는 제가 지내는 곳에서 그냥 일하는 노동자인데요. 가끔 윗사람이 얼마나 치사한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면전에서 따지지 못한다고요. 왜냐하면 말대답하면 직장에서 안 좋은 꼴을 보거나 짤리는… 아니,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일터가 세상에 존재한단 말이냐?”

“그럼요. 권력이 없으면 그렇다니까요? 전하도 스스로 그게 없다고 생각하시니까 노력을 이것저것 하셨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전하는 갑이에요.”

“갑이 뭐지?”

“음, 최고라는 뜻?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차, 또 경계하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그에겐 내 말이 사탕발림처럼 들리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내 말은 엄연한 진심이었다. 생각해 보자고. 회사원인 내 입장으로 따지면 시그롯은 회장님의 아드님이다. 도련님이 미움 좀 받는다고 해서 거기에서 개길 수 있겠어?

“전하, 권력은 엄청 좋은 거예요. 황제폐하만 빼면 누구한테든 명령할 수 있으시잖아요. 아무나 전하처럼 황태자로 살아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잘 모르겠어. 네 말은 너무 어렵구나.”

“위계질서를 확 잡으시라는 거예요. 전하는 음, 어, 이래봬도 황태자신데 전하를 무시하는 건 폐하를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날 오히려….”

“폐하가 어떻게 생각하시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전하가 폐하의 아드님이라는 거고, 누구도 전하께 명령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원작 속의 시그롯은 독약을 먹고 살아난 다음부터 주변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말을 듣지 않는 하인들을 용서 없이 잡아 가두고, 수틀리면 그 자리에서 목을 베기도 했다. 그의 앞에서 신수라는 단어를 꺼내는 대신들의 이마를 술병으로 내리치는 건 예사요, 심지어 황제가 직접 호통을 할 때도 그럼 죽일 거냐며 ‘카하하하핫!’ 하고 미친 사람처럼 웃었다. 그나마 원작 여주인공 리리샤와 약혼한 4년 동안은 정상인 코스프레를 했었지만 그것도 1화에서 리리샤가 파혼당할 때 끝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가만, 나 지금 시그롯에게 그러라고 조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볼 때마다 엄청나게 욕하기 바빴던 그 모습으로 발전하라고?

혹시 내 입방정이 원작대로 엄청난 일을 저질렀나 싶어 나는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런데 듣고 있던 시그롯의 상태가 왠지 모르게 이상했다. 나와 시선을 맞추지 않고 불안하게 발밑을 보던 시그롯은 기어가는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나를 비웃을 거야.”

“남들 시선은 신경 쓰지 마세요.”

“나, 나에게 암살자를 보내고….”

“어차피 죽을 생각까지도 하셨잖아요?”

“다들 내가 사라지기만을 바라지.”

“저는 아니에요.”

“네가 뭐기에? 너는 날 오늘 처음 보지 않았나.”

헉. 맞다, 그랬지.

나는 순간 난감해져 애꿎은 눈만 열심히 깜빡였다. 아무래도 거짓말을 한 게 들켰나 싶어서였다.

딴 사람은 몰라도 나한테 ‘시그롯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짓말이 맞았다. 왜냐하면 그가 200화 내내 등장하는 동안 이래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래서 더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고 백 개쯤 댓글을 단 장본인이 나였으니까. 젠장, 그 별 것도 아닌 글들이 왜 이제 와서 내 양심을 아프게 한담?

그래도 어차피 이거 다 꿈일 텐데 상관없잖아? 원래 사람 말하는 게 좀 가식도 섞을 수 있고 그런 거지. 꿈에서 깨면 이렇게 직접 볼 사이도 아니고, 어….

왜 아까부터 자꾸 변명거리를 생각하지, 난….

진짜로 할 말이 없어졌다. 그래서 난 뭘 말하고 싶은 거지? 자살하지 말라고? 기운 내서 살라고? 시그롯을 욕해온 나한테 그렇게 말할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나는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러자 시그롯은 대화가 끝났다고 생각했는지 의자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너를 성 밖으로 내보낼 테니 내일 떠나거라.”

안색이 새파란 걸 보아 아무래도 다시 안정이 필요해진 모양이었다.

“감옥은 추울 테니 오늘은 방을 마련해 주마.”

시그롯이 그렇게만 말하고는 등을 돌려 감옥 밖으로 나가 버리자 나는 홀로 그 자리에 덩그러니 남았다. 혹시 누우면 푹신한 내 방 침대가 돌아오지 않을까 하여 누워 봤지만, 느껴지는 건 여전히 차가운 감옥 바닥의 감촉뿐이었다.

시그롯은 어쨌든 한 말을 그대로 지켰다. 얼마 후 감옥으로 날 데리러 온 건 근위대장 랏셀과 그 따까리들이 아니라 한 무리의 황궁 시녀들이기 때문이었다.

“전하께서 당신을 독실에 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마련해준다는 방이 여전히 감옥이라는 점만 빼고 말이지.

그래도 창밖에 보이는 창살과 문고리의 두꺼운 자물쇠만 애써 못 본 척하면 그런대로 멀쩡해 보이는 방이기는 했다. 아주 푹신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불과 베개가 있는 침대가 있었고, 목욕할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있었다.

‘황족이나 귀족 같은 사람들 전용 감옥이려나.’

판타지 세계라 그런지 감옥도 퍽 호화스러웠다. 현대로 치면 잠만 자도록 되어 있는 비지니스 호텔 정도 느낌? 내 목욕물을 받아 준 시녀에게 비누 있냐고 물었다가 따가운 시선을 받기는 했지만 어쨌든 나는 감지덕지인 기분으로 목욕통에 맨몸을 담그는 중이었다.

흠, 한 번 정도는 괜찮은 체험이야. 앞으로 계속하라면 좀 찝찝하겠지만.

나는 뜨끈뜨끈한 목욕물에 늘어져 있다 나와서 준비되어 있는 가운을 몸에 걸쳤다. 여기 사람들은 설정상 서양인이라서인지 몰라도 죄다 키가 컸기 때문에 160cm도 안 되는 내가 입자 애가 어른 옷을 빌려 입은 것처럼 어색한 모양새가 되었다.

그 다음 젖어 있는 머리를 대충 탈탈 턴 뒤에 벽에 있는 거울 앞에 가 섰다.

‘화장이 제대로 지워졌나 모르겠네….’

약간 올라간 눈초리에 뚱한 표정. 구남친과 헤어져서 홧김에 잘랐다가 다시 기르는 데 애를 먹고 있는 애매한 ‘거지존’ 길이의 머리카락.

소설 속에 들어왔으면 좀 예뻐져도 괜찮지 않나? 어딜 봐도 그냥 평소대로의 나다.

나는 그대로 침대 위로 올라가려다 선반 위 내 옷을 발견했다. 몇 시간 전 근위대장이 했던 말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내 옷을 조사하기 위해 가져갈 줄 알았는데, 다행스럽게도 속옷까지 내가 벗어놓은 그대로였다.

그대로?

“가만.”

나는 손을 뻗어 옷을 집어 들었다. 내가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찾으려던 게 혹시 아직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아우터와 치마, 신발 속까지 주머니가 있을만한 곳을 전부 뒤져 보자 옷 속에 들어있던 잡동사니들이 침대 위로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핸드크림, 여행용 스킨로션(아, 정말 감사합니다!), 물티슈, 동전 몇 개와 편의점 영수증 사이에서 나는 드디어 원하는 것을 찾아냈다.

“핸드폰!”

내 핸드폰이 있었다!

“만세!”

나는 환희에 찬 기분으로 핸드폰을 안고 침대 위로 다이빙했다.

‘모르는 곳에 있어도 폰만 있으면 무서울 게 없다고!’

많은 현대인들이 그렇듯 나도 중증의 스마트폰 중독자였다. 다른 건 없어도 되지만 폰만은 항상 내 곁에 있어야 했다.

이제야 이상한 세계에서 그리운 내 집에 돌아온 기분으로 나는 폰을 켜고 침대에 발라당 누웠다. 어디 보자. 와이파이…는 안 잡히고, 무선인터넷… 기대하면 안 되겠지.

그래도 있는 게 어디야.

“하아….”

나는 폰을 켜둔 채로 옆에 두고 침대에서 뒹굴뒹굴 굴렀다. 이렇게 오니 여행 온 것 같고 나쁘지 않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아니지, 꿈이잖아. 꿈이면 깨야지. 내가 내일 자 출근 알람을 맞춰 놨던가?

나는 반쯤 눈을 감은 채로 핸드폰을 향해 말했다.

“아리, 알람 좀~.”

‘아리’는 내 스마트폰 모델에 설치되어 있는 음석인식 내장 애플리케이션 ‘A보이스’의 애칭이다. 말만 하면 검색부터 앱 실행까지 알아서 해주는 착한 친구였다.

-몇 시로 설정하시겠습니까?-

기계 안에서 아리의 가지런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너무 피곤해서 알람을 맞추면 바로 잘 생각으로 나는 하품을 하며 말했다.

“내일 아침 여섯시이….”

-알람이 설정되었습니다. 제국력 1223년 11월 1일 6시 0분.-

응?

“제국… 뭐라고?”

-제국력 1223년 11월 1일 6시 0분입니다.-

잠깐만, 아무리 꿈속이 이상해도 내 핸드폰은 정상이어야 하는 거 아냐?

나는 잠이 확 깨는 기분으로 핸드폰을 집어 들었다. 화면 위에 틀림없이 한국어로 제국력 어쩌고 하는 말이 적혀 있었다.

이것도 혹시 꿈이라 이런 건가? 하룻밤 소설 속 체험하기 뭐 그런 거?

하지만 나는 왠지 웃을 수가 없었다. 이번에는 정말로 느낌이 이상했다.

-<백작영애와 용병 황자>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A보이스가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서민하 님.-

-편안한 밤 되십시오, 서민하 님.-

“너, 너 뭐야.”

나는 그대로 침대에 핸드폰을 둔 채 뒤로 다급히 물러나 앉았다.

A보이스는 기본 적으로 묻는 말에만 대답하는 소프트웨어다. 절대 주인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는다.

그 때 폰 스피커에서 특유의 고저 없는 느려터진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주인님의 A보이스입니다.-

“내가 아리가 그런 말 하는 걸 1년 반 동안 들어본 적이 없어!”

-A보이스가 맞습니다. 정확히는 이 도구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수단이 이것이라 빌린 것에 가깝습니다만.-

이번엔 정말로 ‘너 누구야?’라고 물을 상황이었다.

-저는 차원을 관장하는 신수입니다.-

“…알람이 6시라고? 알았어. 잘 자.”

-그리고 이 상황은 꿈이 아닙니다, 서민하 님.-

두통이 올라올 것 같았다.

“저기요, 아리야. 내가 스물다섯 살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서민하 님. 이 도구에 남은 정보로 미루어 보아 만 24세. 한국대학교 졸업. 신장 156cm에 직업은 회사원. 취미는 연재소설에 악성 댓글 달기이며 닉네임은 독한 박쥐….-

“야, 야, 야, 아리!”

어딜 남의 개인정보를 막 떠들어 대고 난리야! 나는 아리가 사고를 치기 전에 재빨리 폰을 집어 들고 화면을 꺼 버렸다. 하지만 내가 들자 액정은 곧바로 다시 켜졌다.

-제 말을 들으셔야 집에 갈 수 있으실 텐데요.-

“……너 진짜 뭐야.”

핸드폰을 뚫어버릴 기세로 노려보았지만 아리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었다.

-이제야 대화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도 왠지 모르게 그 뒤에 있는 ‘누군가’가 웃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 건 착각일까?

“네 말을 들어야 집에 갈 수 있다며. 그럼 안 들으면 못 간다는 거 아냐. 네가 날 여기로 데려온 거야?”

-그렇습니다, 서민하 님.-

“소설 속으로?”

스스로 말하면서도 기가 찼다.

-우선 민하 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저는 민하 님을 이 곳으로 데려온 범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민하 님을 도와드리기 위해 왔죠.-

“그건 또 무슨 멍멍이 소리….”

-민하 님은 이 세계의 신이 될 조건을 충족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신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반인반신의 상태로 계시기에, 반쪽이 걸쳐져 있는 이쪽 세계의 시험장으로 끌려 들어오신 겁니다.-

…이젠 뭐라 딴지를 걸기도 피곤한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냥 아리의 말에 적당히 장단을 맞추기로 작정하고 베개를 끌어와 양 팔로 안았다.

“그래서 내가 무슨 조건을 맞췄는데?”

-백 번의 저주.-

베개를 손톱으로 뜯을 뻔했다.

-이쪽 세계에 속한 특정인을 향해 백 번의 저주를 한 자는 불행의 신의 권좌에 오를 자격을 얻습니다. 물론 신의 자리는 좀처럼 공석이 나지 않기에 저주를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신 후보가 되지는 않지요. 민하 님의 경우에는 마침 불행의 신 자리가 비어있는 사이 조건을 충족하셨기에 이 세계에 오실 수 있었던 겁니다.-

“저주?”

-딱한 사연 있는 건 알겠는데 마지막의 마지막에 시그롯 외전은 좀 아닌 듯. 힘들다고 주변에 짜증이나 부리고 다니니 저런 순간에 옆에 아무도 없죠. 차라리 평생 반성하지 말고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아리가 또박또박 읊은 것은 내가 바로 몇 시간 전 내 방 침대 위에 엎드려서 시그롯이 나오는 소설에 달았던 악플이었다.

-당신이 시그롯 카르스트라드 이반 멜프라우에게 한 이 백 번째 저주로서, 그가 당신이 불행의 신으로 완성되기 위해 희생될 제물로 선정되었습니다.-

올린 순간 이상한 답댓글이 달리고 날 이 세계로 날려 보내더니, 이제는 쓸 데 없이 양심마저 콱콱 찌르고 있는 눈엣가시 같은 글.

-시그롯 카르스트라드 이반 멜프라우에게는 앞으로 불행의 신 후보인 당신의 손으로 예비한 백 번의 시련이 내리게 될 것이며….-

그 별 생각 없이 쳤던 말들이 전부 저주였다고?

-그 중 한 번의 시련은 그의 목숨을 빼앗아 당신에게 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러면 민하 님, 당신은 신으로 완성되어 이 세계에 영원히 군림하겠죠.-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게 앉아 있다가 겨우 대답했다.

“저기… 제물 반품할게요.”

아리는 내 말에 명랑하게 대답했다.

-취소되었습니다.-

“반품! 반품한다고! 신을 시켜줄 거면 돈의 신 이런 거나 해주지, 불행의 신은 대체 뭔데? 평생 재수 없을 것 같잖아! 안 해! 집으로 보내줘!”

-취소되었습니다.-

“그 전에 난 시그롯을 죽인다는 말은 한 번도 쓴 적이 없거든? 누가 제물 같은 거 필요하대? 그런데 누구 맘대로 사람을 죽는다 만다 말해?”

-시그롯 카르스트라드 이반 멜프라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

-민하 님, 당신이 가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는 기분과 함께 나는 핸드폰을 다시 내려놓았다.

꿈이라도 해도 너무 질이 나쁜 이야기였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악플 백 개를 써서 불행의 신 후보에 선정되어 이 세계로 끌려왔고, 내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날 신으로 만들기 위한 의식이 시작됐고, 그 의식이 내가 쓴 악플 백 개에 맞춰 시그롯에게 시련이 내려오는 거라 이 소리야?

나는 내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하던 시그롯을 떠올렸다. 뭐 틀린 말 아니네. 가만히만 있으면 알아서 백 개의 시련이 생겨서 그 중 하나로 시그롯이 죽을 테니까. 죽여주는 거 맞네. 저주를 했으니까. 악플을 썼으니까.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이런 악몽을 꿔야 해? 영업부 김 팀장인가? 혹시 나 저주 받으라고 굿했니?

-걱정 마세요, 민하 님.-

그때 양손으로 얼굴을 짚고 앉아있던 날 보고 아리가 말했다.

-당신이 신이 되기를 원하지 않을 거라는 건 저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의 도구를 빌려 지금 말을 걸고 있는 중이죠.-

“아리인 척 하지 말고 본론이나 말해.”

-백 개의 시련이 지나갈 때까지 시그롯 카르스트라드 이반 멜프라우를 살려서 의식에 실패하면, 당신은 인간으로 남아 원래 세계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야?

나는 이제 뭐가 나와도 놀라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액정을 쳐다보았다. 액정의 A보이스 어플 화면에서는 계속해서 아리와 내가 하는 말이 찍혀 올라오고 있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죠.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더니 화면이 꺼지며 다른 화면이 나타났다.

내가 매일 밤 자정마다 확인하던, 아주 익숙한 화면이었다.

웹소설 연재플랫폼 스위트페이지.

고구마 색 바탕화면 한 가운데 sweetpage라고 뜨는 로고가 지나간 뒤 보이는 건 단 한 종류의 소설뿐이었다.

<백작영애와 용병 황자>

따끈따끈한 새 화로 올라와 있는 199화 외전.

나는 떨리는 손으로 199화라고 쓰인 글자를 눌렀다. 조금 전까지도 생각하고 있던 시그롯 외전이 그대로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채 눈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댓글창으로 왔을 때는 나와 정체 모를 미친 놈이 썼던 댓글만이 창에 덩그러니 떠 있었다.

“이 마이너스가 너야?”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이 세계가 무작정 모셔올 예정이었던 민하 님께 끼어들어서 도와드리고 있는 건 저니까요. 이 도구는 꽤 재미있는 구석이 있군요. 민하 님께서 가장 익숙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수단을 골라봤죠.-

분명 스위트페이지를 켜느라 A보이스 어플을 활성화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아리가 말하고 있었다. 핸드폰 기능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아리는 그대로 나에게 선고하듯이 말했다.

-자, 민하 님. 우선 튜토리얼부터 시작할까요?-

“튜토… 뭐?”

-만약 당신이 내일까지 시그롯 카르스트라드 이반 멜프라우에게 예비한 저주를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다면….-

분명 한 치도 다르지 않은 A보이스의 기계적인 음성 그대로인데도 이상하게 즐겁게 들리는 목소리였다.

-제가 민하 님이 쓰셨던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드리겠습니다.-

나는 폰을 들어 알람을 멈춰둔 뒤 아직 졸음에 잠긴 눈을 끔뻑였다.

그러고 보니 꿈자리가 좀 이상했지. 갑자기 읽던 소설 속에 들어오질 않나, 거기서 매화마다 욕하던 악역 캐릭터가 타락하기 전 어린 시절로 나타나 양심을 찌르질 않나, 나중엔 핸드폰이 말을 하면서 좋아요를 찍어주겠다고 하질 않나. 워낙 헛소리를 하길래 한 잠 자고 일어나면 정신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개꿈….”

웅얼거리고 있으려니 어딘가에서 자물쇠가 덜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가만, 문 열리는 소리?

나는 반사적으로 주변에서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찾았다. 하지만 그럴만한 게 보이지 않아 이번에는 숨을만한 곳을 찾았다.

폰 화면에 112를 찍으며 침대 밑으로 들어가려던 내 앞에 문을 열고 나타난 건 한 보따리의 짐을 든 시녀였다.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어, 죄송. 제가 혼자 살아서 문 따는 소리에 좀 민감한데… 여기 모텔인가요?”

“황궁 지하감옥입니다. 지금 당장 옷을 갈아입고 나오십시오.”

응… 그런 거 같더라….

나는 세숫물도 받지 못해 눈곱투성이인 채로 원래 시녀가 주는 옷으로 갈아입고 보따리 안에 짐을 챙겼다. 짐이라고 해봐야 옷과 갖고 있던 잡동사니가 전부였지만 말이다.

시녀의 뒤를 따라 미로 같은 건물을 이리저리 빠져나오자 어느 새 밖이었다.

비쩍 마른 말의 고삐를 쥔 병사가 서 있다가 이 쪽을 향해 다가왔다.

“전하의 명이십니다. 이 말을 타고 세 시간 정도 서쪽으로 달려 10시 30분에 출발하는 배편을 찾으십쇼. 암호는 가방 안에 넣어 두었습니다.”

“말 탈 줄 모르는데요.”

승마 경험이라곤 제주도 여행가서 몇 분 타본 조랑말이 전부다.

하지만 병사는 내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고삐를 내 손에 억지로 쥐어 주었다.

“황궁에 몰래 들어온 건 중죄지만 전하의 자비로 보내주는 겁니다. 다시 돌아왔다간 목숨을 버릴 줄 아십쇼.”

그들은 나와 더 상종도 하기 싫은 양 귀찮은 태도로 돌아섰다. 일말의 여지도 없이 닫히는 문을 보면서 나는 그들이 내가 무사히 가는 걸 ‘제대로 확인할’ 정도로 황태자에게 충성심이 강하지는 않은 모양이라고 대충 찍어 보았다.

“하아….”

차가운 새벽공기가 뺨을 때리자 강제로 졸음에 취해 있던 정신이 맑아졌다.

안장이라도 좀 달아줄 것이지. 고삐 끝에서 멀뚱히 날 쳐다보는 늙은 말을 어찌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나는 문득 입고 있던 로브 같은 옷 주머니에 손을 넣어 핸드폰을 꺼냈다.

“아리, 나와.”

-네, 서민하 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나는 그대로 질끈 눈을 감았다. 역시나 대답하는 건 ‘내’ 아리가 아니다.

꿈이 아니었다. 더 이상은.

“시그롯의 저주를 막으라는 게 뭔지 설명해 봐.”

-저주를 직접 쓰신 민하 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떡하라고. 걔한테 가서 이거 써서 죄송합니다, 사과하라고?”

인터넷에서 연예인을 욕하다가 명예훼손으로 소송이 걸리는 기분을 간접 체험하는 것 같다.

-저주는 불행의 신 후보인 민하 님이 쓰셨던 대로 이루어집니다. 정확히는 댓글이 지칭하고 있는 본문 속의 시간대에 맞춰 일어나도록 되어 있죠. 감이 잘 오지 않으신다면 직접 댓글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리가 정말 내 핸드폰 기록을 전부 파악하고 있다면 저렇게 말해선 안 된다. 왜냐하면 난 어젯밤 잠들기 전에 심란한 기분으로 그 놈의 댓글을 스무 번은 다시 읽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눈 감고도 줄줄 외울 수 있을 정도로.

하지만 시간대, 시간대라….

“소설 본문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는 소리야?”

나는 다시 스위트페이지를 열고 소설 199화를 켰다. 그러고 나서 지겹게 읽은 부분들을 지나 시그롯이 독을 먹고 쓰러지는 장면에 다시 이르렀다.

시그롯은 스스로 독을 삼켰다. 일부러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황실의 금지된 방에 몰래 들어가서. 하지만 어쩌다 보니 그 현장을 목격한 나는 의사를 불러 그를 치료받게 만들었다.

만일 그게 첫 번째 저주였다고 가정하면, 그 때 내가 의사를 부르지 않았다면 시그롯이 정말로 죽었을지 모른다는 뜻이 된다.

‘그런데 저주가 아직 안 풀렸단 말이지.’

내가 어제 만난 시그롯은 초췌하긴 했어도 외전 끝에 나왔던 것처럼 딱히 미치거나 사악해진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게다가 아리의 말에 의하면 아리가 내게 저주를 막으라고 준 기한은 오늘까지였다.

시그롯이 자살시도를 한 다음날을 묘사한 부분이 아마 있었을 텐데.

나는 외전 페이지를 넘기며 글자들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읽었다. 신수가 들어있어서 그런지 배터리가 닳지 않고 있는 게 다행이었다. 시그롯이 독에 괴로워하다가 어느 순간 미친 것처럼 웃기 시작하던 부분을 양심의 가책 때문에 흐린 눈으로 대강 넘기고 나자 내가 바라던 ‘그 날 이후’에 대한 묘사가 등장했다.

"깨어나지 못하던 황태자는 사흘이 지나자 다시 눈을 떴다. 의사들의 극진한 치료에 의해서였다. 비록 신수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그는 여전히 아직 제국의 황태자였다.

시그롯은 스스로 독을 마시고 죽음을 택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을 만큼 빠른 속도로 건강을 회복했다. 그러나 그의 녹색 눈동자는 때때로 다른 사람처럼 어둡게 빛났다.

어느 날 드디어 걸을 수 있게 된 시그롯은 휴식을 위해 황궁 정원을 거닐고 있었다. 겨울이 머지않은 쌀쌀한 날씨에도 풍요의 신수가 축복하는 멜프라우 황궁의 정원에는 흰 장미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장미 정원 사이를 걷고 있던 그의 귀에 어디선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그러고 보니 그 황태자가 아직 살아있더랍니다.”

자연스럽게 소리가 들린 쪽으로 향하던 발은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조용히 멈췄다."

외전에 등장하는 마지막 장면이었다. 깨어난 시그롯은 평소 좋아하던 장미 정원에 나갔다가 우연히 어떤 사람들의 말을 엿듣게 된다.

신수안을 가지고 태어난 그의 사촌 동생과 그 추종자인 귀족들이었다.

‘원작에선 며칠 뒤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시그롯은 어제 바로 내가 갇힌 감옥으로 찾아왔었다. 사흘이 아니라 몇 시간 만에 깨어난 셈이다. 이건 해독조치가 빨랐기 때문일까?

나는 계속해서 다음 내용을 읽어나갔다. 그들은 시그롯이 정원수 뒤에 숨어 자신들의 대화를 듣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로 그가 폐위되는 건 시간문제라며 떠들어 대기 시작했다.

"“황태자에게 신수안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의식을 거행했다는 건 폐하께서도 이미 시그롯 그 놈을 폐위할 의사를 드러내신 걸 테지요. 이젠 황족이면서도 신수안을 갖고 계시는 폴린스 님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는가, 자네들? 아직 황태자 전하께서 멀쩡히 살아 계시지 않은가. 폐위라니 이 소리가 새어 나간다면 엄연한 황실에 대한 불경일세. 크흠크흠!”

“이미 폐하께서도 버리셨는데 황태자 따위에게 이제 와서 무슨 힘이 남아 있겠습니까? 신수를 갖지 못한 황태자라니, 그런 자가 제위에 오르는 게 더욱 큰일입니다.”

황태자의 사촌 폴린스는 일견 그들을 만류하려는 것처럼 손사래를 쳤지만 입매는 히죽 올라가 있었다. 황제의 직계손이 아니면 황족 중에서도 희귀하게 나온다는 신수안의 소유자로 태어난 것까지는 좋았으나, 그것 말고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신수안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어릴 때부터 줄곧 견제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황태자가 신수안을 갖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의 주변에는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다.

시그롯이 폐위된다면 바야흐로 폴린스의 시대가 올 것이다. 황제가 될 꿈에 부풀어 있는 폴린스에게, 누군가가 옆에서 달콤한 아부의 말을 건넸다.

“황태자도 안됐죠. 어차피 폐위될 운명에 본인께서도 생각이 있어 독을 마신 걸 텐데, 차라리 살아나지 못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거 정말로 아쉽게 되었군.”

그때 그들이 서 있는 뒤로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늘 아래에서 눈부신 미소를 지으며 나타난 소년은 멜프라우 제국의 황태자 시그롯이었다."

거기까지 읽고 난 나는 더는 페이지를 넘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 다음 장면.’

외전의 마지막이자 시그롯이라는 이 소설 최대의 악인이 탄생하는 장면.

나는 이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다.

“오늘이야?”

아리는 분명 내게 오늘까지 저주를 막으라고 말했다.

“오늘이야, 아리?”

핸드폰을 향해 말을 걸자 아리는 말없이 액정에 애플리케이션 하나를 띄웠다.

흰 장미 정원이 표시된 황궁의 위치 정보였다.

“그 여자는 무사히 보내 주었느냐?”

“네, 전하.”

시그롯은 시녀의 보고에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독을 마신 지 겨우 하루가 되었을 뿐이지만 몸 상태는 나쁘지 않았고, 회복 경과도 아주 좋았다. 깊게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자 오히려 개운할 정도였다.

“격렬한 운동만 하지 않으시면 회복 경과는 순조로울 듯합니다.”

“그래.”

“그리고… 황제 폐하께서 두 시간 뒤에 알현실로 들라고 하셨습니다.”

“알겠다.”

그는 침대에 누운 채로 손짓을 했다. 물러가 있으라는 제스쳐였다. 시녀가 맞은편 방으로 사라지자 시그롯은 눈을 가늘게 뜨고 제 손을 보았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죽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과연 몰래 사라지지 않았어도 그를 찾으러 오는 사람이 있었을지 시그롯은 장담할 수 없었다.

어떤 신수도 그를 선택하지 않은 순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어제의 끔찍한 기억에 시그롯은 잠시 몸서리를 쳤다가, 곧 다른 기억을 떠올렸다.

‘그 사람은 뭐였을까.’

금지된 방에 갑자기 나타난 특이한 옷의 여자를 본 순간 시그롯은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 어쩔 줄 몰라하는 얼굴로 그에게 달려와서 몸을 부축하고, 그러다 무거운지 다시 내려놓고는 정신없이 의사를 부르던 여자.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해야 했었다. 나는 죽을 작정으로 이러는 것이니 의사 같은 건 부르지 말라고 했어야 했다. 하지만 인간이란 모순적이어서 독이 내장을 태우는 그 순간만은 너무 괴로운 나머지 결심을 번복하고 싶을 정도였다.

살려줘. 살려줘. 누가 좀 나를 찾으러 와줘.

아, 정말로 간사하게도.

"전하, 권력은 엄청 좋은 거예요. 황제폐하만 빼면 누구한테든 명령할 수 있으시잖아요. 아무나 전하처럼 황태자로 살아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틀렸다. 권력은 늘 그를 고통스럽게 했다. 차라리 평범한 시녀의 아들 같은 걸로 태어났더라면 이런 고통도 알 필요 없었을 텐데.

"폐하가 어떻게 생각하시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전하가 폐하의 아드님이라는 거고, 누구도 전하께 명령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건 그도 아주 잘 알고 있다. 황태자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가 이 나라에 어디 있을까.

그러나 충성하는 자는 없다.

그의 편은 아무도 없다.

"다들 내가 사라지기만을 바라지."

"저는 아니에요."

입에 발린 거짓말.

그런데도 그녀의 말은 그를 혼란스럽게 했다. 독처럼 그의 내장에 스며들었다.

독이라는 걸 알면서도 너무 목이 말라 결국은 마시고 마는.

‘앞으로 만날 일은 없겠지.’

시그롯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두운 그의 마음과는 반대로 아주 좋은 날씨였다.

문득, 그가 좋아하던 하얀 장미 정원에 나가고 싶어졌다.

황태자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산책을 나가기로 했다. 안정을 취해야 할 몸이었으나 그는 늘 하던 대로 제대로 옷을 갖춰 입고 허리춤에 황실의 예검을 패용했다. 비록 신수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그는 여전히 아직 제국의 황태자였다.

겨울이 머지않은 쌀쌀한 날씨에도 풍요의 신수가 축복하는 멜프라우 황궁의 정원에는 흰 장미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신수의 축복을 잃는다면 더 이상 겨울 정원에는 장미가 피지 못하리라.

아무리 검을 단련해도, 많은 것을 공부해도, 황제로서의 자질을 갖추려고 애써도 그는 겨울에 장미를 피울 수 없다.

시그롯은 가라앉은 눈으로 정원을 거닐었다. 그러던 그의 귀에 어디선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그러고 보니 그 황태자가 아직 살아있더랍니다.”

자연스럽게 소리가 들린 쪽으로 향하던 발은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조용히 멈췄다.

나도 어릴 적에는 수능도피로 온라인 게임에 빠져 남의 부모님 안부를 챙겨주던 시절이 있었다. 정작 대학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자취생활에 익숙해지느라 피곤해서 게임을 거의 하지 않게 되었지만 말이다.

게임에서 보통 성에 잠입하는 퀘스트를 받으면 거의 필수적으로 거치는 장소가 있다.

“비린내 개 쩐다….”

지하수로였다.

“인터넷은 안 되면서 GPS는 대체 왜 되는 거야?”

나는 내 옷을 싼 보따리를 꼭 끌어안은 채로 황궁 지하수로를 걷고 있었다. 액정 화면에는 이 지하수로의 지도와 함께 지상 어디쯤에 뭐가 있는지 한글로 친절하게 입력되어 있었다. 그래도 길이 무척 복잡했기 때문에 자칫하면 길을 잃을 만한 곳이라 나는 지금 신경이 아주 날카로웠다.

시그롯은 나를 암살자로 오해했던 모양이지만, 솔직히 이 지도 기능이 있으면 암살도 꿈은 아닐 것 같다.

-민하 님이 이 세계에 적응하기 힘드실까봐 제가 힘을 좀 써봤죠.-

“아리, 넌 신수 아냐? 나한테 시킬 거면 그냥 네가 알아서 어떻게 좀 하면 안 돼?”

-신수가 인간계에 모습을 드러내거나 힘을 행사하기 위해선 원래 신수안을 가진 계약자가 필요합니다. 그나마 제가 신수 중 최강이라 이렇게 제한적으로나마 간섭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기능 할 거면 나한테 버프나 좀 주지? 지금 걷는 거 힘들어 죽겠거든? 택시 타고 싶다….”

누구는 차원이동하면서 막 스킬창도 생기고 렙업도 하던데 나는 왜 고작 핸드폰 하나야? 불행의 신 후보라더니 퀘스트를 줄 거면 능력도 같이 줘야 하는 거 아냐?

-제가 이 도구를 벗어나 쓸 수 있는 힘에는 제한이 있어서요. 그럼 두 가지 버프 중 하나를 드릴 테니 골라보세요.-

“뭔데.”

-지금 여기서 무한정 달려도 지치지 않은 강철체력과 이 세계에 머무시는 동안 신체적으로 늙지 않는 노화방지 중 하나를….-

“노화방지! 노화방지!”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민하 님은 늙지 않습니다. 자, 어서 뛰세요.-

“야, 이…!”

나는 근본도 없는 아리의 부모님 안부를 물으면서 수로 안을 달리기 시작했다. 비린내 때문에 진짜 미치겠네. 여기 옷을 입고 있어서 다행이지, 4개월 할부로 산 출근용 블라우스에 이 냄새가 밴다고 생각하면 끔찍해서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도 다행인 건 아까 내가 있던 곳에서 장미 정원이 그리 멀지는 않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멀지는 않다뿐이지 멜프라우 황궁은 무시무시하게 넓었기 때문에 걸어도 걸어도 끝이 없었다.

-조금 뒤에 수로 관리인이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뭐, 기습해서 열쇠를 뺏으라고?”

-아니오, 나갈 때만 문단속을 하는 자이니 그냥 들어왔을 때 근처에 숨어 있다가 타이밍을 봐서 몰래 들어가면 됩니다.-

아차, 게임이 아니었지. 난 또 몹이라도 잡아야 하는 줄 알았다. 하긴 생각해 보면 장비도 하나 없는데 무슨 몹을 잡는단 말인가. 튀어나오면 바로 사망인데.

나는 내심 가슴을 쓸어내린 뒤, 지도가 가리키는 바깥 통로 근처에서 적당히 숨을 만한 곳을 찾았다. 하지만 시그롯을 다시 만날 시간이 다가올수록 마음은 점점 초조해졌다.

‘그 장면’을 도대체 무슨 수로 막지? 기절…같은 걸 시켜야 하나? 내 안위는 어쩌고? 아냐, 그래도 집에는 가야 하는데….

어두운 지하수로를 핸드폰 불빛으로 밝히며 걷고 있던 나는 문득 발치에 물컹한 게 닿는 느낌에 몸을 흠칫 떨었다.

뭐지? 뭐야?

나는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발밑으로 비췄다. 그리고 그 곳에는….

“꺄아아아아악!”

시체가 있었다.

“황태자에게 신수안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의식을 거행했다는 건 폐하께서도 이미 시그롯 그 놈을 폐위할 의사를 드러내신 걸 테지요. 이젠 황족이면서도 신수안을 갖고 계시는 폴린스 님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는가, 자네들? 아직 황태자 전하께서 멀쩡히 살아 계시지 않은가. 폐위라니 이 소리가 새어 나간다면 엄연한 황실에 대한 불경일세. 크흠크흠!”

“이미 폐하께서도 버리셨는데 황태자 따위에게 이제 와서 무슨 힘이 남아 있겠습니까? 신수를 갖지 못한 황태자라니, 그런 자가 제위에 오르는 게 더욱 큰일입니다.”

황태자의 사촌 폴린스는 일견 그들을 만류하려는 것처럼 손사래를 쳤지만 입매는 히죽 올라가 있었다. 황제의 직계손이 아니면 황족 중에서도 희귀하게 나온다는 신수안의 소유자로 태어난 것까지는 좋았으나, 그것 말고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신수안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어릴 때부터 줄곧 견제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황태자가 신수안을 갖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의 주변에는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다.

시그롯이 폐위된다면 바야흐로 폴린스의 시대가 올 것이다. 황제가 될 꿈에 부풀어 있는 폴린스에게, 누군가가 옆에서 소곤거리며 말을 건넸다.

“거기다 어제 좀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더군요.”

“재미있는 일이라?”

“근위대장 바르드 경에게 들은 이야깁니다만, 황태자가 독을 마시고 쓰러진 금지된 방에 웬 여자가 하나 있었답니다.”

“여자? 어떤 여자인가?”

폴린스가 솔깃한 듯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특이한 복장을 한 몸집이 작은 여자였는데, 그냥 보기에는 출신과 정체를 전혀 알 수 없었다더군요. 그런데 감옥에 가두고 심문을 하려는 찰나 황태자가 달려 나와서 그 여자와 단둘이 있게 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독을 마신 지 얼마 안 되었을 전하께서?”

“멀쩡한 몸 상태가 아닐 텐데도 굳이 감옥까지 그 여자를 찾으러 내려왔다니,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호오….”

황태자는 이제껏 가족 외 여자에게 사적인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다. 그의 황태자비 후보가 될 귀족 영애들과 어울릴 때도, 시녀에게 지시를 할 때도 그는 호감은커녕 히스테리 때문에 차갑게 날서 있을 때가 많았다.

그런데 금지된 방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자와 함께 있었다니?

“그래서 그 여자는 지금 어떻게 되었지?”

“황태자의 지시로 감옥의 독방으로 옮겨졌다고 들었습니다만, 그 이상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암살자로 추정됩니다.”

“더욱 수상해지는군. 폐하께서도 이를 아시는가?”

“아신다면 당연히 가만있지 않으시겠지요.”

폴린스가 히죽히죽 웃었다. 그는 어제 시그롯이 신수 계약식에서 굴욕을 당하는 모습을 황족 신분으로서 가장 가까이에서 본 인물 중 한 명이었다.

어차피 되지 않을 거라는 체념과 그럼에도 혹시나 하는 일말의 희망, 그리고 끝내 예상했던 결과를 눈앞에 마주했을 때의 절망. 자격도 없으면서 황태자로서 드높은 자존심을 갖고 있던 시그롯이 자살을 택할 것은 자연스럽게 예상되는 수순이었으며, 또한 만인이 바라는 바였다.

“전하도 가엾은 분이지. 그런 일이 있으셨으니 제국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 긍지를 지키고 싶으셨을 터인데.”

“지당한 말씀입니다. 솔직히 신수안도 없는 황태자가 살아 뭣하겠습니까? "평소에 인품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살아봤자 목숨이 아깝다면 더 이상 누구도 옆에서 편들어 주지 않을 텐데요."”

그들은 이 곳이 황태자가 좋아하는 흰 장미 정원이라는 것도 잊은 채 제멋대로 떠들어 댔다. 남을 함부로 업신여기며 안일하게 굴 수 있는 것은 고래로부터 유구하게 권력자가 가지는 특권 중 하나였다.

그들은 폴린스를 따르는 자신들이야말로 이제 권력자가 되리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거 정말로 아쉽게 되었군.”

그때 그들이 서 있는 뒤로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햇빛에 찬란하게 빛나는 금발머리의 소년이 눈부시게 웃으며 장미 덩굴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화, 황태자 전하…!”

“경들의 뜻을 진작 알아주지 못해 유감이네. 그 동안 많이 섭섭했겠어.”

시그롯의 미소는 언뜻 자애로워 보였다. 그러나 그의 녹색 눈동자는 무서울 정도로 고요하게 뒤틀려 있었다.

“경들이 하는 말은 모두 타당해. 신수가 없는 나를 따르거나 지키려는 이는 이 성에 아무도 없지. 아버지조차도 말이야.”

그는 한 발자국씩 천천히 폴린스를 향해 다가갔다. 평온하기까지 한 발걸음이었다. 하지만 폴린스는 이상하게 그 자리에 못박힌 것처럼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러니 폴린스.”

믿을 수 없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 자신을 지켜야지 않겠나.”

그가 웃고 있는 시그롯에게서 공포를 느끼고 있다니.

시그롯은 팔을 움직여 허리에 패용하고 있던 검의 손잡이를 쥐었다. 비록 아버지인 황제를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했으나 그는 늘 무엇을 해도 평균 이상의 성과를 내어 왔던 팔방미인이었다.

우아한 움직임과 함께 황실의 예검이 뽑혀 나오려는 순간이었다.

철퍽!

공중에서 무언가가 날아와 폴린스의 머리에 보기 좋게 명중했다.

무언가 물컹한 것에 맞은 폴린스는 벙찐 표정으로 저를 때리고 떨어진 것을 내려다보고는, 곧 기겁을 하며 땅에 주저앉았다.

“히, 히이익!”

“폴린스 님, 괜찮으십니까?”

측근들이 사색이 되어 폴린스의 주변에 모여들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땅에 떨어진 것을 보자 얼굴색이 시퍼레졌다.

감히 황족의 머리를 치고 지나간 물건의 정체는 쥐의 시체였다.

“저기요!”

정원 한 구석에서 자박거리는 발소리가 났다. 방금 전 쥐가 날아온 곳에서 헐렁한 옷을 입고 나타난 여자가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폴린스에게 달려오고 있었다.

시그롯의 흐릿하던 눈이 커졌다. 그는 저도 모르게 칼 손잡이에 대고 있던 손을 화들짝 떼었다.

그러는 사이 폴린스에게 다가간 여자는 다짜고짜 그의 어깨를 잡고 외쳤다.

“빨리 사과하세요. 지금 당장!”

지하수로에서 내가 밟은 게 죽은 쥐라는 걸 알았을 때는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말은 적당히 특수문자로 치환하도록 하겠다. 어쨌든 쥐를 밟고 기겁한 나는 그걸로 발로 차서 저 멀리 치워버리려다, 문득 다른 생각을 했다.

“이걸 보여주면 시그롯이 기절하지 않을까?”

-놀라서 민하 님을 베지 않을까요?-

“넌 조용히 하고 있어.”

-음소거 되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하얀 장미 정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었다.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고 죽다 살아나기까지 한 뒤, 자신에 대한 모욕을 들은 시그롯은 허리춤에 찬 검을 빼어 그 자리에서 폴린스와 그 측근들을 찌른다.

"“신수안 따위 없으면 어떤가. 내가 황태자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뒤늦게 나타난 근위기사들 앞에서 시그롯은 즐겁다는 얼굴로 소리 내어 웃었다. 그가 좋아하던 정원의 하얀 장미들을 온통 피로 새빨갛게 물들인 채로.

"“내가 이 제국의 차기 황제다!”"

그 날 이후로 황궁 정원에는 두 번 다시 하얀 장미가 피지 않는다.

‘그게 저주일 수도 있으니 일단 그것부터 막아보자.’

내가 쓴 댓글에서 내가 시그롯에게 했던 악담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옆에 아무도 없을 것. 평생 반성하지 않을 것. 둘 중 어느 쪽이 정답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아리가 말한 대로 오늘을 무사히 넘기게 하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나는 여차하면 시그롯을 기절이라도 시킬 작정으로 코를 막고 죽은 쥐를 집어 들었다. 병환 중인 황태자에게 불경을 저지르는 게 신경 쓰였지만 적어도 때리는 것도 아니고 보여주는 정도라면 실수였으니 살려달라고 잡아뗄 수는 있을지도 모른다.

‘이대로 불행의 신이 된다니 그것만은 절대로 사양하고 싶다.’

그래서 그 쥐는, 사실 원래 시그롯에게 쓸 예정이었다.

하지만 곧 있으면 소설 내용대로 폴린스의 목이 두 동강 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지하수로를 뛰느라 숨이 차서 소리 지를 힘도 거의 없었던 나는 시그롯의 시선을 분산할 작정으로 폴린스를 향해 쥐를 던졌다. 그러니 그 쥐가 폴린스의 머리에 맞은 건 순전한 우연이었다.

나는 정신없이 폴린스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붙잡고 말했다.

“빨리 사과하세요. 지금 당장!”

“지, 지금 뭘 사과하라고….”

“시그롯을 모욕한 거, 헉, 황제가 시그롯을 폐위할 거라고 한 거, 하아, 하, 차라리 독으로 죽었어야 했다고 악담한 거!”

“어, 어, 어떻게 그걸 알고 있지?”

역시나 그 개소리 퍼레이드를 했구나. 그러니까 네가 오래 못 살아서 외전에만 잠깐 등장하고 본편에도 못 나오는 거야. 이 엑스트라야!

"처음 칼을 빼들 때까지 시그롯의 머릿속은 온갖 방해로 가득했다. 이제까지 황태자로서 그를 옭아매던 도덕심과 공명심, 자비와 긍지, 의무와 두려움 같은 것들이었다. 사는 동안 너무 무겁고 고통스러워 차라리 내려놓는 게 편하리라고 여겼던 족쇄들."

나는 조금 전까지 읽었던 외전 내용을 생각했다. 마음 같아서는 폴린스의 새끼손가락보다 짧은 명줄을 탈탈 털어버리고 싶었지만, 지금은 일단 시그롯을 막는 게 우선이었다.

"하지만 폴린스를 향해 검을 휘두르려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시그롯의 머릿속에서 잘려나간 것처럼 깨끗하게 사라졌다."

여기서 그의 첫 살인을 막지 못하면,

"그러자, 처음으로 아주 편안해졌다."

시그롯은 앞으로 아주 오랫동안 스스로를 반성하지 못하게 된다.

“황태자도 아니면서 황태자에게 잘난 것처럼 굴지 말라고. 신수안 갖고 태어났으면 다야? 어차피 계약식 따로 안 하면 신수고 뭐고 없는 거 알아? 그 쪽이 지금 여기서 시그롯하고 칼 빼들고 싸워봐, 누가 이기나!”

“이, 이런, 이런 무례한! 거기 아무도 없느냐? 미친 여자를 끌어내!”

내 말에 충격을 받았는지 벙찐 얼굴로 주저앉아 있던 폴린스는 그제야 어디서 튀어나온 여자가 황족인 저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걸 알았는지 일어서서 내게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측근들도 그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한 마디씩 거들었다.

“어딜 황족이신 폴린스 님께 무례하게 구느냐!”

“근위대를 불러와라! 황궁에 침입자가 들어왔다!”

양 옆에서 붙들린 나는 벗어나기 위해 실랑이를 하던 끝에 손에서 아리를 놓쳤다.

“아리!”

손에서 빠져나간 핸드폰이 바닥을 몇 번 구르더니 액정을 아래로 한 채로 엎어졌다. 나는 그대로 사람들의 손에 깔려 강제로 땅에 무릎을 꿇었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안다. 나는 침입자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자고, 황족의 머리에 쥐를 던진 미친 여자니까.

하지만 한 명만은 내가 누군지 알 것이다.

“시그롯!”

나는 시그롯이 서 있는 쪽을 돌아보며 외쳤다.

시그롯은 검을 뽑으려던 자세 그대로 멈춰서 놀란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날 살려줘!”

그 말에 그의 몸이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흠칫 떨렸다.

“나도 널 살려줬잖아! 독을 마신 너한테 의사 불러주고! 죽을 생각 하지 말라고 설득해주고!”

“넌….”

“하나 더 가르쳐 줘? 넌 어차피 거기서 나 없어도 못 죽었어! 대신에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럽기만 하고, 정신이 이상해지기까지 해. 그렇게 불쌍하게 살아나고 싶어? 난 싫어!”

의사에게 제 때 치료받지 못한 시그롯은 독으로 인해 머릿속의 무언가가 끊어진 것처럼 정신이 이상해지기 시작한다. 미친 사람처럼 웃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들을 모두 소중하지 않았던 것처럼 내버리고, 오로지 ‘멜프라우의 황태자’로 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당이 된다.

이제껏 나쁘게만 그려져 왔으면서 끝날 때가 다 돼서야 사실은 얘도 불쌍했다는 과거 사연이라니, 나는 그런 찝찝한 캐릭터가 정말로 싫었다.

나는 불쌍한 시그롯이 너무너무 싫다.

“넌 황태자잖아! 갑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그가 불쌍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무도 널 무시하지 못하고, 너한테 명령하지 못해!”

“근위대장 바르드입니다! 침입자는… 아니, 넌!”

익숙한 얼굴이 달려와 나를 보더니 눈썹을 꿈틀거렸다.

근위대장 랏셀 바르드였다.

“금지된 방에 있던 여자군요. 설마 감옥을 탈출했을 줄이야.”

랏셀이 허리춤의 칼에 손을 가져갔다. 솥뚜껑 같은 손이 내 길지도 않은 머리채를 우악스럽게 붙잡았다.

“황족 암살미수죄로 이 자리에서 처분하겠습니다.”

젠장할, 진짜로 다 개꿈이면 좋겠네.

나는 반사적으로 눈을 감았다. 어차피 아프겠지만 기왕이면 안 보이는 상태에서 한 번에 가고 싶다는 마음에서였다.

랏셀이 내 목을 잘 그어주기를 바라며 속으로 온갖 신을 부르고 있을 때였다.

"황태자가 차고 있던 예검이 매끄럽게 칼집에서 빠져나오자, 비로소 폴린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러나 폴린스는 자신의 온 몸에 돋는 불길한 소름을 애써 무시하려 했다.

그래서였을까, 그는 시그롯이 처음으로 휘두르는 검을 미처 피하지 못했다."

푸욱!

은빛으로 빛나는 검신이 폴린스의 목을 향해 날아들었다.

“크, 크허…억…!”

폴린스는 그대로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화, 황태자 전하!”

측근들과 랏셀이 경악한 얼굴로 시그롯을 돌아보았다. 하지만 시그롯은 멈추지 않고 다가가 다음 표적을 향해 검을 휘둘렀다.

두 명, 세 명, 그리고 마지막인 근위대장 랏셀에 이르기까지.

한 번의 실수도 없는 우아한 움직임이었다. 어찌 보면 아름답다고 할 수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황태자의 표정은 이제껏 없었을 정도로 차가웠으며, 또한 놀라울 정도로 무시무시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리고 시그롯이 마침내 완전히 움직임을 멈췄을 때.

"그가 선 정원의 하얀 장미들은"

그가 선 풀밭 아래로 떨어져 있는 것들은,

"온통 흩뿌려진 피들로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칼로 깨끗하게 베어진 크라바트 천들과 단추, 그리고 황실 근위대를 상징하는 문장이 그려진 랏셀의 옷깃이었다.

"“아무래도 경들은 내가 누구인지 잊고 있는 것 같아.”"

“아무래도 경들은 내가 누구인지 잊고 있는 것 같아.”

목깃이 칼로 잘려나가 꼴사나운 모습을 한 폴린스와 그 측근들이 사색이 된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며 어쩔 줄 몰라하기 시작했다.

랏셀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의 제복 어깨에 있는 근위대의 문장이 훼손되었다는 것은 근위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불충의 상징이나 다름없었다.

근위대장에게 그런 굴욕적인 벌을 내릴 수 있는 상대는 이 제국에 딱 두 명 뿐이었다.

제국의 황제.

그리고 차기 황제였다.

“내 손님에게 허가 없이 손을 대려 하다니 배짱도 이만하면 불경이라 할 수 있지 않겠나.”

시그롯은 그대로 칼을 들어 나를 붙들고 있던 랏셀의 손목을 겨누었다. 그러자 랏셀이 불에 데기라도 한 것처럼 후다닥 나를 놓았다.

반동으로 휘청거리는 내 손을 누군가가 앞에서 붙잡았다.

“나는 멜프라우의 황태자 시그롯 카르스트라드 이반 멜프라우다.”

햇살에 부서질 듯한 찬란한 금발에 아름다운 예복을 갖춰 입은 소년이 내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온화한 어조로 말을 걸고 있었다.

수천 송이나 되는 새하얀 장미꽃을 배경으로 한 채.

“일어나라, 생명의 은인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지.”

지하수로의 비린내로 가득한 내 손등에 입을 맞추며.

그날 점심에 나는 시그롯에게 성대한 오찬을 대접받았다.

“급하게 준비하여 부족한 것을 이해해 다오. 양은 얼마든 있으니 모자라다면 말해라.”

황제를 배알하러 자리를 비웠던 시그롯은 음식이 테이블 위에 다 세팅될 즈음 돌아와 내가 앉은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나는 그가 하는 말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눈앞에 차려지는 음식들이 족히 10인분 이상은 되 보였기 때문이었다.

가장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은 꼬챙이에 끼워진 채 통째로 식탁 위에 올라가 있는 돼지였다. 그걸 그 자리에서 주방장처럼 보이는 사람이 직접 발라 향신료로 간을 치고 있었다.

그 앞으로는 부드러운 흰 빵과 빵에 발라 먹을 수 있는 일곱 가지 색의 소스가 놓여 있었고, 채소와 해산물을 넣어 모락모락 김이 나는 걸쭉한 스프가 있었다. 그 외 정확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요리 접시 사이사이에는 장식용으로 조각하여 황금빛 시럽을 바른 과일들이 장식되어 있었는데, 언뜻 봐서는 꼬리를 펼친 공작새처럼 보였다.

남의 금수저 SNS에서나 봤던 오성 호텔 만찬보다 더한 풍경이었다. 그나마 다른 점이 있다면 코스 요리가 아니라 한 테이블 위에 모든 요리를 늘어놓고 있어서 아주 장관이라는 거?

나는 시녀가 옆에서 잔에 와인을 따라 가져오는 걸 보면서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참고로 와인은 병에서 따르는 게 아니라 식탁 위에 설치된 작은 와인 분수에서 나오고 있었다.

이거 보고 있으니까 정말 못 참겠는데….

“저기.”

먼저 나이프를 들려는 시그롯의 앞에서 나는 소심하게 손을 들었다.

“뭐지?”

“지금… 우리 둘 뿐이지?”

조금 전까지 반말해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싹 존대말을 다시 하기도 뭐해서 나는 슬쩍 눈치를 보았다.

“그렇다만.”

“그럼, 어… 먹기 전에 뭐 하나만, 해도 되나?”

“말해라.”

“말로 하기는 좀 그렇고, 진짜 잠깐만….”

시그롯이 나이프를 내려놓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 핸드폰을 꺼냈다.

찰칵!

“…….”

“…….”

따끈따끈한 식탁 앞에서 사진 찍는 소리가 경쾌하게 퍼졌다.

그 뒤 이어진 시그롯과의 식사는 아주 맛있었으며 매우 어색했다.

미리 말해두겠지만 사진 때문에 어색한 건 아니었다.

대충 내가 살던 곳에서 호화로운 음식을 먹기 전에 하는 종교 의식이라고 둘러대자 시그롯은 이상하게 보면서도 ‘그런가.’ 하고 별달리 신경 쓰는 기색이 없었다. 하지만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자신의 앞에 나타났는지는 매우 궁금한 모양이었다.

처음에는 솔직하게 전부 말할까 생각했지만….

‘만일 내가 내 세계에서 살고 있을 때, 시그롯 같은 옷을 입은 남자가 나타나 자긴 다른 차원에서 왔으며 앞으로 99개의 불행이 찾아올 테니 자기 말을 들어야 살 수 있다고 했으면 미친놈으로 경찰서에 신고부터 했겠지.’

여긴 그래도 판타지 세계니 마법이네 신수네 하는 용어가 익숙하긴 하겠지만 나름 그 안에서도 상식이란 게 있긴 할 테니….

‘일단 친하게 지내면서 신뢰를 얻고 나서부터 말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다고 거짓말을 함부로 했다간 나중에 수습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 나는 그냥 적당히 사실을 섞어 말하기로 했다.

내가 사는 곳에서 알 수 없는 힘에 휘말려 이 곳으로 왔는데, 집으로 돌아갈 방법을 모르겠으며 집도 절도 오늘 당장 잘 곳도 없다고 말이다.

그래도 황태자의 은인인데 황궁에 좀 머물게 해 주면 안 되겠니? 이런 은근한 어필을 섞었음은 물론이다.

“흑마법사의 소행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그 말을 진지하게 듣고 있던 시그롯은 뜻밖에 고개를 끄덕였다.

“흑마법사?”

“고대에 사장된 금지된 비술에 손을 댄 자들이다. 사악한 이들이니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아.”

시그롯은 그들과 상종하기도 싫다는 듯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반면 나는 ‘흑마법사’라는 단어가 왠지 모르게 익숙했다.

흑마법사… 본 것 같은 단어인데. 소설 속에서던가?

내가 생각에 빠져 있는 사이 시그롯이 우아한 손길로 빵과 고기를 잘라 소스에 바르며 말했다. 되게 안 먹는 사람처럼 차분한 손놀림으로 그는 아까부터 한 3인분 정도를 깔끔하게 먹어치우는 중이었다.

성장기 남자애의 식사량이란….

“사정이 딱하고 나도 네게 신세를 졌으니 당분간은 황궁에 머물도록 해라. 하지만 오래는 있지 못할 거라는 걸 미리 명심하도록.”

“오래는 못 있는다고? 왜?”

“내가 언제 성에서 나가게 될지 모르거든.”

내가 눈을 크게 뜨자 시그롯이 쓰게 웃으며 이 쪽을 바라보았다. 초록색 눈동자가 아직 경계의 빛을 담고 조심스럽게 나를 관찰하는 게 느껴졌다.

“이름이 무엇이지?”

그러고 보니 내 이름을 말한 적이 없다는 게 떠올랐다.

“민하….”

“미나?”

“그렇게도 부르고… 정확히는 민, 하, 라고 하지.”

“민, 하. 민, 하….”

시그롯은 내 이름을 분명히 기억하려는 것처럼 입술과 혀를 움직여 민, 하, 라고 몇 번 반복하여 발음했다.

그리고는 자신이 생겼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너를 환영한다, 민하.”

정말로 왕자님 같은 얼굴로.

-첫 번째 저주를 무사히 풀어내신 걸 축하합니다.-

안내된 방에 들어와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목욕을 하고 혼자가 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아리가 약 올리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그 저주, 저주 하는 말 좀 안 쓰면 안 돼?”

-저주라는 단어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어디서 함부로 말 잘못했다가 마녀라고 오해라도 받으면 어떡해? 게다가 계속 듣고 있으니까 정신 사나워.”

남들 앞에서도 정신이 없으면 무슨 사람 대하듯 아리를 부르게 되는데, 만에 하나 입을 잘못 놀려서 엿 될 확률은 줄이는 게 나았다.

“우리끼리만 알아듣게 단어라도 바꾸자. 무슨 플래그 이런 걸로.”

-사망 플래그?-

“야!”

-그럼 불행 플래그 정도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좀 들으니 재수가 없기는 하지만 내가 불행의 신 후보라 의미는 대충 맞았으므로 반박할 말이 없었다.

불행 플래그… 뭐 발음해 보니 나쁘지는 않았다. 사망 플래그보다 심적인 부담감도 적고.

나는 조금 전에 시녀가 타 주고 간 커피 잔을 물끄러미 보았다. 이 세계에선 내가 살던 원래 세계보다 커피를 조금 묽게 타는 모양이었다.

방은 내 좁은 자취방보다 훨씬 넓었고, 벽지나 가구도 어제 자던 감옥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고급스러웠다. 방 한 쪽에는 은은히 장작이 타는 벽난로와 영화에서나 볼 법한 소파가 있다.

‘진짜 약간 외국으로 여행 온 것 같네.’

그게 앞으로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하게도 내일 당장 회사에 갈 필요 없다는 사실이 가슴에 묘한 고양감을 준다.

‘야근도 안 해도 되고, 늘 맛있는 거 나올 테니 오늘 뭐 먹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돈 벌려고 악착같이 일하지 않아도 되고, 하루에 다섯 시간만 자지 않아도 돼. 아, 대신 시그롯의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목숨이 오락가락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나?’

랏셀이 내 머리채를 휘어잡던 때를 다시 생각하면 온 몸에 오소소 소름이 돋는다.

“몇 가지 좀 묻자.”

나는 커피를 마시며 핸드폰을 손에 들었다. 대답하지 않아도 아리는 듣고 있을 것이다.

“시그롯이 지금 몇 살이지?”

-올해가 제국력 1233년이니 열여섯 살입니다.-

“남주인공인 칼릭스와 태어날 때 바뀌었으니 동갑이잖아. 본편 시작할 때 칼릭스가 스물 세 살이었으니까… 지금이 본편 시작하기 얼추 7년 전이라는 소린데, 맞아?”

-민하 님의 계산이 맞습니다.-

역시나.

나는 침통한 얼굴로 스위트페이지를 켰다. 그리고는 <백작영애와 용병 황자>의 전체 댓글 보기를 눌러 내가 쓴 댓글만 주르륵 남아 있는 걸 손가락으로 밀며 다시 보았다.

본편까지 앞으로 7년의 시간이 남아있다면 생기는 지대한 문제가 한 가지 있다.

‘내가 시그롯에게 악플을 단 회차가 거의 전부 본편이란 말이지.’

즉 본격적으로 플래그를 없애기 위해서는 앞으로 7년이 흘러야 한다는 소리였다.

7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세계에 갇혀 있기만 하라고?

“너 신수라며. 시간은 빠르게 할 수 없어? 지금 이 시점에서 7년 후로 한 번에 뛰어넘게 해 주던지, 본편까지 시간이 긴데 할 게 없잖아.”

-제 원래 능력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원래 능력?”

-말씀드렸다시피 신수는 계약자가 없으면 인간계에 현신조차 할 수가 없어서요. 지금 제가 민하 님께 간섭하는 것도 원래 굉장히 힘든 일이랍니다.-

“그 말은 어쨌든 내 핸드폰에 기생하는 것만도 버거워서 시간조종을 못해준다는 소리네?”

-하지만 민하 님, 지금 상황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민하 님이 백 번째 저주를 하신 뒤부터 모든 플래그가 생기기는 했지만 오늘 하신 것처럼 대부분 잘 대비하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죽은 쥐를 또 만지라는 거야? 싫다, 정말….”

-민하 님께서 다신 댓글들을 잘 읽어보세요. 비록 불행으로 나타나는 건 본편 시점에서일지 몰라도, 원래 대부분의 불행은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니까요.-

사기꾼 같은 말이었다. 하지만 지금 집에 돌아가기 위해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리의 말뿐인 것도 사실이었다.

나는 맨 위의 199화 최신 댓글에 붙어 있는 ‘좋아요’의 빨간 하트 모양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내가 시그롯에게 썼던 말 중 악담으로 썼던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 회색으로 흐려져 있는 것도 보았다.

‘본편 시작 전 과거인 지금 시점에서 막을 수 있는 미래의 불행이 있다고?’

나는 아직도 시그롯에 대한 온갖 악담으로 가득한 내 댓글들을 주르륵 내려보다가, 문득 생각난 게 있어 이번에는 소설 본편을 아무거나 눌러 읽기 시작했다.

‘흑마법사, 흑마법사….’

분명 소설에서 그런 위치의 캐릭터가 등장했었다. 무슨 역할이었더라. 좋은 역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소파에 비스듬이 앉아 소설 중후반쯤의 회차를 뒤적거리던 나는 마침내 찾던 단어가 눈앞에 나타나자 번개라도 맞은 듯한 기분으로 몸을 일으켰다.

"“이제까지 제국의 모두를 속였구나, 시그롯! 어떻게 황족도 아닌 네가 신수를 가지고 있었지?”"

본편에서 줄곧 제국의 황태자로 군림해 오던 시그롯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왜 이걸 진작 눈치 채지 못했지?

<백작영애와 용병 황자> 안의 악당 시그롯은 신수안이 없는데도 본편에서 신수를 가지고 있었다. 그랬기에 남주인공인 칼릭스의 라이벌이 될 수 있었고, 중후반에 칼릭스와 바뀌었다는 반전이 드러날 때까지 멜프라우의 황태자로 있을 수 있었다.

그가 흑마법사와 손을 잡고 가짜 신수를 손에 넣었기 때문에.

악당 캐릭터에는 세 종류가 있다. 주인공의 레벨업용 쩌리 슬라임처럼 등장해서 금방 퇴치당하고 사라지는 엑스트라급 악역. 그리고 그들에 비하면 조금 더 비중이 있으나 이야기 진행에 감칠맛만을 더할 뿐 결국 주인공의 발치에서 파스스 사라지거나 우리 편이 되는 중간 보스급 악역.

그리고 이야기 전반에 걸쳐 주인공과 대립하는 최종 흑막급 악역. 그게 바로 시그롯이었다.

소설 첫 부분에서 여주인공 리리샤의 약혼자로 처음 등장할 때, 시그롯은 오만하고 잔인한 구석이 있는 걸로 유명했을 뿐 능력 면에 있어서는 흠 없는 황태자로 묘사되었다. 특히 제 사람에게는 입 안의 혀처럼 친절하게 굴었기에 리리샤 역시 파혼당하기 전까지 그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었다.

그건 시그롯이 신수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흑마법사가 만들어 준 마수안(魔獸眼)이었지만.

‘맞아, 그랬었어. 그래서 이 놈이 나쁜 놈이었지.’

신에 가까운 권능을 가진 신성한 짐승 신수는 신수안의 주인에게 힘을 빌려주지만, 일반적인 판타지 소설의 몬스터에 가까운 마수는 마수안의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한다. 흑마법사의 도움을 받아 강력한 마수를 손에 넣은 시그롯은 그것을 신수라고 속여 자신을 진짜 황족으로 위장한다.

부작용이 많은 마수안은 시술하는 것만으로도 사망할 확률이 높은 위험한 비술이었다. 거기에 기적적으로 성공한 시그롯 같은 케이스라도 마수안이 계속 양분을 요구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람을 죽여 생명력을 흡수시켜야 한다.

시그롯은 자신의 신수가 가짜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적국의 소행으로 위장해 현 황제의 신수를 살해하기까지 한다. 신수는 죽인다고 죽는 존재가 아니지만 한 번 힘을 잃으면 오랫동안 잠들어 있어야 하기에 제국에는 혼란이 찾아오고… 대충 그 혼란을 새로 신수와 계약한 진짜 황자 칼릭스가 나타나 가라앉힌다는 전개다.

내가 시그롯에게 가장 많이 악담을 쓰고 있을 시절이었다. 괜히 걔를 욕했던 게 아니라니까? 지금이야 낯가리는 강아지로밖에 안 보이지만 본편 시점의 악당 시그롯은 강아지가 아니라 미친개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런데 시그롯이 흑마법사와 계약해서 마수안을 얻는 게 도대체 언제쯤이지?

나는 혹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소설 내용을 속독으로 휙휙 넘겨보았다. 하지만 몇 번을 다시 봐도 그가 흑마법사와 접촉한 시기가 정확히 언제쯤인지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였다.

하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지.

“아리, 이거 언제야?”

나는 내가 썼던 댓글을 가리키며 아리에게 물었다.

“황제 폐하, 던칸 후작께서 오셨습니다.”

멜프라우 제국의 황제 이반 3세가 서류 속에서 고개를 들었다.

“풍요로운 제국의 어버이이신 황제 폐하를 뵙습니다.”

“아직 영지로 돌아가지 않았나?”

“황태자 전하께서 쓰러지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던칸 후작은 제국의 귀족회를 이끄는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황태자의 신수 계약식을 관전하기 위해 영지에서 올라와 아직 제도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는 이름난 충신으로도 유명했다. 자신의 가족보다도 제국의 안위를 더 걱정하여 무정하다고도 일컬어질 만큼.

그렇기에 신수에게 선택받지 못한 황태자를 불쌍히 여기면서도, 제국을 위해 그의 폐위를 주장하는 인물이기도 했다.

“시그롯의 예후는 좋네. 발견이 일러서 순조롭게 회복되는 중이지.”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표할 의향이신지….”

“침입자와 같이 있었다고 들었다만, 시그롯은 그 자가 오히려 자신의 은인이라고 하더군. 특별 면책권까지 써서 그 자의 황궁 침입죄를 사면해 달라고 할 정도였지.”

특별 면책권은 황제와 직계황족이 특별한 날에 쓸 수 있는 죄수 사면권이었다. 반역 정도의 엄청난 중죄가 아닌 이상은 사형수도 면책권으로 살릴 수 있었다.

"신수를 얻지 못했어도 계약식은 제게 특별한 날이 아닙니까."

황제는 잠시 아들의 침울한 미소를 떠올렸다.

“누구인지 캐볼 필요가 있겠군요.”

“그렇잖아도 사람을 붙여 두었지. 일거수일투족을 내게 올리라고 말이야. 그 보고 자료가 이것일세.”

후작은 황제가 내민 서류를 받아들고 읽었다.

종교 의식. 명상. 식사. 간식. 명상. 종교 의식. 명상. 식사. 간식. 수면.

“…성직자입니까?”

후작이 묻자 황제는 저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이마를 짚었다.

“내년 봄.”

황제는 의자에 앉은 채로 서류 사이에 깔려 있던 달력 위에 원을 그렸다.

“1년에 두 번 뿐인 대귀족회의가 열리는 날에 시그롯의 황태자로서의 역량을 다시 시험할 생각이네.”

제도 근방의 귀족들만이 참가하는 한 달 간격의 귀족회의가 아니라 지방영주들까지 모두 올라와 참여하는 대귀족회의를 말하는 것이었다.

1년에 두 번, 이 대귀족회의가 열리는 날에 주로 국가의 중대사가 결정되곤 했다.

“그 때까지 전하께서 신수를 얻으셔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신수안이 없는데 어떻게 이제 와서 신수를 얻어 계약자가 된단 말인가?”

황제가 피식 웃었다. 아들에 대한 기대가 컸기에 실망하기는 하였으나 그 역시 풍요의 신수의 계약자로서, 기본적인 자비가 없는 황제는 아니었다.

그는 적어도 시그롯이 죽기를 바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무언가 사정이 있어 알아서 사라져 준다면 차라리 편할 것이라고만 생각했을 뿐.

멜프라우 황가의 황위후보들은 모두 열여섯 살에 신수와 계약을 맺는다. 그러고 나면 평범한 인물이라고 해도 신수의 가호를 가지기에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모하곤 했다.

“다만 신수를 갖지 못한다면 혼자 힘으로도 ‘계약자’에 버금갈 정도의 역량을 증명해야겠지.”

신수가 부여하는 가호 중 하나는 바로 계약자에게 빼어난 재능을 내려준다는 것이었다.

“민하 님, 황태자 전하께서 면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아, 고마워요. 잠깐만….”

나는 내 옆에 와서 말하는 리브를 쳐다볼 새도 없이 폰 액정 화면에 집중했다. 맨 꼭대기까지 아슬아슬하게 차오르려는 상태에서 이제 막 한 줄을 채운 테트리스 블록이 터지려는 참이었다.

손가락이 불안하게 움직였다. 블록이 360도로 미친 듯이 회전했다. 어, 이 방향이 아닌데? 어, 어, 어?

‘아차….’

결국 한순간의 실수로 게임 오버 화면이 떠오른 액정을 미련 없이 휙 꺼버리고는 난 언제 그랬냐는 듯 리브에게로 돌아섰다.

“이제 들어가도 된다고요?”

“네, 또 명상 중이셨습니까?”

“그런 셈이죠. 명상은 자주 해야 좋거든요. 자, 들어가요.”

나는 리브를 향해 사람 좋은 척 하는 근무용 스마일을 지었다. 여기 있는 리브는 얼마 전에 정식으로 내 시중을 들게 된 시녀 중 한 명으로, 지금은 아직 스무 살 정도로 어리지만 소설 속에서는 알고 보니 황제 직속 정보원이라는 정체를 갖고 있는 인물이었다.

아무래도 황제가 내 뒤를 캐라고 시켰나 보지.

별로 놀랍지 않은 사실이다. 내가 황제라도 어느 날 황태자의 은인이랍시고 나타나 자기 집에 빌붙어 사는 이상한 여자가 누구인지 캐고 싶을 게 뻔했다.

하지만 그거야 황제폐하의 사정이시고, 나는 내 정체를 순순히 드러낼 마음이 없었다. 불행의 신 후보가 황태자에게 붙어있다는 게 알려지면 요즘 같아선 굿을 해도 모자랄 것이다.

나는 리브가 날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에 대충 웃어주며 시그롯의 방으로 들어갔다.

“민하.”

막 시종들의 도움을 받아 외출용 옷으로 갈아입은 시그롯이 내 쪽을 바라보며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딱히 웃고 있지 않은데도 보면 눈이 맑아지는 것 같은 미소년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는 피를 토하고 있었던 데다, 그 다음에 봤을 때도 초췌한 모습이었던 걸 생각하면 지금 이 보송보송한 모습이 감동스러울 정도였다.

“이제 걸을 순 있어?”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한다.”

“지난번에 많이 먹길래 그 때 벌써 건강한 줄 알았는데.”

“오찬 때 말이냐? 그 때는 몸을 신경 써야 하는 상태라 평소의 반밖에 먹지 않았다. 오히려 네가 거의 먹지 않기에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했었다.”

“…….”

여기 사람들의 큰 키는 아무래도 식사량에서 나오는 모양이다.

“내가 누워있는 며칠 동안 혹시 네게 해코지를 하는 자는 없었느냐?”

“딱히? 별 일 없었어.”

굳이 별 일을 말해보자면 니네 양아빠가 나한테 리브를 붙였다는 것 정도?

내가 이 곳에 온 지 이제 일주일 가까이 되는 시간이 지났다. 그 동안 시그롯은 해독 때문에 대부분 누워 있었고 내게도 나름대로의 적응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나는 그간 방에서 놀고 먹으면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다.

그 중 시그롯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빅 이벤트 중 하나인 마수안 이식이 일어나는 시간대는 내년 봄에 있을 대귀족회의 이전이었다.

‘신수 살해 사건.’

소설 속에는 시그롯의 잔악함을 설명하기 위해 몇 줄로 잠깐 지나가지만 사건 자체는 ‘그랬다더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봄이 되기 전 적국의 소행으로 위장한 사건이 터져 신수궁에 있는 황제의 신수가 기약을 알 수 없는 긴 잠에 빠진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암살자들을 붙잡아 처형하여 신수의 원수를 갚은 황태자와 그의 새로운 신수가 등장한다.

물론 그 사건에서 시그롯을 진범으로 의심하는 이도 있으나 그 때부터는 누구도 그가 황태자라는 사실에 의문을 품지 못한다. 이미 제국의 신수는 없어졌고, 남은 신수의 계약자는 마수안을 가지고 있는 시그롯 한 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미래는 아마도 바뀔 것이다. 내가 달았던 댓글 때문에.

‘시그롯이 만일 댓글대로 마수안 이식수술에 실패한다면 죽을 확률이 높아. 이식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가장 낫겠지. 하지만 마수안이 없으면 대귀족회의에서 황태자로서의 자질을 의심받게 될 거야.’

그러면 시그롯은 황태자 자리에서 폐위될 수도 있다. <백작영애와 용병 황자>의 메인 악당으로 등장했던 시그롯의 존재 자체가 아예 사라지는 셈이다.

‘그럼 원작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상하게도, 나는 그게 묘하게 신경 쓰였다.

새삼스러운 사실이지만 <백작영애와 용병 황자>에서 내가 좋아했던 캐릭터는 당연히 여주 리리샤와 남주 칼릭스였다. 소설의 전체 199화 중 100화에 단 댓글은 시그롯에 대한 욕이었을지 몰라도 나머지 99화는 주인공 커플에 대한 열광과 건전한 소설 감상이었다.

시그롯에게 쓴 악플 대부분은 너만 없으면 주인공 커플이 잘 될 것이라는 류의 악담이었다. 하지만 나도 사실은 안다. 그들 커플의 사랑이 깊어질 수 있었던 건 악당인 시그롯이 끊임없이 훼방을 놓기 때문이라는 걸.

‘시그롯이 없으면 리리샤와 칼릭스는 만날 수 있을까?’

그게 슬슬 걱정되기는 했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나도 쟤를 살려놔야 돌아갈 수 있는데.

‘언젠가 나중에 만나면 잘해줘야지.’

그 전에 사인부터 받고. 지금은 시그롯과 친해지는 게 먼저다. 황태자가 내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선 그의 호감을 사는 단계가 필수였다.

그런데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심지어 신분과 차원까지 다른 남자애랑은 뭘 하면서 친해져야 한담?

“네 말을 듣고 나서부터 누워 있는 동안 여러 가지로 생각해봤다.”

막 그런 궁리를 하고 있는데, 시그롯이 먼저 다가와 내게 말을 걸었다.

“확실히 신수에게 선택받지 못하고 나서 죽으려고 했던 건 사실이야. 지금도 사실 사라지는 것 말고 내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더군.”

평온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말은 시니컬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시그롯은 분위기를 전환하듯이 입가에 작은 미소를 지었다.

“오늘 하루는 내 일정에 너를 동행시키도록 하지. 황궁 사람들과 근위대에게 네 얼굴을 기억하게 해야 네가 내 손님이라는 걸 알고 무례하게 대하지 않을 테니까.”

“아직 쉬어야 하는 거 아냐?”

“거의 나았다. 내게는 멜프라우의 황태자로서 할 일이 있어.”

할 일이라고? 정무 같은 건가?

“무슨 일을 하는데?”

내 의문은 그로부터 몇 시간이 채 되지 않아 풀렸다.

아침부터 점심까지, 점심부터 저녁까지.

시그롯은 하루 종일 공부만 했던 것이다.

두어 시간 동안 꼼짝 않고 책상 앞에 앉아 있다가, 식사를 하고 또 공부, 학자들과 토론을 하며 또 공부, 그리고 저녁 다 돼서는 훈련복으로 갈아입고 연무장으로 나가는 걸 보니 기가 막힐 지경이었다.

“아직 격렬하게 움직이면 안 되지 않아?”

“간단히 몸을 푸는 정도는 괜찮다고 궁의가 말했다.”

내 말에 팔을 돌리며 대꾸한 시그롯이 시종이 주는 연습용 검을 받다가, 문득 뭘 생각했는지 멋쩍은 얼굴로 내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저, 혹시 남이 보기에는 재미가 없나?”

“…….”

“미안하다. 내게는 이게 일상이야. 황태자라고 해서 대단한 건 없어. 오늘만 양해해라.”

“아, 아니, 그게 아니고….”

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사과하지? 책 읽는 옆에서 테트리스만 한 게 그렇게 재미 없어 보였나…?

나도 어쩔 수 없었다. 말은 통하지만 이상하게 글자는 안 통해서(무슨 영화 속 엘프어처럼 생긴 글자였다.) 내 눈에 읽을 수 있는 책은 하나도 없었다고. 그렇다고 시그롯 옆에서 아리를 켜 보이스웨어 목소리로 읽어달라고 할 순 없잖아?

“늘 이러고 살아? 책 보고… 훈련하고….”

“나는 멜프라우의 황태자다. 신수안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남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차기 황제로서의 자질을 증명해야 해.”

“그게 힘들어서 지난번에 음, 위험한 선택을 했던 거잖아? 그럼 좀 쉬기도 해야지.”

난 시그롯 외전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떠올렸다. 그 지문 속에서도 시그롯은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태생적인 한계에 부딪쳐 스스로를 자살로 몰아간다. 그리고 원래는 그걸 계기로 악역으로 각성했을 테니까, 약간 빗겨나갔다고 해도 지금 겉보기보다 좀 심각한 상태 아닌가?

괜한 오지랖을 부리는 건지도 모른다. 이걸 뭣도 아닌 내가 참견하는 것도 좀 이상했고 말이다. 이건 불행 플래그랑 상관도 없잖아? 긁어 부스럼 만들기도 싫고… 내가 눈썹을 찌푸린 채 대답을 고민하고 있을 때였다.

“이러는 게 제일 낫다.”

시그롯이 손에 든 연습용 검을 휘휘 돌리며 말했다.

“하던 일을 계속 하고 있으면 아무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는 내 대답을 듣지 않고 검술 훈련을 시작했다. 몇 시간 전에 지나온 황실근위대 연무장과는 달리 시그롯이 혼자 쓰는 황태자의 개인 연무장은 왠지 휑하고 쓸쓸해 보였다.

나는 연무장 한 구석에 앉아 시그롯이 혼자 훈련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 칼에 문외한인 내가 보기에는 그냥 매끄럽고 유려한 움직임이라 잘하는 것처럼만 보였다.

음, 보고 있자니 무슨 하루 종일 학원 뺑뺑이 다니는 학생을 보는 기분이다.

“리브, 황태자 전하가 왜 혼자 훈련을 하시죠? 스승님은 안 계세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 옆에 있던 리브에게 물었다.

“백기사단장 오르카 경께서 전하의 검술 스승을 맡고 계셨습니다만, 최근에는 일이 많아져 입성하지 않고 계십니다.”

“황태자 전하의 검술 스승보다 중요한 일이 많다고요?”

“저도 자세한 것까지는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고개를 돌리며 무표정하게 물러나는 리브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이것 봐라? 얘 황제 직속 정보원 아냐? 다른 것도 아니고 황태자와 관련된 주변사정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아무래도 황가와 상관없는 외부인인 내게는 말할 생각이 없는 게 분명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결정이지만….

“목이 좀 마른데요.”

나는 리브를 향해 빈 찻잔을 흔들었다. 아무래도 황태자와 함께 다니는 것이다 보니 이렇게 밖에서 남을 부리는 호사도 가능했다.

주전자를 들고 와 내 잔에 차를 따라 주는 리브에게 가까이 다가앉으며 말했다.

“오르카 경이 황태자를 무시하는 이유가 뭐야? 신수안이 없어서?”

리브가 눈동자만 굴려 이 쪽을 쳐다보았다.

“어디 멀리 가서 오래 못 오는 거라면 황제 폐하께서 다른 사람을 대리로 붙여주셨겠지. 그런데 아니잖아.”

“오르카 경은 훌륭한 분이십니다. 말씀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내 말에도 리브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몸을 일으키려고 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도록 나는 리브의 팔을 세게 잡았다.

아마 리브는 나보다 힘이 셀 것이다. 뿌리치려면 할 수 있겠지만,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황궁 시녀가 모시는 사람을 뿌리칠 수는 없을 터였다.

나는 리브의 귓가에 얼굴을 가까이 가져간 뒤 소곤소곤 말했다.

“리브. 황제 직속 정보부 비밀부원. 본명은 이븐 가넷이고 특기는 독, 그리고….”

이게 다는 아니지.

“여장.”

말을 마친 순간 턱 아래에서 날카로운 예기가 느껴졌다.

리브가 내 목덜미에 손을 대고 있었다. 어이쿠. 그런데 손 아래로 흉악한 게 있군요.

“시그롯이 보는 앞에서 뭐 하려고?”

“충분히 사고로 위장할 수 있습니다.”

“황실의 중요 정보가 밖으로 샜는데 출처도 알아보지 않고 증거인멸부터 하겠다? 뭘로 보고할 건데? 정보부의 관리 실책?”

리브의 손이 꿈틀거렸다. 야, 야, 손 조심 좀 해! 시그롯이 보잖아!

나는 리브의 손을 잡아 슬쩍 떼어내며 그를 노려보았다. 내가 소설에서 읽은 걸 떠올려 봤을 때, 황실 정보부가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정보이며 어쩔 수 없을 때만 살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내가 여기서 황제 폐하가 변태 시녀를 붙여주셨다고 소리 지르면 폐하께서 실수였다고 내게 말씀하실까? 나 같으면 모르쇠하고 너만 내칠 것 같거든.”

리브가 나를 쳐다보았다. 표정관리를 하는 척 하고 있었지만 눈빛이 묘하게 흔들리는 걸 봐서 본인도 갈등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어딜 가나 조직은 대충 비슷하다. 내가 다니는 회사도 그랬으니까. 책임질 일이 생기면 아랫사람 하나 골라 뒤집어씌우거나 다른 부서 책임으로 한 뒤 대충 유야무야 묻어서 마무리하게 마련이지.

내가 보기에 리브는 정보부에서 아직 신입사원 단계였다. 입사 과정이 보통이 아니었을 텐데, 짤리고 싶지 않을걸?

“오르카 경이 뭐하는지 알려주는 건 별로 어렵지도 않잖아?”

나는 리브의 어깨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다.

“앞으로 잘 지내자? 난 도망 안 갈 테니까.”

청소도 해주고 밥도 주는 황궁에서 한 7년 정도 꿀 빨며 잘 살 거란다.

왠지 시선이 느껴져 고개를 돌리자 시그롯이 우릴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리브와 여자들끼리의 수다라도 떤 것처럼 까르르 웃으며 그를 놓아 주었다. 그러자 리브는 날 날카로운 시선으로 보다가 곧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돌아가면 말씀하시죠.”

나는 시녀 리브에게 하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찻주전자를 들고 저만치 가는 리브의 뒷모습을 보자 뒤늦게 등줄기로 소름이 올라왔다. 조금 전 목에 닿을 뻔했던 날붙이의 감각이 아직 생생하게 목 줄기에 남아 있었다.

‘아, 미친. 진짜 여기서 죽이려고 들어? 상도덕도 없네.’

소설 본편에 나오는 리브는 원래 폭력적인 수단을 거의 쓰지 않는다. 하지만 보아하니 7년 전의 스무 살 리브는 미래와 좀 다른 모양이었다.

하나뿐인 목숨인데 앞으론 조심 좀 해야지. 여기서 죽었다간 가족한테 정말 면목이 없다.

불행의 신이 되어 소설 속 악당 캐릭터의 불행플래그 100개를 부숴야 한다.

"그러니까 전하, 우선 토르체 영애와 약혼부터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지? 난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어."

"굳이 결혼 안 하셔도 토르체 가문의 이름만 이용한 뒤 내년 봄쯤에 파혼으로 내치면 되죠."

"...그거 누가 봐도 영애한테 못할 짓 아닌가?"

시그롯이 어쩜 그리 사악한 생각을 할 수 있냐는 눈빛으로 날 쳐다보았다.

왜, 뭐, 왜 그렇게 보는데. 네가 원작에서 했던 짓이잖아?

네가 1화 시점에서 원작여주를 잔인하게 차줘야 걔가 가출해서 원작남주를 만난다니까?

리브는 방에 돌아오자마자 본론부터 말했다.

“당신을 죽일 생각 없습니다.”

“뭘 믿고?”

“당신 말대로 당신 하나 없애고 끝낼 게 아니라 배후를 알아내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내 말이 먹혀들어간 모양이었다. 나는 거기서 바로 좋아하지 않고 진지한 표정을 지어 주었다. 마치 배후가 진짜로 있는 것처럼 말이다. 물론 내 배후는 원작이지만.

“원하시는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대신 제 청을 들어주십시오.”

“내 정보를 알아내는 게 아니라?”

“당신이 말하는 당신 정보를 어떻게 믿습니까? 제가 알아서 알아낼 테니 어딜 가든 저를 항상 동행시켜 주세요.”

“잘 때 침실까지 들어올 거야?”

“그 때는 문 밖에 있겠습니다.”

남자라서 다행이군. 적어도 밤에 침대에 누워 아리와 상의하는 건 문제없을 것 같다.

어쨌든 리브는 그렇게 말했지만 당연히도 난 리브를 완전히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원래 계획도 겸해 될 수 있는 한 자주 시그롯에게 찾아가 그와 친해 두기로 했다.

싫든 좋든 시그롯과 함께 있어야 하는 이상 그와 나는 운명공동체였다. 이 황궁 안에서 시그롯의 입지가 높아져야 그가 호의를 가지고 있는 나도 안전을 보장받기 쉬울 테니까. 원작의 시그롯은 악행과 공포로 복종을 얻어내 자신의 입지를 얻어냈지만, 그가 흑마법사와 접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그를 원작대로 가게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라도 시그롯을 챙겨줘야겠다는 생각이 약간 있었다.

“앞으로 식사 혼자 할 땐 나하고 먹자.”

아침부터 방에 찾아와 말하는 내게 시그롯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냥 내가 성에 혼자 있으니까 너무 심심해서 그래. 난 여기 사람도 아니잖아.”

“아, 그런 거라면 내가 매일 시간을 내어….”

“그럴 필요 없어. 누구랑 약속 있을 땐 안 불러도 돼. 그냥 너 혼자 먹을 때만 연락하면 언제든 갈게.”

시그롯이 머뭇거리기 시작했다. 이럴 땐 한 번 밀어볼까….

“혹시 내가 너한테 뭘 캐려고 이러는 것 같아서 그래?”

“그런 뜻은 아니었다.”

“중요한 얘기는 안 하면 되지. 그 정도는 구분할 수 있잖아?”

보아하니 타락하기 전의 시그롯은 예의와 명분을 중요시하는 말 그대로의 ‘왕자님’이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타락하고 난 뒤에 했던 용의주도한 행동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냥 순진하지는 않을 터였다.

나는 시그롯이 나를 적일지 자기편일지 가늠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걸 내버려 두었다. 그런 건 말보다 직접 보여주는 편이 더 나았다.

그 날부터 시그롯과 함께 밥을 먹기 시작했다. 자고로 친구는 밥 친구부터 시작해야 제격이었다. 하루 세 끼를 할 필요 없이 그냥 점심 자주, 가끔 저녁, 그런 사이클로 나는 시그롯과 만났다.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내가 그를 만나러 들락거린다는 게 중요했다. 황궁에는 금세 시그롯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사이비 성직자를 데려와 어울린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 중에 지저분한 소문도 더러 섞여 있었지만 그 정도는 감수해야 했다.

‘시그롯의 평판이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폐위니 뭐니 하는 마당에 더 떨어질 평판이 어디 있겠어? 지금이 최악인걸.’

내가 그와 함께 있는 게 당연해져야 했다. 당연해져서, 익숙해져서 대수롭지 않은 일상이 될 만큼. 그래야 내가 시그롯의 최측근으로 인식될 수 있었다. 주변에게도, 시그롯 본인에게도.

“오늘 오전 수업은 빼면 안 돼?”

예를 들어 밥 먹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말을 해도 될 만큼.

“며칠 전에 근위병들이 하는 걸 보고 나도 하고 싶어서 모리스 세트를 주문했는데, 너 말고 같이 할 사람이 없어. 리브는 시녀라서 안 놀아주고.”

모리스는 최근 여기에서 유행하는 오목과 비슷한 보드게임 중 하나였다. 가로세로대각선으로 줄이 그려진 네모판 위의 점에 흰 돌과 검은 돌을 번갈아 두고, 자신의 돌을 세 개 이으면 상대방의 돌을 빼앗을 수 있는 방식이었다.

사실은 규칙을 익히려고 리브와 몇 번 해 본 게임이라 리브가 억울하다는 시선을 보내왔지만 나는 섣불리 입 털지 말라고 그를 노려봐 주었다.

“평민들의 놀이 아니냐? 나는 카드나 체스 말고는 해본 적이 없다.”

“황제가 될 거면 평민들이 뭘 좋아하는지도 알아야지.”

시그롯이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나는 하는 김에 오르카 경 없는 검술 자습도 빼먹으라고 시그롯을 살살 꼬셔 하루 종일 그와 모리스를 하고 다음 날에도 했다. 그러고 나서 또 며칠 뒤에는 그의 방에서 차를 마시다가 식은 차를 바닥에 쏟으며 말했다.

“방이 왜 이렇게 추워? 차가 순식간에 식잖아. 불을 제대로 떼고 있는 거 맞아?”

한창 추울 겨울철이었다. 이 세계의 겨울은 춥기도 엄청 추워서 나는 성에서 지급받은 근위병용 겨울코트를 내 한 몸처럼 여기며 싸매고 다니는 중이었다.

시그롯의 방에 들락거리면서 알게 된 사실 중 하나는 황제의 홀대가 고용인들한테도 전염병처럼 미묘하게 스며들어 있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옆에서 한참을 지켜봐야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두 번째는 황태자인 시그롯과 어울리는 또래 귀족 자제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었다. 정확히는 지난 신수 계약식 이후로 귀족회에 소속된 가문들이 폐위될 황태자와 거리를 두기 위해 교류를 뜸하게 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황족을 모시는 시종들은 대개 후계자가 아닌 귀족 자제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결국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어져 있는 셈이다.

“듣자하니 폴린스 님이 성에 머물 때는 방이 불바다로 느껴질 정도로 뜨겁다던데, 태자궁에 배정된 예산이 불도 못 뗄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 그 돈이 다 어디로 샜을까?”

“오해이십니다. 불은 다른 방과 다름없이 떼고 있으며….”

“다른 방과 다름없이? 황태자 전하의 방인데 다른 방보다 더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닌가? 전하께서 감기라도 걸리시면 어쩌려고?”

나는 일부러 더 말꼬리를 잡고 짜증을 내며 시종들을 갈구기 시작했다.

“어느 가문 출신인지는 몰라도 전하께 이 따위로 구는 걸 폐하께서 용납하실지 모르겠네.”

“죄, 죄송합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물론 폐하는 용납한다. 정확히는 묵인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시종들이 결코 시그롯 앞에서 입 밖으로 내어 말하지는 못할 것이다. 폐하가 대단하지, 니네들이 대단해?

이런 건 귀찮고 시끄럽게 만들어야 했다. 고객센터 클레임, 불량제품 환불, 벌레 나온 햄버거 SNS에 효수하기 등등 원래 세계에 살 적에도 키보드만 손에 들면 진상 관심종자가 되던 가락에서 나온 경험이었다.

한참 시종들을 못살게 굴던 나는 문득 한 가지 잊었다는 걸 깨닫고 고개를 돌렸다.

찻잔을 들고 있던 시그롯이 입을 벌린 채 날 쳐다보고 있었다.

아차.

얘 혹시 여기서 ‘나는 괜찮다.’거나 ‘너무 심하게 말한다.’ 라고 착한 소리해서 초 치는 거 아닐까? 미리 그러지 말라고 언질이라도 할 걸. 나는 긴장된 얼굴로 시그롯과 마주보았다. 추위 때문인지 오한 때문인지는 몰라도 코트를 입고 있던 어깨가 슬쩍 떨렸다.

시그롯은 그대로 찻잔을 내려놓고 일어서서 내게 다가왔다.

응? 가만. 입고 있던 망토는 왜 벗어?

“황태자궁의 예산 증강안을 작성해서 서류를 올리도록. 그리고….”

두꺼운 털 망토가 어깨에 둘러졌다.

“내일 황실 재단사를 불러라. 민하의 겨울옷들을 새로 맞춰야겠구나.”

섬세한 손길이 망토를 여미고 끈까지 꼼꼼히 묶어 준 뒤에 떨어졌다. 나는 그대로 커다란 망토 안에 눈사람처럼 묻혔다.

그러고 나서 시그롯은 언제 일어섰냐는 듯이 다시 자리에 앉았다. 나와 지켜보던 시종들만이 어안이 벙벙한 얼굴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제국의 황태자가 두 달 만에 웬 수상한 여자에게 빠져 사치스럽고 게을러지기 시작했다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황궁에 아무도 없었다. 특히 ‘그 여자’인 내가 새 여우 털 케이프를 입고 다니자 소문은 더욱 신빙성을 얻기 시작한 모양이었다.

‘오오, 진짜 판타지 같은 옷이네. 좀 코스프레하는 기분.’

재질도 좋았고 따뜻하면서 가볍기까지 하다. 현대에서 그냥 사려고 해도 몇 백 만원은 가볍게 넘어갈 것 같은 옷이었다. 거기에 가장자리에 있는 자수는… 이 시대에 만들려면 직접 한 땀 한 땀 놔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니 정말 가격을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나는 시그롯의 개인 연무장으로 이어지는 복도에 서서 핸드폰으로 스케줄러를 체크하고 있었다. 최근에 그의 하루 수업 시간을 6시간으로 줄여놨더니 시그롯의 교사들이 나를 도둑고양이 보듯 대하는 바람에 시종들까지 지나가다 이 쪽을 한 번씩 흘끔거리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핸드폰 액정으로 눈을 돌렸다.

“과로사, 과로사 미리 막아야 해.”

아리의 말에 의하면 백 개의 플래그는 급작스러운 사고 같은 종류를 제외하면 대부분 과거에서부터 인과가 쌓여 결과로 드러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니 무슨 댓글이라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경 쓰일 수밖에 없었다.

이 소설 최대 악역이기까지 했던 멀쩡한 남자를 깨지는 유리구슬처럼 다루고 있는 기분도 들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다고.

나는 스케줄러를 닫은 뒤 연무장으로 들어가기 전 주위를 둘러보다가 이 쪽으로 걸어오는 은백색 갑주의 기사와 눈이 마주쳤다.

‘은백색 갑주에 하늘색 망토. 백기사단장 오르카 경이 확실해.’

리브가 가르쳐 준 인상착의와 똑같았다.

황태자가 학업에 소홀하다는 말이 퍼지면 문책은 기본적으로 스승에게 돌아간다.

시그롯이 스승 없이도 알아서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기에 보이지 않았던 구멍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 오르카 경도 더 이상 방치하고만 있지 못할 터였다.

‘어그로는 이렇게 끄는 거지.’

나는 기다리던 사람을 향해 다가가 고개를 숙이려고 했다.

하지만 그것보다 연무장에서 시그롯이 나오는 게 먼저였다.

“민하! 왜 아직도 여기에… 오르카 경.”

코트를 걸친 훈련복 차림으로 걸어오던 시그롯이 오르카 경의 모습을 보고 멈춰섰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황태자 전하.”

오르카 경이 쓰고 있던 투구를 벗었다. 주름진 이마와 고집스러운 턱선 아래로 긴 백발이 그녀의 어깨 위로 흘러내렸다.

그러더니 내 쪽을 돌아보며 말했다.

“최근 황태자 전하께 불온한 버릇을 들이고 있다는 게 자네인가.”

“처음 뵙겠습니다, 오르카 후작님. 서민하라고 합니다.”

나는 입고 있던 치맛자락을 들며 오르카 경에게 인사했다.

여기 와서 내 한국식 이름을 어떻게 소개해야 하나 고민도 했었지만 굳이 여기 식으로 바꾼다던지, ‘민하 서’라고 서양식으로 부른다던지 하는 것도 뭔가 이상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외국인인 양 원래대로 내 이름을 소개하고 있었다.

“백기사단의 단장님이신 데다 전하의 검술 스승님이시라 들어서 꼭 뵙고 싶었는데, 설마 두 달이나 지나야 인사드리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전하의 곁에 여우같은 자가 있다는 이야기는 익히 들었지. 듣자하니 성실하신 전하를 유혹하여 사특한 수작을 부리고 있다던데.”

오르카 경이 나와 시그롯을 번갈아 보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듯 눈썹을 찌푸렸다. 기사단장이라고 들어서 나도 모르게 우락부락한 이미지를 생각했던 것과 달리 그녀는 호리호리한 체형의 노년 기사였다.

하지만 그녀는 내가 아는 소설 속의 백기사단장 오르카 경과 다른 사람이다.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굳이 리브의 힘을 빌려야 했지.’

두 개의 황실기사단 중 하나인 백기사단. 원작에는 여기 있는 오르카 경의 아들이자 수제자인 다른 오르카 경이 기사단장으로 등장한다.

원작의 오르카 경의 어머니에 대한 묘사는 한 줄로 지나간다.

"“풍요의 신수가 습격당했을 때 신수를 지키다 전사하셨다.”"

이 말은 원작 후반부에 신수를 살해한 것이 마수안을 사용한 시그롯이라는 반전이 밝혀지며, 이제껏 주인공들의 적이었던 아들 오르카 경이 어머니의 원수가 시그롯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장치로 작용한다. 그걸 계기로 아들 오르카 경은 모친 오르카 경의 원수를 갚기 위해 백기사단을 움직여 진짜 황태자 칼릭스를 황위에 올리는 데 협조하게 된다.

즉 여기 있는 모친 오르카 경은 원작 시작 당시에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 폴린스처럼. 그래서 내가 그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없었던 거였다.

“전하,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실력이 늘기 위해선 어느 때고 첫 마음가짐을 잊지 말고 연습에 매진하셔야 한다고.”

“그래서 알아서도 척척 잘 하니까 찾아와보지도 않으셨나요?”

“칼을 쥐어본 적도 없는 외부인이 내 수업방식에 간섭하는 건가?”

“밖에서 제자들 육성에는 아주 열을 올리고 계시다던데요. 올 연말에 열릴 검술시합에서 자랑스러운 백기사단이 흑기사단에게 질까봐 아~주 신경 쓰고 계신 모양….”

그 순간 오르카 경의 건틀렛을 낀 손이 내 케이프의 목 부분을 우악스럽게 틀어쥐었다.

“고작 전하의 환심을 산 애완동물 주제에 뚫린 입이라고 아주 제멋대로 지껄이는군.”

“그러는 오르카 경은 스승이라는 그 좋은 포지션으로 이제껏 전하 환심을 살 생각도 안 하고 뭐하셨어요?”

“아무래도 이 여우는 가죽을 벗겨 목도리로 만드는 것 말곤 쓸모가 없겠어.”

“여우 털은 따뜻하기라도 하지만 후작님 칼은 충성심을 증명하는 데 영 쓸모가 없으니 그냥 반납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오르카 경의 눈빛이 날카로워지자 그녀의 등 뒤에 서 있던 리브가 날 향해 열심히 고개를 흔들었다. 아차, 여기서 너무 도발하면 안 되는데? 너는 입으로 나대지 말고 더러운 성격은 글자로나 쏟아내라던 학창시절 친구의 충고가 뒤늦게 생각났다.

혹시 날 때릴 건가? 건틀렛 끼고? 아니지? 판사님, 저는 연약한 대한민국의 소시민이며 결코 노인공격을 하지 않았고 이 말은 제 폰의 보이스웨어가 했습니다.

“두 사람 다 그만.”

한참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시그롯이 다가와 오르카 경의 팔 위에 손을 올렸다.

“오르카 경, 아니… 스승님, 민하는 제게 사특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동안의 방만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면 저에게 해주십시오.”

“전하.”

시그롯의 녹색 눈동자가 오르카 경에게로 향했다. 순간 오르카 경의 눈이 기묘한 빛을 담았다. 잘못 봤나? 아주 놀란 것 같은 표정이었는데….

“오랜만에 스승님께서 오셨으니 훈련이 즐거울 것 같습니다. 어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오르카 경의 손이 내게서 떨어지자, 시그롯은 천사 같은 미소를 짓고는 먼저 연무장 안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러나 오르카 경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팔짱을 낀 채로 생각에 잠겨 있었다.

안 들어가냐고 물을 생각이었던 내 귀에 그녀가 시그롯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하는 혼잣말이 들렸다.

“…어떻게 없어졌지?”

응? 뭐가 없어져?

나는 무심코 그녀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오르카 경은 내가 자기 말을 들었다는 걸 눈치 채지 못한 모양이었다.

그녀는 그대로 날 두고 몸을 홱 돌려 성큼성큼 연무장 안으로 향했다.

오르카 경은 그날 오후 내내 시그롯의 검술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한 뒤 함께 저녁식사까지 했다. 검을 전혀 볼 줄 모르는 내가 봐선 잘하는 건지 아닌 건지 알 수가 없었지만 적어도 건성으로 한 게 아니었던 건 확실했다.

“내일도 오실 거죠?”

나는 그녀가 돌아갈 때 생글생글 웃으며 배웅했다.

“오기 힘드시면 제가 마중 나갈게요.”

“필요 없어.”

오르카 경은 날 향해 표정을 팍 구겨 보이고는 돌아갔다. 이거 아무래도 미운털이 단단히 박힌 모양이었다.

뭐 미울 짓을 하기는 했지. 요는 시그롯을 챙겨주게만 하면 되는 거니까.

“민하.”

저녁도 먹었겠다, 슬슬 방으로 돌아가려는 나를 시그롯이 붙잡았다.

“응?”

“밤에 혹시 일정이 있느냐?”

“으음, 씻고 자야지?”

자기 전에 아리한테 잔소리를 듣는다는 이야기까지는 안 해도 되겠지.

“왜?”

“그게, 너와….”

시그롯이 내 시선을 슬쩍 피했다. 꼭 처음으로 나쁜 짓을 시도하는 모범생처럼 양 뺨이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아니, 자기 전에 모리스가 하고 싶다.”

어머, 어머, 웬일이야.

“그래!”

나는 시그롯의 마음이 바뀔까 잽싸게 그에게 타락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러자 시그롯이 눈치를 보다가 내 손을 쥐었다. 하얀 밀가루 같은 얼굴과 달리 굳은살로 딱딱한 손이 잘 안 어울리는 게 왠지 모르게 신기했다.

시그롯의 방은 한증막이 따로 없었다. 창밖은 곧 연말이라 하얀 눈발이 날리고 있는데 벽난로의 불길은 캠프파이어 수준으로 사나워서 무서운 나머지 좀 떨어져 있어야 할 판이었다.

‘지난번에 한 번 뒤집어엎은 보람이 있군.’

계속 케이프를 입고 있자니 너무 더워서 나는 입구의 시녀에게 겉옷을 벗어 주었다. 케이프가 워낙 따뜻해서 안쪽은 두껍게 챙겨 입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금세 간단한 드레스만 입은 차림이 되었다.

‘조금만 두껍게 입으려면 껍데기를 씌웠다 벗겼다 하는 수준으로 해야 해서 너무 귀찮단 말이지.’

드레스를 일상복으로 입으면 처음에는 좋을 줄 알았지. 하지만 이 곳에서는 옷 갈아입는 데 시녀들의 도움이 필수였다. 천을 두르고 리본을 묶고 고래수염으로 모양을 잡은 속치마를 둘러 치마를 풍성하게 해야 하고, 옷 하나 입는 것만도 아주 전쟁이 따로 없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내 방에 배치된 시녀들 중에서 여성복 갈아입히기를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잘 하는 사람은 리브였다. 처음에는 옷 입을 때 얼씬도 하지 말라고 내쫓았지만, 나중에는 너무 귀찮았기 때문에 그냥 슈미즈만 한 벌 입고 나와 나머지를 리브의 손에 맡기는 게 일상처럼 되었다.

“춥지 않으냐? 옷이….”

“아, 오늘은 원래 케이프를 안 벗을 것 같아서 파니에를 안 입었어. 실제론 별로 안 추워.”

시그롯이 이 쪽을 보며 옷차림을 걱정했다. 내 옷이 풍성하지 않아서 아무래도 추워 보였나 보다. 나는 시그롯을 안심시킨 뒤 황태자궁 소파 위에 털썩 앉았다. 부풀리지 않은 드레스 자락이 다리 선을 따라 무릎을 타고 미끄러졌다.

나는 시녀가 우리 앞에 모리스 게임판과 말을 놓는 걸 구경하다가 문득 머리카락을 만졌다.

‘이제 몇 달 되었을 텐데, 통 안 자라네.’

아리가 말했던 노화방지의 버프가 정말이라면 난 여기서 나이를 안 먹는 건가?

그럼 이 묶기도 풀기도 애매모호한 머리길이도 여기선 영영 안 자라는 건가? 그런 끔찍한 일만은 정말 사양하고 싶다. 차라리 기르고 싶다고! 아냐, 자를까? 그런데 머리카락은 계속 빠지잖아? 빠지기만 하고 안 자라면… 끝은 탈모?

무시무시한 생각을 하며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던 나는 고개를 들었다가 깜짝 놀랐다.

시그롯이 날 멍한 얼굴로 보고 있었다.

“아….”

아차차, 너무 딴 생각 했나? 남 보는 앞에서 머리나 만지는 건 예의가 아니지.

“예의에 좀 어긋났지? 미안.”

“아, 아니다!”

황급히 고개를 젓는 시그롯의 얼굴이 새빨갰다. 그러자 덩달아 나도 좀 민망해져서 헛기침을 했다. 아무리 그래도 황궁이고 황태자 전하 앞인데 너무 프리하게 나대는 건 삼가야지.

우리는 한동안 앉아서 과자를 먹으며 모리스를 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일 뒤로 이상하게 정적이 찾아왔기 때문에 돌 옮기는 소리만 몇 십 분 동안 선명했다.

뭐라도, 뭐라도 말해야 할 것 같은데… 뭐 없나? 여덟 살 연하의 남자 청소년과 공유할 만한 주제!

“있잖아.”

나는 용기를 끌어내어 시그롯에게 말을 걸었다.

“오르카 경이 하신 오늘 수업 괜찮았어?”

시그롯이 고개를 들었다.

“난 그런 거 볼 줄 몰라서… 백기사단장이면 그래도 이 나라에선 아주 실력 있는 분이지? 그런데 널 방치하다니 스승으로서 별로 좋은 사람 같진 않아.”

“오르카 경은 훌륭하신 분이다. 제자도 많이 양성하셨고, 오르카 가문은 4대 전부터 백기사단장을 역임해 온 전통 있는 가문이기도 해.”

하긴 원작의 아들 오르카 경 쪽도 대단한 기사라고 묘사되기는 했었다. 주인공들의 적으로 나올 때가 절반 이상이라 난 별로 안 좋아하는 캐릭터였지만.

“오르카 가문이 대대로 기사단장을 지내온 건 특수한 재능이 있기 때문이다. 오르카 가문 출신으로 검의 극의에 달한 자는 사람의 오염된 오러를 느낄 수 있다고 하더군.”

“오러?”

판타지 소설에서 많이 본 듯한 단어가 튀어나왔다.

오러라는 단어를 원작에서 본 적이 있기는 했다. 아마 당시의 백기사단장이던 아들 오르카 경이 그런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적이면서도 주인공들을 이해하는 인물로 나왔던 걸로 기억한다.

다른 소설에서는 무협지 안의 검기처럼 쓰이는 말이지만 <백작영애와 용병 황자> 안의 오러는 사람의 영혼을 뜻했다.

덧붙여 말하면 원작에서 아들 오르카 경이 말하던 시그롯의 오러는 더할 나위 없이 시커먼 색으로 오염되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충의가 강한 사람이었기에 시그롯이 어머니의 원수라는 걸 알기 전까지 백기사단장으로서 사악한 차기 황제에게 충성했었다.

“오르카 가문의 사람들은 무기를 든 자를 보았을 때, 그 자가 어떤 식으로 그것을 쓰게 될지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사람을 죽인다거나 그런 거?”

“그래. 그래서 오로지 실력만을 보는 흑기사단과는 달리 백기사단은 단원 심사 기준에 오러를 넣는다.”

“그 오러라는 게 바뀌거나 할 순 없는 거야?”

“글쎄, 나는 그걸 느낄 수 없어서 잘 모르겠군.”

혹시 오르카 경은 시그롯에게서 오염된 오러를 본 게 아닐까?

왠지 모르게 억울한 생각이 들어 물었다. 물론 원작의 시그롯은 엄청나게 나쁜 놈이긴 했지만, 첫 번째 저주를 막은 탓인지 몰라도 지금은 선량해 보이는데.

시그롯이 원작에 등장만 해도 욕할 때는 언제고, 사람 마음이 참 이렇게 간사하다.

‘오르카 경이 오러를 느낀다는 건 딱히 비밀도 아닐 텐데, 차라리 직접 물어볼까?’

아니다. 아무리 시그롯이 홀대받는 황태자라고 해도 그는 오르카 경의 윗사람이었다. 아들 오르카 경도 시그롯의 오러를 알면서도 모른 체 하고 충성했는데, 그 아들을 가르쳤을 모친 오르카 경이 다를 거란 생각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쑤시면 긁어 부스럼이 될지도 모르고.

“그래도 오늘은 스승님께서 오랜만에 검이 늘었다고 칭찬해주셨다.”

이것저것 궁리하고 있는 사이 맞은편에 앉은 시그롯이 말했다.

“역사학과 동대륙어 선생님께서도 최근 부쩍 더 만족스러워하신다. 시험 성적도 지난번보다 올랐지. 신기하구나. 요즘 학업을 게을리 하는 바람에 실력이 떨어졌을 거라고만 생각했었다.”

“책상머리 앞에만 앉아 있다고 다 공부가 되나? 숨 정도는 트고 살아야지.”

어릴 때 수능 앞두고 게임만 했던 내가 할 소린 아니지만. 그래도 그 때 한 반이던 공부 잘 하는 동급생들도 다 저들 나름의 스트레스 해소 창구 정도는 갖고 있었다. 거기다 수능은 그래도 버티면 끝이 있는 공부기도 했고.

“무작정 공부만 한다고 잘 되는 사람 별로 없어. 목표도 있고, 가끔 놀기도 하고, 그래야 더 잘 되지. 시간만 늘린다고 능사가 아니야.”

“그래도 내겐 별로 시간이 없으니 조금이라도 우수해져서 인정을 받아야 할 것 같았다. 여유를 부리는 건 사치라고만 여겨 왔는데….”

시그롯은 문득 거기까지 말하다가 머뭇거렸다.

“사실은 노력해도 소용이 없었지.”

그의 초록색 눈동자가 깊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그것 말고는 뭘 해야 좋을지 모르겠더구나.”

“…….”

“그래서 무척 신기하다.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버렸는데, 왜 성적이 더 좋아졌을까?”

흠, 왠지 고등학교 상담선생이 된 기분인걸.

“나도 공부를 열심히 한 게 아니라서 뭐라고 잘 말을 못하겠지만… 힘든 일은 힘든 만큼 뭔가 보상이 있어야 효율이 좋아지더라고.”

“보상?”

“친구한테 이기고 싶다거나, 대학에 가는 거라거나… 내 경우엔 거창한 목표는 너무 머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했었지.”

공부하는 것 자체가 체질에 맞고 좋아서 하는 애들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난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다. 그랬기에 시험을 앞두고 진짜 위기감을 느껴 공부할 때는 한 가지 법칙을 정했었다.

“오늘 하루 목표한 걸 전부 끝내면 집에 가서 맛있는 걸 먹는다.”

나는 접시 위의 과자를 오독오독 씹어 넘기며 말했다.

“의욕을 내기 위해 자기가 자기한테 주는 상 같은 거지. 너야 황태자니까 늘 맛있는 걸 먹을 테지만 그래도 뭐 있잖아? 먹을 게 아니라도 뭔가 재미있는….”

“모리스를 한다든지 말이냐?”

“그래, 그런 거.”

“너와 식사를 한다거나.”

“그래, 그런… 어?”

듣고 있자니 말이 좀 이상해서 고개를 들었다.

“아니, 그냥 밥 먹는 건 보상이라고 안 하지. 더 좋은 거 말이야.”

“나는 그게 좋다.”

“식사가? 하긴….”

하긴 밥 먹는 걸 지상 최대의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도 있지. 밥이라면 삼시세끼 먹을 거고, 보상으로 삼기에 나쁘지는 않았다.

적어도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정확히 어디인지도 모를 목표를 향해 부딪치기만 하는 것보다는 생산적이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그롯에게 가장 필요한 건 우선 제대로 살 생각이 드는 거야.’

차기 황제의 자질이 어쩌니 하는 문제는 일단 뒷전이었다. 내가 집에 돌아가기 위한 전제조건은 백 개의 저주가 지나갈 때까지 시그롯을 살려두는 거였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또 고립되거나 삶의 의지를 잃거나 해서 자결하지 않도록 케어하는 게 우선이었다.

‘폐위 문제는 두 번째로 두고 생각하자.’

일단 살아야 저주도 어떻게든 하지.

시그롯와 이야기하며 어느 정도 생각을 정리한 나는 너무 밤이 늦어지기 전에 방을 나섰다. 이미 시그롯과 나를 두고 온갖 소문이 횡행하는 성내였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빠져나갈 구석은 있어야 했다.

시그롯은 날 배웅하겠다며 중간까지 따라 나왔다. 그냥 두면 내 방까지 따라올 기세였기 때문에 나는 황궁 복도를 지나는 도중에 그를 떠밀다시피 해서 돌려 세웠다.

아쉬운 얼굴을 하고 있던 그가 다급히 나를 불렀다.

“민하!”

나는 등을 돌려 시그롯을 바라보았다.

그는 진지한 얼굴을 하고 서 있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달빛이 선명한 금발 위로 흰 반사광을 그렸다.

“내가 만일, 무엇으로든 만인의 인정을 받을만한 황태자가 된다면….”

무심코 그림 같은 미소년을 감상하고 있던 내게 그가 망설이다가 말했다.

“네가 나에게 보상을 주지 않겠느냐?”

그가 무슨 말을 한 건지 이해가 안 돼서 대답이 늦어졌다.

“보상?”

“그래.”

시그롯은 되묻는 나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네게 잘했다는 말을 듣고 싶다.”

응?

겨우 그게 보상이라고?

“그거야 지금이라도….”

“안 된다. 지금은 안 돼. 네가 말하고 싶어질 때 해다오.”

내가 말하려고 하자 시그롯이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별로 어려운 말도 아닌데 왜 저러는 거람? 어리둥절하게 있는 나와는 달리 시그롯은 양 뺨을 붉게 물들인 채로 어정쩡하게 서 있다가, 금세 뒤돌아서면서 이번에는 내팽개치듯이 말했다.

“잘 자라.”

그는 날 배웅해 주겠다며 느릿느릿 걸어 나오던 때와는 달리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가로질러 사라져 버렸다.

나는 ‘왜 저러는 건지 넌 아느냐.’ 하는 시선을 담아 내 곁에 따라오던 리브를 보았다. 그러나 아까부터 쭉 함께 하며 우릴 보고 있던 리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날 수행할 뿐이었다.

잘했다는 말을 듣고 싶다.

도대체 왜 그게 보상이 되는지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으나, 그 말은 내가 여기 와서 시그롯에게 처음으로 들은 그의 개인적인 소망이 되었다.

‘날 진짜 상담 선생님인 줄 아나?’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그라들 것 같으니 묻지 않는 게 좋겠다 싶었다.

어쨌든 황태자의 호의를 얻는다는 작전은 그런 대로 성공적이었다. 게다가 놀랍게도 시그롯의 성적은 그 후 몇 주 동안 정말로 상당히 좋아졌다.

예전처럼 하루 종일 절박한 사람처럼 매달리는 것도 아니었고, 그나마 줄어든 수업시간도 컨디션에 맞춰 적당히 뺄 때가 많았다.(이건 내가 과로사를 막기 위해 그렇게 시키는 탓도 있었다.)

나는 그 동안 리브를 달달 볶아 황태자에게 그나마 호의적인 귀족 가문 리스트를 추렸다. 대귀족회의에서 조금이나마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달라진 시그롯의 모습을 누구에게라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원작의 7년 전이라서 영 쉽지가 않네.’

내가 이 시대 사람들 사교하는 법을 알 리도 없고.

나는 현대에서 읽었던 수많은 로맨스 판타지 소설들을 떠올려 보았다. 어차피 완벽한 중세도 아니고 판타지 섞인 오리지널 세계관인데 귀족들도 대충 비슷하지 않을까? 막 드레스 입고 파티 열고 그러면 할 만 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럼 그걸 누가 해?

설마… 나?

나는 끔찍한 생각을 하려다 말고 고개를 저었다. 아무리 원작을 여러 번 읽었다고는 하나 나는 이 세계의 모든 걸 알 리 없는 다른 세계 사람이다. 현대에서 크루즈에 타고 재벌 가문 막내딸 흉내를 내라고 해도 힘들 판에 무슨.

나는 핸드폰의 스케줄러를 심각한 표정으로 노려보다가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다. 시그롯의 자세를 봐주고 있던 오르카 경이 팔짱을 끼고 앞에 서 있었다.

“성에서는 그 행동을 명상이라고들 하더군.”

“아.”

양손으로 네모난 걸 쥐고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집중하는 이거 말이죠.

“전하 수업이나 봐주시지, 이 쪽은 왜 오세요?”

“방해돼.”

“그럼 저 쪽으로 가 있을게요.”

“됐으니 거기 있어라.”

어쩌라는 거야? 노려보는 내 시선을 오르카 경은 가볍게 무시했다. 과연 전장에서 40년을 굴렀다는 노련함이었다.

그녀는 최근 시그롯의 검술 수업에 자주 참가하고 있었다. 이 때까지 그를 방치했던 게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대련은 거의 하지 않고 보통 자세를 잡아 주거나 잔소리를 하는 정도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시그롯은 퍽 기뻐하는 눈치였다.

수업만 잘 하면 나도 별 생각 안 했겠지만 문제는 오르카 경이 최근 날 자꾸 주목한다는 데 있었다.

내가 시그롯의 검술 수업에 나와 구경하는 건 반쯤 감시를 겸해서였다. 즉 오르카 경이 제대로 하는지 아닌지를 볼 뿐이지, 실제로 수업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었다는 소리다. 그런데도 오르카 경은 요즘 내게 의미 모를 시선을 자꾸 보내고 있었다. 가끔 시그롯과 번갈아서 볼 때도 있었다.

설마 나이와 성별의 벽을 넘어 내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닐까 고민하고 있던 차에 그녀가 입을 열었다.

“정말로 성직자인가?”

교회 티슈까지는 받은 적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그렇기도 하고….”

“확실히 말해라.”

“신과 가까운 사이기는 하죠.”

불행의 신 후보잖아? 딱히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

그러자 오르카 경은 다시 미간을 내천자로 찌푸리고 입을 다물었다. 자꾸 그렇게 부담스럽게 쳐다보실 거면 그냥 말을 하시면 안 될까요?

“너에 대해 좀 알아봤다. 듣자하니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이 황궁에 나타났다지. 그것도 죽어 가시던 전하 옆에 말이야.”

“으음….”

그걸 추궁하기 시작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데. 나는 내심 긴장한 얼굴로 오르카 경의 시선을 피했다. 저기요, 이제 와서 감옥에 또 가두시는 건 아니겠죠? 기왕 가두실 거면 지난번의 그 호텔 같던 1인실로 부탁합니다.

“어쩌면, 너는 혹시….”

혹시?

“…아니다.”

아, 왜 하다가 말아! 말을 하라고!

스스로 듣고 싶은 건지 아닌 건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열불이 나 있는 나를 향해 오르카 경은 태연한 얼굴로 말했다.

“내년 봄에 제국의 모든 귀족이 모이는 대귀족회의가 있다. 그 날 아마 황태자 전하의 폐위 문제가 공식적으로 결정되겠지.”

“…….”

“아마 그 날 전하는 폐위되실 거다. 하지만 만일 그 때까지 전하께서 한 가지라도 특출한 재능을 드러내신다면, 상황이 달라질지도 모르겠군.”

오르카 경의 은빛 눈동자가 날 꿰뚫을 것처럼 날카롭게 주시했다.

“만일 내가 내는 시험을 통과한다면, 백기사단장 오르카 후작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서 전하를 지지한다고 약속하지.”

시그롯을 지지해 주겠다고?

너무 솔깃해서 도리어 불안해지는 말이었다. 말의 방점이 ‘지지하겠다’가 아니라 ‘시험’에 찍혀 있는 것처럼 들리는 게 더욱 그랬다.

“시험이라면… 황태자 전하께 시험을 내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물론 전하께 내드리는 시험이지.”

그런데 왜 말하면서 자꾸 저를 쳐다보세요?

왠지 모를 불안함에 내가 그녀의 시선을 외면하고 있는 사이, 오르카 경은 아예 내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검을 쓸 줄 아는가?”

“아뇨, 전혀, 네버….”

“전하의 검에는 지금 미세한 약점이 하나 있네.”

오르카 경이 손가락으로 기사 한 명과 대련 중인 시그롯을 가리키며 말했다.

음, 내 눈엔 잘하는 것 같지만 교수님이 하는 말씀이니 비전공자는 그냥 닥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약점이라면 스승인 오르카 경이 알아서 고쳐 줄 테고.

“나는 그걸 전하께 가르쳐드리지 않을 생각이야.”

저기요?

“전하의 객관적인 실력은 당장 백기사단에 입단할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하시지만, 만일 그 약점을 고치지 못하면 결코 최고 수준이 되지는 못하실 걸세.”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닌 거 같지만 그런 문제가 보이면 오르카 후작님께서 개선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 나라의 황태자에게 최고의 검술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듣자하니 아까부터 계속 어이없는 이야기만 나오고 있었다.

“황태자의 신분 그대로 직접 검을 드셔야 할 정도라면 이미 국운이 기울어 의미가 없을 테고, 만일 폐위될 운명이라고 한다면 도리어 그 능력이 제국에 위협이 될 텐데. 어느 쪽이건 쓸모가 없지.”

“지금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황제 폐하께도 알려드리고 싶네요.”

“하고 싶다면 하게. 40년 가까이 폐하께 충성해 온 백기사단장인 나와, 두 달 전에 나타나 황태자 전하의 총애를 받는 여우 털, 자네 중 폐하께서 누구의 말을 더 신임하실지 나도 궁금해지는군.”

오르카 경이 눈을 가늘게 뜨며 미소를 지었다. 허참! 이 할머니 좀 봐!

“대귀족회의를 앞둔 봄에 황제 폐하께서 보실 결투 자리를 하나 만들어 주겠네. 거기서 내가 준비한 상대를 이기는 걸 시험으로 하지.”

“약점도 알려주지 않으시면서 다짜고짜 결투는 왜 시켜요?”

“그건 알아서 찾아내 고쳐야지.”

“자습으로 그게 되면 이 세상의 선생들은 다 실직자가 되겠네요!”

“일반적으로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걸 할 수 있어야 이 쪽도 제대로 확인을 할 수 있을 게 아닌가? 만일 전하의 폐위가 기각된다면 제국은 앞으로 신수라는 강력한 이점을 포기해야 하지. 대귀족회의에서 오르카 후작가의 이름을 걸기 위해선 내게도 그만한 확신이 필요해.”

뭘 확인해? 뭘 확신하는데? 아까부터 저 하고 싶은 말만 한 오르카 경이 앉은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마침 시그롯과 기사의 대련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행동은 꼭 타이밍이라도 맞춘 것처럼 자연스럽게 보였다.

그녀는 시그롯에게 다가가기 전 내 쪽을 돌아보며 말했다.

“단서를 주자면 전하의 약점은 정신적인 문제라네.”

“…….”

“그리고 전하의 상대는 기사 중에서 고르지 않을 생각일세.”

그렇게 말하고 난 오르카 경은 늠름한 걸음걸이로 내 시야에서 멀어졌다. 그녀의 높게 올려묶은 백발이 말꼬리처럼 살랑살랑 흔들리는 걸 보며 나는 방금 전에 들은 말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았다.

그래, 다 좋아. 다 좋다고. 시험하는 것도, 결투하는 것도 좋다 이거야.

그런데 왜 그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날 보면서 하는 건데?

아무래도 날 시그롯의 상담교사인 줄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시그롯 한 명만은 아닌 모양이다.

‘왜 오르카 경은 시그롯이 아니라 내게 그가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줬을까?’

나는 시그롯과 헤어진 뒤 방에 돌아와 생각에 잠겨 있었다. 혹시 거짓말인가? 아님 날 떠 보려는 수작? 하지만 고결하고 엄격한 기사 같은 이미지인 오르카 경이 가문까지 걸고 그런 말을 섣불리 내뱉을 것 같지는 않았다.

정신적인 문제라고 했었지. 그러면 그걸 시그롯에게 말해줬을 때 역효과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괜히 본인도 알지 못하는 약점을 신경 쓰다가 기껏 좋아지고 있는 컨디션을 망칠 수도 있었다.

그렇다고 내가 본다고 해서 없던 게 보일 리도 없고….

‘그럼 컨닝을 해야지.’

후후, 오르카 경. 네가 그래봤자 소설 속 캐릭터지.

나는 따뜻한 벽난로 앞 소파에 삐딱한 자세로 앉아 팔걸이에 한 쪽 다리를 올린 채로 귀에 이어폰을 꽂았다. 거기에 일부러 얇은 잠옷 드레스만 입고 그 위로 두꺼운 숄을 걸치고 있었다. 리브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아리.”

-민하 님, 좋은 저녁이에요.-

언제나처럼 고저 없는 보이스웨어의 인공적인 음성이 들렸다. 신수의 힘으로 늘 100%로 채워져 있는 배터리 모습도 익숙해진 지 이제 벌써 두 달 째였다.

‘언젠가 집에 돌아가면 충전하는 버릇을 잊어버리는 게 아닐까.’

뻘하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다.

“원작에서 ‘시그롯’과 ‘약점’으로 검색해 본 결과는 나왔어?”

-검색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리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액정 위로 검색 결과가 등장했다.

원래 <백작영애와 용병 황자>의 원작 소설이 연재되는 스위트페이지 앱은 검색 기능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건 내가 처음에 땄던 ‘좋아요’ 하나를 지불하고 아리와 거래해서 얻은 일종의 새 기능인 셈이었다.

‘앞으로 원작을 찾아봐야 할 일이 많을 테니 검색 기능은 필요해.’

내가 199화나 되는 원작의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기억하는 것도 아니니까.

나는 아리가 찾아 준 원작의 검색 결과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시 읽어 보았다. 솔직히 안티 팬도 팬이라고, 시그롯에 대해선 이미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르카 경이 말한 ‘약점’이 무엇인지 더 감이 안 오기도 했다.

‘아, 오랜만에 보네. 이 웃음소리….’

원작과 달리 이 곳에 있는 시그롯은 한 번도 ‘카하하핫!’이라고 웃은 적이 없었다. 그래선지 다시 보는 원작 속의 시그롯이 새삼 낯설었다.

여주인공 리리샤에게 집착하고, 신수에게 선택받은 남주인공 칼릭스를 증오하고, 흑마법사에게 받은 마수안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사람을 죽이면서도 죄책감 한 조각 보이지 않던 시그롯.

전에는 그냥 싫기만 했을 뿐이었는데, 새삼스레 원작을 다시 읽으니 복잡한 감정이 앞선다.

‘어라?’

착잡한 기분으로 글자를 읽어내리고 있던 내 눈에 특이한 문장이 눈에 띄었다.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 지문 중 하나였다.

" ‘신은 반드시 악에게 약점을 예비한다. 악은 항상 선보다 성실하기에.’ "

작중 멜프라우 제국의 유명한 속담으로 나오는 문구였다. 욕심이나 충동 같은 달콤한 유혹 탓에 쉽게 넘어가기 쉬운 악은 항상 선보다 발이 빠를 수밖에 없으며, 그렇기에 신은 선이 이길 수 있도록 악에게 약점을 남긴다는 뜻이었다.

쉽게 풀이하면 절망적이어도 활로는 꼭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아라, 뭐 이런 좋은 말에 가까웠다.

하지만….

‘오르카 경이 했던 말은 마치 시그롯에게 약점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들렸어.’

이 속담에는 사실 작중에서 말하는 다른 해석이 존재한다.

악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악에게 약점을 만들어 주라는 뜻.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에 비해 ‘선’ 역시 정당하고 올바른 방법만으로는 싸워 이기기 어렵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건 소설이라 그렇지, 일반적인 상황에서 선악을 어떻게 명백히 가를 수 있겠는가? 그러니 다시 말해 이기고 싶으면 상대를 분석해서 약점을 잡거나, 잡을 약점이 없으면 만들어 주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었다.

‘가만, 그러면….’

굳이 뭔지도 모를 시그롯의 약점을 찾아 극복하기보다 결투 상대가 누군지 알아내는 게 빠르지 않나?

나는 급히 소파에서 일어나려다 불량한 자세 탓에 주르륵 바닥으로 미끄러졌다.

쿵!

소파가 한 번 기울어졌다가 원상태로 돌아오며 큰 소리를 내자, 문이 열리고 리브가 뛰어 들어왔다.

“무슨 일이십니까?”

“아오, 머리야… 아, 마침 잘 왔어.”

때마침 리브를 찾으려던 참이었다.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는 나를 본 리브가 시선을 피하며 숄을 펼쳐 내 상반신을 푸대자루처럼 단단히 싸맸다.

“기사가 아니고 오르카 경이 시그롯의 결투 상대로 추천할 만한 실력을 갖춘 사람.”

“저를 황궁 인명부로 보는 것도 적당히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내 정보 하나 줄게. 나 설탕 없는 커피 좋아해.”

“성의 없는 생색은 그만 내시죠.”

“아니, 앞으로 그렇게 타 오라고.”

“하아….”

리브가 깊게 한숨을 쉰 뒤 내 몸을 번쩍 들어 다시 소파 위에 올려놓았다.

“어디 가?”

“커피 타러요.”

“질문에 대답부터 해줘.”

나는 자리를 피하려는 리브의 소매를 붙들고 멈춰세웠다.

“황족은 보통 기사랑 결투를 안 하잖아. 신분상 기사가 황족에게 져 줘야 하니까. 이 경우엔 기사가 아니라지만 어쨌든 비슷하지 않아?”

“그렇죠.”

“그런데 이기는 게 시험이라면 저 쪽에도 시그롯을 이기려 들 만한 동기가 있어야 해. 그래야 쉽게 져주지 않을 테니까. 어디 그런 사람 없을까?”

“같은 황족이라면 가능할 겁니다.”

“폴린스?”

가능성 있는 이야기였다. 폴린스라면 마침 시그롯이 폐위되었을 경우의 유력 황태자 후보기도 했으니까.

원작에서는 죽어 있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었는데. 생각보다 변수가 꽤….

“폴린스 전하는 아닙니다. 불경한 말이지만 검술 실력이 형편없으시니까요.”

그 때 리브가 소매에서 내 손을 쳐낸 뒤 벽난로 앞에 기대서며 말했다.

“오르카 단장의 막내아들이 사고를 치는 바람에 모친의 분노를 사 아직 백기사단에 입단하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정말?”

이건 또 모르던 정보였다. 나는 당장 소파 위에서 정자세로 바꿔 앉았다.

“지금쯤 엄청나게 기사가 되고 싶어하고 있겠죠.”

시그롯은 수업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다. 맑은 겨울바람이 그의 선명한 금발을 이마 뒤로 쓸어 넘겼다.

요전에 해 갔던 과제가 매우 마음에 든다고 선생이 칭찬하며 놓아주지 않는 탓에 수업이 끝나는 게 생각보다 늦어지고 말았다.

그는 걸음을 서둘렀다. 곧 식사 시간이었다.

민하가 기다릴 텐데.

“민하에게 사람을 보내라. 수업이 끝났으니 조금 뒤에 보자고.”

“전하, 오늘은 제리온 백작가와 클라이스 자작가 영식들과의 오찬이 있으십니다.”

“아.”

시그롯의 발이 뚝 멎었다.

“민하에게는?”

“오전에 미리 전해 드렸습니다. 마침 민하 님도 오늘은 바쁘다고 하시더군요.”

“…그래.”

황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생기가 돌던 얼굴에 수심이 내려앉았다.

최근 혼자 식사를 하다가 민하와 함께 밥을 먹게 된 뒤로 다른 사람과 어울려 보는 게 매우 오랜만이었다. 특히 귀족들과 사적인 교류가 뜸해진지는 이제 몇 년 단위가 될 정도기에 다시 평범한 사교에 익숙해지기가 영 쉽지 않았다.

‘파티나 살롱 정도는 몇 번 나갔었지만.’

황태자가 파티에 참가할 때는 반드시 여성 파트너가 동행한다. 원래대로라면 황태자의 파트너 신청은 귀족 영애들에게 있어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었다.

하지만 언제부터가 시그롯의 파트너 신청을 달가워하는 귀족 영애는 아무도 없었다.

그가 황제가 되지 못할 거라는 소문이 돈 탓이었다.

물론 폐태자가 된다고 해도 시그롯은 여전히 황족이었다. 하지만 그를 대신하여 누가 다음 황태자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시그롯에게 줄을 대는 건 훗날 화를 부를 수도 있는 선택이었다.

그래서 시그롯에게는 아직 약혼녀조차 없었다. 그와 선뜻 약혼하겠다고 나설만한 여자는 하위 가문에서 골라야 했는데, 그러기에는 그가 가진 정치적 기반이 너무 약했다.

시그롯은 소박하지 않았다. 욕심이 없지도 않았다. 가끔 강렬하게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었으나 그는 열여섯 해를 황태자로 살아왔다. 결혼을 한다고 해도 그를 황제로 만들어줄 수 있는 여자와 하고 싶었다.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다르다.

시그롯은 고개를 숙이고 이마를 짚었다. 이상하게 아까부터 기분이 나빴다.

‘뭐 때문에 바쁠까? 물어보면 대답해 줄까?’

황궁은 혼자 돌아다니기 위험할 텐데. 그녀를 안 좋게 보는 시선들이 많다.

‘왜 나와 함께 있어주는 걸까?’

시그롯은 남들이 민하를 흑마법사나 사교의 제자라도 되는 양 떠드는 걸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었다. 그도 그럴 듯이 아무 전조 없이 갑자기 나타나, 아무 대가 없이 그에게 잘해준다는 사실 자체가 이상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걸지도 모른다.

아니면 돈이나 사치스러운 생활을 원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를 정말로 유혹하려고 하는 걸지도….

‘아냐, 도대체 무슨 생각을.’

시그롯의 얼굴이 뜨거워졌다. 왜 불쾌해야 하는 부분에서 달아오르는지 스스로도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어깨 위로 살랑거리는 민하의 머리카락과 파니에를 입지 않은 드레스 천 아래로 고스란히 드러나는 무릎의 실루엣 같은 걸 떠올리던 그는 불에 데기라도 한 사람처럼 서둘러 머리를 저으며 생각을 털어냈다.

‘몇 살일까…?’

자신보다 좀 많아 보이기는 했다. 열여덟? 열아홉? 키만 봐선 열서너 살 정도 같았지만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 보이진 않았으니까….

물어봐도 되나?

아, 또 이 모양이다. 요즘 조금이라도 정신을 놓으면 전부 민하 생각뿐이었다.

같이 밥을 먹자고 하는 것도 민하고, 틈만 나면 그를 찾아오는 것도 민하고, 볼 때마다 오늘은 무슨 일 없었냐고 캐묻는 것도 민하인데 왜 하루 종일 그녀를 생각하는 건 자신일까?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상태로도 일정은 그럭저럭 순조로웠다. 시그롯은 평소처럼 공부했고, 평소처럼 사람을 만났으며 평소처럼 민하가 자라고 한 시간에 침대에 누웠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다.

사흘째 민하는 그를 찾아오지 않았다.

“일정을 전부 취소해라.”

민하를 만나지 못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오후, 시그롯은 이후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민하의 방으로 찾아갔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다면 반드시 그의 귀로 소식이 들려와야 했을 터인데, 이토록 아무 소식이 없는 게 이상했던 것이다.

듀렌 오르카. 스물한 살. 오르카 후작의 막내아들.

실력은 출중한 편.

특징은 노는 거 좋아함. 선술집 단골손님. 주량 중간수준.

취향은 긴 생머리의 청순한 여자.

약점은….

“없으면 만들어 줘야지.”

나는 지금 듀렌 오르카가 자주 찾는다는 단골 선술집에서 사흘째 시간을 죽이는 중이었다. 황궁에서 제공하는 옷은 평범한 옷도 재질이 좋아서 티가 났기 때문에 우리는 일부러 평민의 옷을 구해 입고 있었다.

오늘은 마을 처녀 같은 복장을 한 리브가 맞은편에 앉아 나를 한심하다는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냥 오르카 후작저에 직접 찾아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럼 안 되지. 내가 누군지 밝혀야 하잖아. 오르카 경 귀에도 들어갈 테고.”

개인정보는 되도록 숨겨야 한다. 비록 원래 세계에선 중국에 20원짜리로 돌아다니는 싸구려지만 어쨌든 이 판타지 세계에서 나는 황태자의 측근으로 통하고 있으니 그 사실을 절대로 드러낼 수는 없었다.

나는 주문 나온 칵테일을 홀짝이는 척 했다. 리브는 무슨 일이 생기면 날 지켜야 해서 술을 먹이지 않고 있었고, 나는 오래 앉아있어야 했기 때문에 일부러 도수가 낮은 것만 주문하고 있었다.

듀렌 오르카는 사흘에 한 번 꼴로 이 선술집을 찾는다. 오늘에 세 번째 날이니 반드시 올 것이다.

그 자를 꼬드겨서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만들어 약점을 잡는 게 내 목표였다.

‘사진 같은 건 찍어봤자 인화를 못하니 이 세계관에서 증거가 안 될 거고… 녹음 같은 건 괜찮겠어. 마법이나 신력이라고 얼버무리면 되겠지.’

회식 자리만 가면 부장님께 알랑거리며 술을 전부 남자 직원들에게만 돌리던 내 특기가 빛을 발할 때였다.

“전부 나중에 황제 폐하께 보고드릴 겁니다.”

“보고할 때 황태자 전하를 위해서라고 입 좀 잘 털어주기. 알았지?”

“맨입으로 말입니까?”

“당연히 아니지. 자, 많이 먹어.”

나는 예쁜 얼굴로 투덜대는 리브의 입에 통새우를 물려 준 뒤 막 술집 안으로 들어오는 남자를 향해 눈을 돌렸다.

“어아가 유엔 오으하이이다.(저 자가 듀렌 오르카입니다.)”

한 눈에 봐도 오르카 경과 닮은 남자였다.

‘붉은 머리에 회색 눈동자.’

원작에 나오는 아들 오르카 경과 똑같은 배색이다. 인상은 확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검 쓰는 사람답게 몸이 좋고 색이 개성적이라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

게다가 엄마랑 싸웠다더니 표정도 우울해 보이는군. 딱 좋아.

“내가 저 사람 옆에 앉을게. 리브, 네가 맞은편에 앉아.”

“…그냥 제가 옆에 앉겠습니다.”

“알았어. 따라와.”

나는 바로 점원을 불러 듀렌이 앉는 쪽으로 안주를 하나 보낸 뒤 핸드폰을 품속에 숨기고 그에게 접근했다.

“왜 수심에 잠겨 계실까요, 멋진 기사님?”

듀렌이 고개를 들자 나는 싹싹하게 웃어 보이며 뒤로 따라오는 리브를 가리켰다.

“친구랑 함께 왔는데 얘가 술을 마실 줄 몰라서 너무 심심해서요. 괜찮으면 합석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렇게 말한 뒤 나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의 맞은편에 털썩 앉았다. 그리고는 정말 싫다는 표정으로 오만상을 하고 있는 리브에게 오라고 눈짓했다.

진실을 모르고 보면 그냥 아리따운 아가씨처럼 보이는 리브가 옆에 앉자 듀렌이 확 얼굴을 붉혔다.

“크흠! 나, 나는 저기… 기사도 아니고, 오늘 혼자 마시러 온 거라…!”

“아이, 그러지 마시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라도 나눠요. 딱 보니 요즘 속상한 일이 있어 보이시는걸요? 우선 제가 살 테니 한 잔 쭉 하세요.”

나는 듀렌이 뭐라고 헛소리를 하기 전에 재빨리 점원을 불러 맥주부터 주문했다. 우선 수상함을 느끼지 못하게끔 평범한 술부터 시작하여 나중에는 마시면 바로 기절한다는 술까지 발전시킬 예정이었다.

듀렌은 처음에 경계하는 시선으로 우리를 보았다. 하지만 긴 생머리에 청순한 얼굴을 한 리브가 옆에서 그를 보며 영혼 없이 웃어주자 금세 헬렐레하며 얼굴이 풀어지기 시작했다.

듀렌 오르카. 원작에서 중후반까지 주인공들의 강적인 기사단장 오르카 경으로 나오는 인물. 원작대로라면 몇 달 뒤에 있을 신수 살해 때 오르카 가의 모친과 형들이 전부 살해당하고 각성하여 충성스럽고 맹목적인 기사의 길을 걷는 캐릭터지만, 7년 전인 지금은 아무도 안 죽었기 때문에 아직 철없는 스물한 살 애송이일 뿐.

한번만 망신 좀 당해 달라고. 너희 가족 전부 살려주는 값으로 이 정도는 싸잖아?

나는 그런 생각으로 애써 속의 미묘한 죄책감을 털어낸 뒤, 듀렌이 적당히 혀가 꼬이기 시작하는 틈을 타서 핸드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다. 그와 함께 앉아 마시기 시작한 뒤 약 두 시간 정도 지나서였다.

“방금 하신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딸꾹, 무슨, 이야기 말이냐?”

“어머님이랑 싸우셨단 이야기 말이에요. 어휴, 오르카 후작님도 참 자식들한테 너무 간섭하신다니까요? 이렇게 멋진! 아드님이 계신데! 왜 아직도 백기사단에 받아주시지 않는 건지!”

“그래, 맞아! 어머니는 진짜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고! 본 대로 말한 게 죄가 되나? 오르카 가문의 기사는, 딸꾹,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

“듀렌 님의 말씀이 백 번 옳으시지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니, 대관절 후작님께 무슨 이야기를 하셨길래?”

나는 방금 전에 시킨 술을 은근슬쩍 듀렌의 앞으로 밀며 그를 채근했다. 냄새만 맡아도 속이 이상해질 정도로 독한 술이었다.

웬만한 사람은 마시면 바로 기절할 정도라지. 듀렌에게서 이야기를 들어내면 바로 이 술을 마시게 하고 리브와 함께 가게를 벗어나야겠다.

“황태자 전하의 오러 말이야!”

그런데 듀렌이 하는 말에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었다.

“오러가 왜요?”

“그런 오러를 난생 처음 봤는데, 왜 오르카 가문에서 아무도 폐하께 보고하지 않는 거냐고 말씀드렸지. 딸꾹, 왜냐하면 시그롯 전하, 그 사람, 그 자식의 오러가….”

“그 사람 거는?”

“하, 술이 들어가야 말할 수 있겠군.”

혀가 꼬부라지다 못해 초점도 제대로 맞지 않는 상태로 듀렌이 술잔을 향해 손을 뻗었다.

야, 아직 안 돼! 마시면 당신 기절한단 말이야!

나는 듀렌보다 먼저 술잔을 붙잡으려 했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술잔을 쥐는 손이 있었다.

“나와 함께 저녁을 먹는 것보다 이 자와 술을 마시는 게 더 중했나.”

후드를 쓴 시그롯이 술잔을 들고 서 있었다.

응? 시그롯이 대체 여기 왜 있어?

“술 정도는 나도 마실 수 있는 나이인데 말이야.”

시그롯은 그렇게 말하며 내게 미소 지었다. 원망하는 것 같기도 하고 걱정하는 것 같기도 한 복잡한 미소였다.

그가 천천히 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다.

자, 잠깐만. 넌 안 돼.

“안 돼!”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시그롯의 잔을 빼앗으려 했다. 그러나 시그롯의 악력이 셌기 때문에 도저히 빼앗을 수가 없었다.

“넌 마시지 마!”

“왜?”

시그롯이 눈살을 찌푸리며 나와 마주보았다.

“이게 무슨 술인지 정도는 안다. 어린애 취급하지 마.”

“애 취급 아냐!”

“그럼 뭐지?”

가만, 지금 얘 화난 건가? 난 대체 시그롯이 지금 왜 저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조금도 짐작할 수가 없었다.

다만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하나뿐이었다.

“뭐?”

시그롯이 얼빠진 얼굴로 손을 놓았다. 잔을 빼앗은 나는 어찌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뒤늦게 창피함이 얼굴로 몰려오는 걸 느꼈다.

아, 그냥 기절하고 싶다….

마침 기절하기 좋은 술이 손에 있었다. 나는 그대로 술을 원샷했다.

“민하!”

마지막으로 들린 건 시그롯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오랜만에 머리가 아프고 속이 더부룩했다.

‘냄비에 콩나물국이 아직 남아 있나….’

그냥 컵라면이나 하나 꺼낼까? 그래도 정신을 놓을 정도로 마신 것 치고는 어떻게 무사히 집까지 기어들어온 모양이다. 엄마가 알면 분명 엄청 잔소리를 할 텐데, 이럴 때는 부모님이랑 같이 안 살아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요 앞에 부대찌개 집을 갈까? 아냐, 거긴 2인분부터 하던데. 그럼 내장탕? 내장 땡기네.’

몸이 무겁다. 무언가 맵고 얼큰한 국물이 마시고 싶은데, 일어나기가 귀찮았다.

누구 불러낼 사람 없나? 나는 핸드폰을 꺼내 비몽사몽으로 전화번호부를 뒤적였다.

직장 동료와 상사들, 교수님, 친척들, 거래처….

-지금 거신 번호는 통화가 불가능한 지역에 있사오니….-

대학 동창들.

-음성 메시지를 녹음하시면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친구들.

-삐 소리가 나면….-

엄마.

“…….”

나는 귀에 핸드폰을 대고 한참 동안 녹음된 시스템 메시지를 들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녹음하지 않은 채로 잠시간 숨을 죽였다.

육 년 간 해본 자취 생활의 경험으로 나는 웬만한 건 대충 혼자 알아서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자기 몸을 챙기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일단 뭘 먹으면서 속을 좀 풀고, 빨래도 돌리고 화장실 청소도 해야 한다. 할 일이 많았다.

지끈거리는 골을 참지 못한 나는 결국 라면 봉지라도 하나 뜯을 생각으로 일어나려 했다.

“좀 더 자라.”

누군가가 내 눈가에 손을 얹고 있었다.

“숙취가 심하구나. 의사를 통해 약을 먹였으니 곧 나아질 거다.”

“엄마…?”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고 들어올 사람은 엄마밖에 없는데.

나는 멍하게 다시 눈을 감았다. 따뜻한 손과 다정한 목소리가 기분 좋았다. 눈꺼풀 위를 덮고 있던 손을 잡아 뺨 위에 갖다 대자, 손이 흠칫 떨리는 게 느껴졌다.

“나는, 저기, 여자가 아니라….”

“엄마, 나 내장탕 먹고 싶어.”

“내장이라고?”

“창자랑… 간이랑… 염통… 자글자글하게 있는 거….”

상상만 해도 맛있겠다. 나도 모르게 입가에 침이 고이며 웃음이 나왔다. 그 순간 손이 딱딱하게 굳어지며 숨을 삼키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

이 엄마가 새삼 왜 놀라나 몰라. 딸내미 식성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대로 실실 웃다가 까무룩 다시 잠들었다.

그리고 두 시간 뒤, 완전히 잠에서 깨고 나서 엄청난 풍경을 눈앞에 마주했다.

“…이게 다 뭐야? 주지육림이야?”

대접만한 접시 위에 뱀처럼 돌돌 말려서 날 것 그대로의 모습으로 올라가 있는 창자(비슷한 것)와, 생전의 원형 그대로로 추정되는 작은 새들의 사체가 배를 가른 채로 누워 노릇노릇 구워져 있는 모습을 보고 나는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 같았다.

“오우거의 창자와 참새 내장 소금구이, 그리고 골든 슬라임의 간입니다. 들어간 재료는….”

게다가 황실 요리사가 앞에서 진중한 얼굴로 요리 설명을 시작하기까지 했다. 아, 이 노란색 물컹물컹한 게 간이었군요. 저는 푸딩인 줄 알았습니다.

“깨어나서 다행이군, 민하.”

도대체 이 쳐다보기도 힘든 음식들은 다 뭐야? 비주얼만으로도 무서워서 차마 포크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내 맞은편에 앉아있던 시그롯이 말했다.

“네가 자면서 내장탕이란 게 먹고 싶다고 하기에, ‘탕’이란 게 무슨 음식인지 몰라서 일단 내장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요리들을 준비시켰다.”

“내장…탕?”

내가 자면서 아주 별 소리를 다 했구나?

나는 다시 한 번 눈앞에 차려진 판타지 세계의 내장요리 시리즈를 내려다보았다. 웬만하면 시그롯을 봐서 그냥 먹어주고 싶었지만, 술이 덜 깨서 그런지 보기만 해도 생리적으로 뭔가 올라오는 기분이었다.

“혹시… 마음에 들지 않으냐?”

“어? 으음….”

“미안하다. 얼마 전까지 히드라의 염통이 황실에 있었는데, 이틀 전 흑기사단의 전승 파티에서 써 버렸다고 하는구나. 하지만 네가 원한다면 다시 원정대를 보내어….”

“아냐! 그렇게까지 하지 마!”

나는 시그롯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내저었다. 하지만 속이 안 좋아 해장이 간절한 것도 사실이었다.

왜 이렇게 됐더라? 아, 듀렌 오르카를 꼬드기려고 온 선술집에서 술을 마셨지. 엄청 독한 거. 그거 마시고 바로 기절했던가? 누가 날 황궁으로 다시 데려왔을까? 리브? 아니면 시그롯? 그러고 보니 시그롯은 여기 대체 왜 있지?

아, 모르겠다. 국물 마시고 싶다.

그러고 보니 마지막으로 라면을 먹은 지도 두 달이 넘었다. MSG를 넣어 달라고 몸이 한참 아우성을 하고 있었다.

“그냥 국물… 국물 없어? 매운 거?”

“스프 같은 것 말이냐?”

“라면이라든지….”

“…라먼?”

“콩나물, 고춧가루, 대파….”

“콩…나물?”

시그롯이 흐린 눈으로 내가 말한 단어들을 반복했다. 아냐, 네가 풀 죽을 게 아니라고. 혹시 몰라서 그냥 말해본 것뿐이야. 어차피 한국 사람이 쓴 소설일 텐데 웬만하면 고증 무시하고 라면 떡볶이 같은 게 등장해도 괜찮지 않나?

독자로서 읽었다면 기함을 할 생각을 하는 사이, 나는 시그롯의 얼굴색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는 걸 눈치 챘다.

차마 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이마를 짚고 있는 시그롯을 보며, 나는 필사적으로 아픈 머리를 쥐어짜냈다.

“……어, 저기 그러니까.”

“…….”

“토마토 스프는 있지?”

“……!”

시그롯이 불현듯 고개를 들었다. 이제까지 본 중에서 가장 환한 얼굴이었다.

“당장 토마토 스프를 요리해 와라!”

그가 바로 황실 요리사를 돌아보며 말했다. 나는 그 날 점심부터 저녁까지 온갖 좋다는 식재는 다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토마토 스프를 먹어야 했다.

라면도 없고 콩나물도 없는 세계였지만, 살면서 먹은 토마토 스프 중에 가장 맛있었다.

“리브라는 네 시종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는 어느 정도 들었다.”

식후 디저트로 방에서 골든 슬라임의 간을 썰어먹고 있던 내게 시그롯이 다가왔다. 처음 만났을 무렵에 꼭 우리나라 학생들처럼 아침점심저녁을 공부로 채우고 있던 모습과 달리 그는 오늘 틈만 나면 내 방에 들락거리고 있었다.

“듀렌 오르카 영식의 약점을 잡기 위해 그에게 접근했다지.”

“…….”

나는 할 말이 없어져서 얌전히 묵비권을 행사했다.

“왜 내 일인데 내게 먼저 말하지 않았나?”

“좋은 일도 아닌데 뭘.”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건 자각하고 있었구나.”

“그렇다고 그렇게 나쁜 짓도 아니거든.”

내가 뭐 대단한 거 하려고 했나? 그냥 듀렌 오르카에게 수치스러운 흑역사를 하나 만들어줄 생각이었을 뿐이다.

가만 놔뒀으면 장차 마수안의 먹이랍시고 몇 천 명을 학살할 예정이었던 악당 꿈나무 앞에서 누구한테 술 좀 먹였다고 변명하고 있으려니 기분이 이상했다.

시그롯은 나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거리를 두고 테이블 앞의 의자에 앉았다. 그러고 보니 황태자가 그 선술집에는 왜 있었던 거지?

“너는 왜 날 위해 그렇게까지 하지?”

“어?”

화가 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 외로 예상치 못한 질문이 들어왔다.

나는 얼떨떨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시그롯의 녹색 눈동자가 달빛을 담고 밝은 연두색처럼 반짝거렸다.

악역으로 설정된 것 치고는 몇 번을 다시 봐도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아마 원작이 시작되는 7년 뒤쯤 가면 좀 더 남자답게 잘생겨질 것 같은 느낌.

지금 이 상태로 시그롯이 그대로 자란다면 어떤 모습일까? 문득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오르카 영식에 비해 부족한 것을 알기에 그런 게 아니냐. 네게 믿음을 주지 못한 건 내 책임이야.”

“아, 그건….”

“민하, 내게 뭔가 원하는 게 있지 않으냐?”

그가 진중한 얼굴로 내게 물어왔다. 나는 순간 할 말을 잊어버렸다.

“너에게 무얼 줄까.”

내가 그에게 원하는 건 하나뿐이었다.

건강하게, 불행해지지 않게 오래 사는 것.

진심으로 바라는지 스스로도 모를 소원이었다. 다만 그가 그렇게 살아줘야 내가 집에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바랄 따름이었다. 게다가 건강하라니, 뜬금없이 말해도 시그롯이 믿기나 할지 의심스러운 소원 아닌가.

나는 그런 낯간지러운 말을 차마 입 밖으로 낼 수가 없었다. 난 시그롯에게 악플을 백 개나 달았는걸. 악당이니까 무슨 짓을 당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고.

성격 원래 별로 안 좋단 말이야.

좀 더… 좀 더 내게 어울리는 말이 없을까?

“네가 황태자니까 줄 대려고 그러는 거지, 뭐.”

“거짓말이구나. 정말로 그런 목적이 있는 자는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내 궁색한 변명을 시그롯은 한 마디로 잘라 버렸다.

“정말이야! 난 여기 와서 의지할 데 없는 신세잖아. 운 좋게 너랑 만나서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 너 없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나는 그렇지? 하고 동의를 구하듯이 슬쩍 웃었다. 이상하게 긴장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통 알 수가 없었다.

싸우는 분위기도 아닌데 공기가 바짝 조여드는 것 같았다.

“굳이 솔직하게 말하자면… 네가 나중에 잘 되도 나한테 신세 진 걸 생각하고 날 모르쇠하지 않는 거?”

“너를 저버리지 말라는 뜻이냐?”

“그렇지. 의리 같은 뭐 그런 거.”

“너를….”

시그롯이 잠시 말을 고르다가 고개를 들었다. 머뭇거리는 것 같기도 했다.

“계속 내 옆에 두어 달라는 뜻이구나.”

어라?

가만, 이거 맞는데?

“그래!”

나는 뒷걸음질하다 쥐 잡은 기분으로 냉큼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보니 처음부터 이렇게 말했으면 되었을 것도 같았다.

어차피 좋든 싫든 불행 플래그를 부수기 위해선 시그롯과 7년 이상을 붙어있어야 했다. 하지만 당사자가 싫다고 하면 곤란할 게 아닌가? 그러니 그 약속을 받아내는 게 가장 중요했다. 이 간단한 걸 당장 떠올리지 못했네.

이거라면 그렇게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생각할수록 괜찮았다.

“네 옆에 있게 해줘. 내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야.”

나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시그롯에게로 갔다. 하지만 시그롯이 먼저 팔을 들어 나를 만류했다.

그는 한동안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들자, 귀까지 새빨개져 있는 얼굴이 드러났다.

나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 그가 다가오는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시그롯이 손을 뻗어 내 손을 잡고는 자신의 가슴께로 조심스럽게 가져갔다.

“알겠다.”

잠깐, 이거 무슨 분위기지?

“약속하마. 너를 절대로 내 옆에서 떼어두지 않겠다.”

시그롯이 나를 보며 결연하게 말했다. 나는 잠깐 멍해져서 그를 쳐다보다가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음, 이거 잘 된 거지? 환심 산 거 맞지?

얘도 이제 어느 정도는 날 좋게 생각하고 신뢰하는 게 맞겠지?

나는 우리의 약속이 잘 되었다는 표시로 그를 향해 웃어 주었다. 이제 남은 건 석 달 뒤의 듀렌 오르카와의 결투에서 승리하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시그롯은 손을 놓은 뒤에도 오래도록 내게서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소설 속에서 보내는 첫 겨울은 매섭고 사나웠다. 우리나라 겨울도 추위로는 만만찮지만 여긴 현대식 난방이 갖춰져 있지 않은 세계라 그런지, 웬만해서는 창문을 열기도 두려울 정도였다.

시그롯은 온 황궁이 눈으로 덮인 날씨에도 밖에 나와 검술 훈련에 매진했다. 얼마쯤 지나고 나서부터는 오르카 경의 수업이 없는 시간에도 홀로 연습을 했다.

반면 나는 그런 시그롯을 보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일이 없었다.

‘네가 이 황궁에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 나를 믿어다오.’

본인 입으로 아무 뒷공작도 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은 탓이었다.

판타지 세계 사람이라 그런가? 어린애가 말을 참 간지럽게 잘 한단 말이지.

나는 결국 시그롯을 내버려둘 수 없어 거의 매일 단련장에 출근도장을 찍었다. 그래봤자 한 거라곤 멀찍이 앉아서 구경하거나 그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신경 쓰는 정도였지만 말이다.

처음에는 장엄하고 신기하여 몇 십 장씩 사진을 찍었던 눈 내린 황궁의 전경도 마르고 닳도록 드나들면서 식상해졌고, 얼큰한 국물 대신 마시는 토마토 스프의 달짝지근한 맛에도 그런대로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인터넷도 전화도 안 되는 폰을 만지작대는 데 질린 나는 차라리 뭔가 다른 걸 해보자는 생각에 단련장에 쌓인 눈으로 눈사람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그롯이 보고 탑이냐고 물었기 때문에(사실은 시그롯이었지만 말하지 않기로 했다.) 중간부터 눈 탑을 쌓는 걸로 노선을 바꿨다.

시그롯의 평판은 점점 좋아졌다. 하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동정에 가까운 여론이었다. 나는 혹시나 흑마법사가 그에게 마수안을 들고 접근하는 걸 저지하기 위해 여전히 끈질기게 그의 뒤를 따라다녔다.

길 것 같았던 겨울은 금세 지나갔다.

봄은 소리 없이 찾아왔다.

일 년에 두 번뿐인 대귀족회의를 앞둔 3월, 오르카 경이 말한 결투 날짜는 어느새 내일로 다가와 있었다.

‘나가는 건 시그롯인데 내가 수능 보는 것 마냥 떨리네.’

나는 내심 안절부절못하며 단련장에 나와 있었다. 오늘은 시그롯에게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컨디션을 관리하라고 신신당부했기 때문에 나올 이유가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서였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한 명 또 있었던 모양이다.

“시그롯!”

단련장 한 구석에 시그롯이 서 있었다.

“그걸 왜 봐?”

왠지 민망해진 기분으로 그에게 다가갔다. 시그롯이 보던 건 내가 겨우내 조금씩 쌓았던 눈탑이었다. 워낙 추워서 그런지 내버려두어도 거의 녹지 않아서 탑은 어느 새 내 키보다도 높게 쌓여 있었다.

시그롯은 고개를 돌려 내 얼굴을 보더니, 뭔가 잘못한 사람처럼 화들짝 뒤로 물러섰다.

“미안하다.”

“왜 사과해?”

“네가 만든 걸 몰래 보지 않았나.”

“숨길 거면 거기다 만들지도 않았지.”

딱히 봐선 안 될 것도 아니고, 그가 매일 있는 곳에 대놓고 크게 만들었는데 안 보이는 게 더 이상한 수준 아닌가?

나는 시그롯이 대체 왜 사과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대신에 아직 근처에 좀 남아 있는 눈을 끌어 모아 덩어리를 만들어 탑의 위쪽에 올리려 했다. 너무 추운 날씨 탓에 잘 녹지도 않아서 이제 내 키를 훨씬 넘을 정도로 탑이 높아진 탓에 더 위로 쌓으려면 까치발을 하고 팔을 높게 뻗어야 했다.

위까지 좀처럼 손이 닿지 않아 안간힘을 쓰는 내 손을 뒤에서 시그롯이 잡았다.

“실례하지.”

그가 내 손 안에 있던 눈덩어리를 가져가 탑의 제일 위에 가볍게 펴 발랐다.

나는 문득 시그롯을 올려다보았다. 겨우내 손가락 두 뼘 정도 자란 시그롯은 한국으로 치면 약 180cm 정도 신장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마법사들을 시켜 보존 마법을 걸어야겠어.”

그가 탑을 보며 하는 말을 듣고 나는 깜짝 놀랐다.

“녹게 두면 되지, 뭘 보존해?”

“이 정도로 높아졌는데 아깝지 않으냐.”

“놔둬. 마법 같은 거 걸려면 번거롭잖아. 잘 만든 것도 아니고, 마법사도 데려와야 하고….”

“너는 내가 황태자라는 걸 종종 잊는구나.”

시그롯이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멜프라우는 신수의 가호로 항상 풍요롭다. 날씨는 겨울이라도 정원에는 일 년 내내 꽃이 피지. 나는 네가 괜찮다고만 말해준다면 이 탑을 계속 남겨두고 싶어.”

나는 그 말을 듣고 문득 원작소설을 생각했다. 소설의 후반부에서 여주인공 리리샤는 마수안을 유지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는 시그롯과 결판을 내기 위해 황궁으로 찾아간다.

그 장면에서 시그롯이 리리샤를 기다린 장소가 바로 장미 정원이었다.

하얀 장미를 모조리 뽑아내고 심은 붉은 장미 정원.

꽃이 피어야 할 계절이 아님에도 시그롯의 주변에는 장미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정확히는 딱 그의 주변에 있는 일부분만 만개한 상태였고 나머지는 모두 시든 채였다.

진짜 신수의 힘을 받을 수 없는 마수가 구현한 ‘가짜 풍요’가 꾸며낼 수 있는 범위는 고작 그 정도였던 것이다.

"“리리샤, 내 제국에 온 걸 환영해.”"

그 장면에서 시그롯은 그를 혐오스러운 눈으로 보는 리리샤를 돌아보며 환하게 웃는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는 그 때 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대귀족회의 기간에는 평소 자기 영지에 사는 귀족들이 전부 제도로 올라온다. 그 말은 겨울 내내 나름 조용하게 지냈던 생활이 끝난다는 걸 의미했다.

아침부터 황궁은 밀려들어오는 귀족들의 화려한 입성 소식으로 소란스러웠다. 나는 아리의 알람으로 일어나 방에서 아침 식사를 하며 플래그를 체크하고 있었다. 오르카 경이 황제와 이야기하여 통보한 결투 날짜는 바로 대귀족회의가 열리는 오늘이었다.

“원작이 이제 상당히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아리가 했던 말에 따르면 불행 플래그는 내가 시그롯에게 썼던 악플대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악플은 대부분 원작에서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자면 원작의 전개가 바뀔 경우 악플이 생길 일도 없다고 봐야 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시그롯은 이제 악당의 길에서 벗어난 것 같았다.

그가 내게 욕을 먹었던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사라졌으니 그러면 이 플래그도 전부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데 왜 ‘좋아요’가 안 찍혀?”

-아직 플래그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게 하트를 주지 않는 장본인인 비싼 보이스웨어 아리가 대답했다.

“걔가 악역이 안 되어도 내가 악플 단 건 남아? 계속? 앞으로도?”

-걱정 마세요. 혹시 잘못해서 민하 님이 신이 되시더라도 그 때는 제가 잘해드릴게요.-

“하하하, 삭제해버린다.”

-저는 기본 내장 애플리케이션이라 삭제가 불가능….-

“음소거, 음소거!”

나는 핸드폰을 조용히 품에 넣었다. 마음 같아서는 어디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이 세계에서 내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폰이 고장 나기라도 하면 큰일이었다.

“민하 님.”

던지는 대신 음소거된 아리에게 오만 욕을 하고 있는데, 밖에 나가 있던 리브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황태자 전하께서 찾으십니다.”

“아, 그래!”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시녀들이 입혀주는 대로 적당히 채비를 했다. 그런데 가만 놔두고 있으려니 옷차림이 좀 이상했다.

문득 제대로 보고 싶어 전신거울 앞으로 다가간 나는 기함을 했다.

“이게 뭐야?”

화려한 것까진 황태자의 측근으로 나가는 거라 그러려니 했다. 그런데 무겁고 긴 소매에 긴 천 같은 걸 두르는 것도 모자라 머리에는 베일이 달린 관까지 씌웠다.

전체적으로 무슨 대주교 같은 복장이었다.

“오르카 경께서 지시하셨습니다.”

“그 할머니 진짜 노망 난 거 아냐? 기사가 남의 옷에는 왜 간섭해?”

“경께서는 당신을 좋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뭐?”

이건 또 무슨 소리래?

오르카 경과 나는 빈말로라도 좋은 사이가 아니었다. 그나마 상대가 귀족이고 연장자라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킬 뿐이지, 아니기만 했으면 각종 무례를 서슴지 않게 저질렀을 정도로 난 그 할머니가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런데 그 오르카 경이 나한테 이런 옷은 대체 왜 입히는 거야?

혹시 뭐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 남을 엿 먹이는 데 있어 누군가에게 뒤진다고 생각하니 이상하게 수치스럽고 분한 느낌이 들었다.

그래도 거울을 보니 힘들게 입었는데 좀 아깝기는 했다. 비록 입히고 화장시키느라 고생한 건 리브와 시녀들이었지만 나도 가만있느라고 나름 힘들었다고?

‘이럴 때는 인증샷이지.’

뭐 이상한 옷도 아니고… 오르카 경이 만일 뭐라고 하면 이 긴 천으로 둘둘 말아 목을 졸라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나는 다시 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찰칵찰칵.

내 화려한 모습을 기념하며 열심히 셀카를 찍고 있으려니 옆에서 리브가 이상한 시선을 보내왔다.

“종교 의식이야.”

“압니다.”

“그런데 눈은 왜 감고 있어?”

“당신의 신앙을 존중해야 할 것 같아서요.”

나는 순간 할 말을 잃고 리브를 쳐다보았다. 얘들 혹시 단체로 미친 거 아냐?

‘판타지 세계 사람의 감수성… 현대인으로서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리브의 뒤를 따라 결투장으로 향하면서 나는 그의 청순한 긴 머리를 멍하게 보았다. 그러고 보니 쟤도 처음 만날 무렵에는 날 죽일 생각으로 목에 날붙이 같은 걸 들이댔건 것 같은데 요즘 와서는 묘하게 얌전해진 감이 있었다. 심지어 오늘 아침식사를 하기 전에는 날 유심히 쳐다보길래 왜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었다.

‘식전 기도는 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식전 기도가 뭔 소린지 몰라 잠시 눈치를 굴려 보다가, 혹시나 해서 폰을 꺼내 음식 사진을 찍었다. 그랬더니 리브가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던 것이다.

아무래도 최근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좀 이상하긴 했다. 한 석 달 전까지만 해도 나를 보면 다들 손가락질하거나 수군거리는 게 일상이었는데, 시그롯의 상태가 점점 좋아지면서 내게 향하는 시선들이 아무래도 변한 것 같았다.

오르카 경은 요즘 내가 단련장에 나오는 날을 미리 묻는다. 그리고 내가 관전하는 날에만 자기도 수업을 하러 나왔다.

헉, 가만, 설마.

진짜로… 기혼여부와 나이와 성별을 초월한 사랑?

어떡하지? 뭐라고 거절해야 하지? 불륜은 안 한다부터 시작해야 하나? 그런데 오르카 경은 남편과 사별했던데? 아냐, 그냥 평범하게 저는 남자가 좋다부터….

오르카 경의 순정을 어찌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와중, 어느 새 나는 시그롯의 대기실 앞에 도착해 있었다.

그래, 맞아. 오늘 가장 중요한 사람은 시그롯이지.

리브가 문을 두드렸다. 나는 출입허가를 받고 난 뒤 조심스럽게 대기실 안으로 발을 옮겼다.

문을 열 때부터 바짝 긴장된 공기가 숨 막히듯 몸을 조여 오는 것 같았다.

시그롯은 무장한 채로 방 한 가운데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냥 보면 평온해 보였지만 피부로 느껴지는 감각이 어딘지 모르게 불안했다. 나는 수능 날 동생을 본 기분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시그롯에게 거리를 두고 다가갔다.

혹시 명상하나? 아니면 집중?

차마 그를 둘러싼 분위기를 깨트리는 게 두려워 조심조심 다가가 시그롯의 앞에 서자, 그가 불현 듯 감고 있던 눈을 떴다.

아, 눈이 마주쳤다.

시그롯의 녹색 눈동자가 기묘한 열기를 담고 나를 올려다보았다. 에메랄드 보석을 보는 것처럼 아름다운 눈이었다. 새삼 글자로만 볼 때는 실감나지 않았던 금발녹안의 미소년이 똑바로 날 쳐다보자 왠지 모르게 민망해져서 도망치고 싶어졌다.

아마 내 몸이 머리보다 먼저 반응한 모양이다. 나는 정말로 그 자리에서 주춤한 뒤 물러나려고 했다. 하지만 시그롯이 먼저 내 손을 잡았다.

“오늘 아침에 가 봤더니.”

그가 나직하게 말했다.

“응?”

“탑이 무너져 있었다.”

바로 몇 분 뒤에 있을 결투와는 전혀 상관없는 소리였다. 나는 그가 말하는 탑이 무엇인지 몰라 잠시 고민하다가, 곧 그가 단련장에 있던 내가 만든 탑을 말하는 거라는 걸 깨달았다.

“녹았…겠지. 이제 봄이니까.”

“마법을 걸어둘 걸 그랬어.”

시그롯이 내 손을 꼭 쥐고 그 위로 고개를 숙였다. 잔뜩 낙담한 것 같은 목소리였다.

“그러면 영원히 남겨둘 수 있었을 텐데.”

만든 사람은 나였는데 왜 그가 더 속상해하고 있을까?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멋쩍게 서 있다가, 어쩌면 그 탑이 시그롯의 부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아무래도 사람은 마음이 고단해지면 미신이나 오컬트를 찾게 되니까.

나는 미신 같은 걸 잘 믿지는 않았다. 여기 와선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미 벌어졌으니 그러려니 하고 살고야 있었지만.

하지만 그런 것들이.

신이 때로 누군가에게 간절히 필요하다는 것 역시 알았다.

“시그롯.”

나는 시그롯의 손을 잡고 품 안에 손을 넣었다.

“너한테만 보여주는 거야. 비밀로 해야 돼.”

시그롯이 날 쳐다보았다. 나는 품에서 꺼낸 핸드폰의 전원을 키고 갤러리 앱을 눌렀다.

내가 뭘 하는 가 싶어 유심히 보던 시그롯의 눈이 어느 순간 휘둥그레졌다.

“무엇이지?”

나는 시그롯의 손에 핸드폰을 쥐어주었다.

“내 마법.”

액정에 떠 있는 건 내가 만들었던 눈 탑이 찍힌 사진이었다.

시그롯은 액정을 보고 굳어졌다가,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이건 대체, 어떻게….”

“진짜는 아니고, 그림 같은 거?”

“그림이라니? 진짜처럼 똑같지 않으냐?”

“맞아, 사실 모습만 남겨둔 거야. 이러면 녹아도 계속 볼 수 있잖아.”

나는 그가 혹시 실망하지 않을까 슬쩍 눈치를 살폈다. 하지만 시그롯은 신기한 얼굴로 내가 쥐어준 핸드폰 안의 사진을 계속 어루만지고 있었다.

잠깐만. 손가락으로 거길 문지르면….

“……!”

“왁!”

나는 황급히 그를 막으려고 했지만 그의 손가락이 화면을 슬라이딩한 게 먼저였다.

그러자 탑을 찍은 사진이 옆으로 넘어가고 화면에 뜬 사진이 바뀌었다.

바로 방금 전에 거울 앞에서 찍은 내 셀카로 말이다!

“그림이 왜 달라졌….”

“그건 보지 마.”

나는 급히 손바닥을 펼쳐 화면을 가리고 빠르게 다시 사진을 바꿨다. 아니, 뭐 부끄러울 사진도 아니고 지금도 똑같은 차림이긴 했지만 예쁜 척 하며 찍은 자기만족용 셀카가 갑작스럽게 공개되려니 무진장 창피했다.

시그롯은 이게 뭔지도 모를 텐데 뭐가 이렇게 민망하담. 나는 괜히 화제를 돌리기 위해 그의 손에서 다시 폰을 빼앗아 예전 사진 목록을 주르륵 내렸다. 아무래도 내가 직접 보여주는 게 더 이상의 창피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이건 며칠 전에 찍은 거고.”

어제보다 조금 더 작은 탑 사진.

“그리고 이건 2주일쯤 전.”

훨씬 더 작은 사진.

“이건… 초기 컨셉?”

눈사람이었을 시절 사진까지.

아마 현대인이라면 많이들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인증샷을 찍는 건 내 취미이자 버릇이다. 평소 여기저기 시비를 많이 털고 다니는 탓에 늘 증거를 남기려고 하는 탓도 있었고, 그냥 사진 찍는 게 워낙 쉬워지다 보니 습관처럼 찍게 되는 것도 있었다.

그래서 이 세계에 오고 나서부터는 특히 사진을 자주 남기게 되었다.

핸드폰 속에 든 사진을 보면 내가 이 곳에 있다는 실감이 드니까.

“평범한 물건이 아니구나.”

시그롯은 이제 사진에 손을 대려 하지 않았다. 그는 만지면 사진 속의 눈이 정말 녹기라도 할 것처럼 조심스럽게 그것을 바라보기만 했다.

“보기만 할 수 있어서 꺼내지는 못해.”

“안다. 네가 모습뿐이라고 말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싶을 때 눈으로 보고, 진짜는 내년에 눈이 왔을 때 또 만들면 돼. 꽃도 신수가 없으면 시들지만 결국 나중에 다시 피기는 하잖아?”

나는 그가 원작에서 했던 일을 상기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마수안으로 고작 정원의 꽃을 피우고 있었을 뿐이지만, 당연히도 그 장면이 암시하는 진짜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었을 것이다.

나도 남 말할 것 없는 인간이지만 집착은 보통 사람을 불행하게 했다.

그렇다면 이것 역시 시그롯의 불행 플래그라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악당은 많은 이야기 속에서 대개 불행한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으니까.

“내 말은 그러니까, 너도….”

생각을 잘 정리하지 못하고 어물어물 말하고 있는 내 말을 시그롯이 따라했다.

“나도?”

금실 같은 머리카락의 판타지 속 미소년이 고개를 들며 묻자 영 현실감이 없었다.

얘는 대체 왜 악역인 거지? 나쁜 놈이지만 이렇게 잘생겼으니까 예쁘게 봐달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작가의 의도는 성공적이었다. 글로는 그가 무슨 짓을 하던 욕을 했던 나도 실제 본인 얼굴을 눈앞에 두고는 너무 잘생겨서 심한 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때마침 결투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의 천사 같은 얼굴에서 슥 멀어지며 얼버무렸다.

“아니, 그냥 너도 잘 하라고.”

“…….”

“빨리 가.”

새삼 느낀 거지만 나는 누굴 응원하는 걸 참 못했다. 놀리거나 까는 거라면 눈 감고도 할 수 있는데. 차마 내가 ‘힘내!’라고 말하면 비꼬는 것처럼 들릴까 싶어서였다.

이럴 줄 알았으면 연습해둘걸.

결국 마지막에 대단한 말을 하지 못하고 어색하게 말을 맺는 나를 향해 돌아서려던 시그롯이 물었다.

“민하, 방금 그게 너의 비밀이라고 했지.”

“응?”

“나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느냐?”

그 질문이 지금 왜 나오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

그러자 다음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가 눈을 접으며 서글서글하게 웃은 것이다.

“알겠다.”

소설 속에서처럼 미친 사람 같은 광소도 아니었고, 처음 감옥에서 만났을 때처럼 모든 의욕이 사라진 듯한 웃음도 아니었다.

이런 말을 하면 낯간지럽게 들릴 걸 알지만, 아주 예쁜 미소였다.

그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결투장에 올랐다. 남겨진 나는 괜히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대기실에 멍하게 앉아 있다가, 내게도 전용 좌석이 준비되어 있으니 가야 한다는 리브의 재촉에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그의 불행을 빌며 썼던… 아니, 사실은 그냥 쓰는 것 자체가 재미있어서 그가 불행할지 어떨지는 딱히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댓글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빙글빙글 맴돌았다.

아리는 내가 반인반신의 몸이라고 했다. 그 말은 내가 절반 정도는 이미 불행의 신이라는 소리일 것이다.

그런데도 왜 시그롯은 저렇게 행복하다는 듯이 웃는 것일까?

‘나 때문에 결국 불행해질 텐데.’

옷이 무거워서 그런지 몸이 자꾸만 축축 늘어졌다. 결국 내 걸음걸이를 보조하기 위해 평소보다 많은 시종들이 동원되었다.(옷자락을 잡아 줬다는 소리다.)

가까스로 배정된 자리를 찾아 앉으려니 이번에는 새로운 복병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서 앉게나.”

오르카 경이 내 옆자리였다!

‘이 할머니가 진짜…!’

제국의 대귀족 아니세요? 왜 신분도 없는 저를 옆자리에 앉히시죠?

“리브, 다른 자리 없어?”

“잔 말 말고 않게. 결투가 곧 시작일세.”

“이보세요, 후작님. 저희 둘이 같이 앉아있으면 친해 보이잖아요. 무슨 속셈이세요?”

“전하의 측근인 자네와 내가 동석하는 게 전하께도 이득이 아니겠나?”

“오늘 후작님 댁 아드님과 저희 전하의 결투라는 건 아시죠?”

“그래서 싫은가?”

오르카 경이 능글맞게 웃으며 대꾸했다. 이미 주변에선 우릴 향해 흥미진진한 시선을 보내는 중이었다.

이 교황님 같은 옷을 곧이곧대로 입는 게 아니었다. 나는 속으로 온갖 욕을 하며 자리에 앉았다. 제국의 대귀족이면 현대식으로 따지면 총리나 재벌 같은 거겠지? 그래, 나는 권력에 야합하는 거야. 딸랑거리는 거라고. 결코 오르카 경과 좋은 관계가 되고 싶어 이러고 있는 게 아니다.

나는 핸드폰을 손에 꽉 쥔 채로 결투장을 향해 시선을 던졌다. 술주정뱅이였을 때와는 달리 제대로 무장하고 멋진 기사 같은 차림으로 나타난 듀렌과, 반짝거리는 은색 갑옷을 입고 있는 시그롯이 보였다.

멀어서 시그롯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가까이 있을 때는 아이처럼 보였던 그가 듀렌과 나란히 서 있으니 새삼 다른 사람처럼 크고 낯설어 보였다.

“혹시 바로 전에 전하를 만나고 왔나?”

오르카 경이 대뜸 이 쪽을 돌아보며 물었다.

“그런 건 왜 물어보세요?”

“보고 온 모양이군.”

“왜 지레짐작하세요?”

“전하의 컨디션이 좋아 보여서 말이야.”

시그롯이 컨디션이 좋은 거랑 날 만난 거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야? 나는 그녀가 하는 말을 영 이해할 수가 없어 고까운 시선으로 오르카 경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오르카 경은 본인 혼자 이해했다는 얼굴로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결투는 이 결투의 의의를 설명하고 각자 황제 앞에서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맹세하는 지지부진한 과정 끝에 시작되었다. 그리고 사실을 말하자면, 나는 시그롯이 질까봐 진짜로 너무 긴장된 나머지 결투 장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가 황태자로 남기 위해서는 신수를 가진 것에 버금가는 재능을 보여야 한다.

왜냐하면 신수를 가진 황족들은 계약의 힘으로 인해 확연한 재능을 하나씩 부여받곤 했으니까.

전쟁의 신수를 가진 칼릭스는 싸움으로는 누구도 당할 자가 없었다. 풍요의 신수를 가진 이번 대의 황제폐하는 특별한 재능은 없어도 시그롯의 말마따나 일 년 내내 가뭄 없이 평화로운 국가를 이룩할 수 있었다.

시그롯은 그 중 어떤 것도 갖지 못했기에 원작 속에서 마수안에 손을 대었지만, 그랬기에 이 소설의 최종 악역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능력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얻었다.

나는 어쩌면 시그롯을 지키는 게 아니라 더 약하게 만들어버린 건 아닐까?

“그러고 보니 전에 말씀하셨던 시그롯의 치명적인 약점은 뭔가요?”

문득 오르카 경이 전에 했던 말이 생각났다. 시그롯에게 약점이 있지만 말은 못해주겠다고 하면서 내 복장을 뒤집어 놨던 소리 말이다.

“이제 결투 중이니 말씀해 주셔도 되잖아요.”

내가 따지고 들자 오르카 경이 능글맞게 웃으며 대답했다.

“집착이네.”

나는 그 말을 듣고 내심 놀랐다. 바로 결투 전까지 하던 생각이기 때문이었다.

“물론 승부에 집착은 필요하지만 전하의 경우 승리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패배하지 않으려는 집착을 갖고 계시네. 그러면 자연히 검은 방어 위주가 되고, 지지 않는 검은 시간은 끌 수 있을지언정 결코 이기려는 검을 이길 수 없지.”

“아….”

“방어에 치중한 검은 언제 공격이 들어올지 몰라 정신적인 긴장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네. 그러니 적극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적당히 시간을 끌어 지치게 하면 어렵잖게 이길 수 있지. 나는 듀렌에게 전하의 그런 버릇을 말해주고 그 점을 공략하라고 조언해 주었네만….”

까앙!

오르카 경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둔탁한 쇳소리가 귀를 울렸다.

나는 다급히 소리가 들린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하늘로 높이 떠오른 검이 팽글팽글 돌아 바닥에 기세 좋게 나동그라지고 있었다.

누군가가 검을 놓쳤다.

어느 쪽이지?

시선이 자연히 시그롯을 쫓았다. 겨우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훈련에 전념하던 시그롯, 내가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는 걸 보고 어쩔 줄 몰라하던 시그롯, 눈으로 어설프게 탑을 쌓고 있는 걸 보고 사라지는 게 아쉽다고 하던 시그롯이 사진첩처럼 차례대로 머릿속에 흘러갔다.

나는 재빨리 핸드폰을 켜 카메라 앱을 실행했다. 줌을 당겨 최대한 피사체가 가까이 보이도록 카메라를 조정했다.

“기도하는 건가?”

오르카 경의 질문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뇨, 축복이에요.”

나는 그대로 환호성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촬영 버튼을 눌렀다. 액정 한가운데 담겨 있는 시그롯이 손에 검을 쥔 채로 서서 이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시그롯이 내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나는 그 순간을 영원히 남기고 싶었다.

사흘 동안 진행되는 황실 대귀족회의의 첫날은 대개 각 지방에 흩어져 살던 귀족들이 무거운 엉덩이를 끌고 온 김에 이런저런 요구사항을 늘어놓고 각지의 근황을 보고하는 것으로 지나가곤 했다.

그러나 이번 봄은 이례적이었다. 온통 황태자의 변모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다.

바로 반 년 전에 신수 계약식에서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자살을 시도했던 황태자 시그롯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뒤로부터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

“클라리스.”

문 앞에 나타난 남자가 마찬가지로 함께 서 있는 드레스 차림의 여성에게 말을 걸었다.

“공적인 곳에서 이름으로 부르지 말게, 피아젤 던칸 후작.”

“자네도 똑같이 하고 있지 않나.”

“나는 성과 작위를 붙였지.”

“알았네! 알았어! 클라리스 오르카 후작!”

오르카 후작이 인사해 오는 던칸 후작을 보고 어깨를 으쓱였다. 40년 지기 소꿉친구이자 지금은 귀족회에서 한 자리씩 하는 두 사람이었으나 한 쪽은 문관이고 한 쪽은 기사라 사고방식이 잘 맞는 편은 아니었기에 살가운 분위기는 아니었다.

“그나저나 황태자 전하를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해 놓고 이제 와서 생각이 바뀌다니 놀랍군. 설마 신수를 맹신하는 백기사단장 오르카 후작께서 신수 없는 황태자를 옹호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네.”

“라메라스 님을 함부로 말하지 말게.”

“오르카 후작님, 던칸 후작님, 폐하께서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시종이 문을 열고 고하자 으르렁거리던 두 사람의 태도가 변했다. 조금 전까지와는 달리 깍듯한 태도로 안에 들어선 오르카 후작이 먼저 황제와, 그 옆에 있는 무언가를 보고 허리를 숙였다.

“풍요로운 제국의 어버이이신 황제 폐하, 그리고 신수 라메라스 님을 뵙습니다.”

방에 누워 거대한 짐승의 털을 쓰다듬고 있던 황제가 고개를 들었다.

황제의 허가 없이 들어올 수 없는 이 신수궁은 특별한 날이 아니면 좀처럼 사람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신수 라메라스가 거주하는 곳이기도 했다. 그렇기에 신수가 이 궁에서 하는 일이 나라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먹고 자고 쌀 뿐이라는 걸 아는 사람도 매우 극소수였다.

“둘 다 마침 좋은 때 왔군. 이븐, 마저 보고해라.”

그림자 속에서 걸어 나온 남자를 보자 오르카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오러가 아니었으면 구분하기 어려웠을 정도로 존재감이 옅은 청년이었다. 깔끔하게 묶은 장발에 키는 남자 치고는 다소 작은 편이었고, 아무 장식 없는 시커먼 제복의 어깨에는 황제 직속 정보부의 표식이 그려져 있었다.

“반년을 지켜본 결과 서민하가 누군가와 내통하는 기색은 아직 없습니다.”

이븐이라고 불린 청년의 입술이 열렸다.

“특이한 마도구 같은 것을 들고 다니며 종교 활동이라는 이름하에 유심히 쳐다보거나 말을 거는 등의 기행을 합니다. 가끔은 어딘가 다른 세계의 존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혼잣말을 하더군요. 출신은 동대륙으로 추정되나 자세히 보면 그들과는 인종이 다르며, 정보부 전원을 동원해도 그 자가 어디서 나타났는지는 결국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어디서 왔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말인가.”

황제가 미간을 찌푸리며 이마를 짚었다. 원래대로라면 특별 면책권이 있었다고는 하나 출신도 정체도 알 수 없는 자를 황태자의 곁에 붙여 둔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서민하는 황궁에서 순진한 황태자를 꼬드긴 그의 정부로 통했다. 성격도 어지간한지 황태자의 시종들을 쥐 잡듯이 잡았고, 알고 보니 황족인 폴린스의 얼굴에는 진짜로 쥐를 던졌다는 소문마저 돌았다. 최근 황궁 안에서는 셋만 모이면 어김없이 ‘그 여자’를 까 내리기에 바빴다. 누구래? 시그롯 전하 애인이래. 전하가 미쳐서 평민 여자한테 성 한 채 값으로 여우 털 케이프를 해줬다던데?

그러나 문제는 바로 그것 때문에 시그롯의 존재감이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시그롯을 폐위시키려면 그가 반년 전까지처럼 있는 듯 없는 듯 살아있어야 했는데, ‘그 여자’가 설치는 바람에 좋든 나쁘든 눈에 띄고 말았다.

황제는 처음에 그 사실이 달갑지 않았다. 신수에게 선택도 받지 못한데다 자살시도까지 한 부끄러운 아들이 주목받아봤자 황실의 수치만 될 뿐이라 여겼다. 분명 본인에게도 부담스러울 테니 차라리 황태자 지위를 해제하고 영지를 하나 주어 조용히 살게 하는 게 아들을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설마하니 돌아온 결과가 정반대일 줄이야.

“혹 흑마법사일 가능성은 없는가? 들려오는 말로는 수업시간도 빼면서 그 자와 놀고 있을 뿐이라는데 어째서 시그롯의 인기가 늘고만 있느냐?”

“두 분은 주로 같이 계실 때 게임을 하거나 다과를 즐기십니다. 마법사를 위장시켜 가까이에 두어 보기도 했습니다만 마력을 전혀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오르카 경, 경의 생각은 어떤가?”

답답한 듯 신수의 털을 쓰다듬고 있던 황제가 별안간 오르카 후작을 돌아보며 물었다. 이미 던칸 후작의 앞에서 황태자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던 그다. 하지만 성과를 내었다고 하여 신수 없는 황태자의 지위를 이대로 유지한다면 귀족회의 반발이 클 게 분명했다.

그래서 귀족회를 이끄는 두 사람을 이 자리에 부른 것이었다. 던칸과 오르카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오르카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황제를 향해 허리를 숙였다. 황태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건은 대귀족회의 자리에서 논해야 할 일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바로 이 자리에서 결정될 터였다.

“신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국의 절대자인 황제와 신수가 있는 이 신수궁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오르카 경이 그 날 내게 이상한 옷을 입힌 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이 틀림없었다. 일 년에 두 번뿐인 대귀족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황제를 포함해 온 제국의 귀족들이 수도로 올라와 있었으니까.

나는 대귀족회의가 이어지는 사흘 동안을 내내 가시방석으로 보냈다. 결투 결과는 좋았지만 그것만으로 시그롯이 황궁에 남을 수 있을 거라는 건 지나치게 낙관적인 생각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절차가 끝나는 사흘째 저녁.

결과가 나왔다.

“어떻게 됐어?”

복도에서 내내 대귀족회의 결과를 알아오라고 보낸 리브를 기다리던 나는, 그가 나타나자마자 붙잡고 재빨리 방 안으로 밀어 넣었다.

“유지? 폐위?”

“유지로 결정되었습니다.”

“진짜로?”

내가 다시 한 번 묻자 리브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고 있던 서신을 내밀었다. 나는 이 세계에서 까막눈이라 글자를 알아볼 수 없었지만 이어폰을 끼자 아리가 대신 문장을 읽어 주었다.

-1황자 시그롯 카르스트라드 이반 멜프라우의 황태자 지위를 유지한다.-

긴장한 얼굴로 문장을 여러 번 다시 보았다. 뒤늦게 찌르르 하는 쾌감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다.

시그롯이 신수안을 가지고 있는 폴린스를 제치다니!

나는 주머니 속의 아리를 쥐었다 폈다 하면서 저절로 벌어지려는 입을 가렸다. 야, 차원의 신수야. 보고 있냐? 보고 있냐고.

흑마법사 없이도 시그롯이 황태자로 남을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 그가 원작대로 마수안 같은 것에 손을 대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쓴 악플대로 수술에 실패해 목숨이 위험해질 가능성도 사라지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니 당장 춤이라도 추고 싶은 기분이었지만, 일단 겉으로는 침착한 척 하기로 했다.

“당연히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어제까지 전하가 폐위되면 어쩌냐고 시골 내려가 살 계획을 짜시던 분 같지 않군요.”

“그러게. 널 감시역으로 데려가서 밭이나 갈게 시켰어야 했는데 아깝다.”

리브가 노골적으로 짜증난다는 표정을 짓자 나는 더 기분이 좋아졌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시그롯은?”

“원래 여기로 가장 먼저 오려고 하셨지만 바로 연회에 참석하셔야 해서 그 쪽에 계십니다.”

“연회?”

“대귀족회의가 끝나는 사흘째 저녁에는 항상 연회가 있습니다. 전하의 황태자 지위가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된 이상, 오늘은 지방귀족들과 안면을 터야 하는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그러고 보니 그랬었다. 며칠 전에도 들었었는데 어차피 폐위되면 연회고 뭐고 줄초상 분위기일 게 뻔하니 잊어버리고 있었나 보다.

대귀족회의가 있는 사흘이 끝나면 손님들을 보내기 전에 황제가 여는 성대한 연회가 있었다. 황제의 생일 같은 국가적인 행사를 제외하면 전 제국에 흩어진 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몇 안 되는 날이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이제까지는 신수가 없는 황자로 무시당하던 시그롯이 처음으로 혼자 힘으로 인정받는 첫날이다. 생각하니 중요할 수밖에 없는 날이었다.

“가시겠습니까?”

괜찮을까? 그 어린애가 잘하고 있을지 걱정되기는 했다. 하지만….

“아냐, 중요한 자리까지 내가 껴들 수는 없지.”

“당연히 가시는 걸로 알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만.”

“왜, 낄 데 안 낄 데 구분 안하고 설치다가 이제 와서 빼니까 놀라워?”

볼멘소리를 하자 리브가 반박하는 대신 입을 다물었다. 가식이라도 떨 것이지.

“오늘 시그롯이 황태자로서 귀족들에게 보이는 인상이 중요하다며. 내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이전까지야 하도 시그롯이 주목을 못 받고 무시당했으니 내가 설쳐서 노이즈 마케팅이라도 되도록 한 거지만, 대귀족회의에서 인정받고 잘 나가기 시작할 지금은 오히려 내 존재가 독이 될 게 뻔했다.

성에서 도는 소문을 종합해 봤을 때, 내 포지션은 황태자를 꼬드겨 타락시킨 주범이었다. 황족이나, 하다못해 귀족도 아니면서 황태자를 이름으로 부르고 반말을 하며 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드니까. 나는 그 태도를 이 세계에 처음 왔을 때부터 줄곧 고칠 생각이 없었다. 당사자인 시그롯이 뭐라고 하지 않는 이상 그건 내 권력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

하지만 남들 시선은 다르다. 내가 시그롯이 황태자로 남는다는 말에 좋다고 연회에 나갔다간 그를 헐뜯으려는 폴린스 지지파 같은 자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될 뿐이었다.

할 만큼 했으니 이제부턴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꿀 빠는 게 제일이지. 시그롯에게는 나를 내치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아두었으니 겉으로 보일 때 좀 거리를 둬도 상관없을 터였다.

“리브, 나 대신 네가 가서 시그롯을 지켜보고….”

그런데 리브 쟤는 아까부터 표정이 왜 저래?

“가십시오.”

“응?”

내가 의아하게 반문하자 리브가 내 쪽으로 다가오더니 고개를 숙였다. 분명 나의 착각이겠지만 왠지 비운의 여주인공을 보는 양 안타까워 보이는 모습이었다.

“인상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으응?”

이 자식이 갑자기 왜 마음에도 없을 소리를 하지?

‘황제가 시켰나? 날 연회에 보내라고?’

리브의 의중이 의심스러웠지만 내심 나도 시그롯을 보고 싶기도 했다. 날짜 상으로는 겨우 사흘 정도였지만 최근 워낙 자주 봐서 그런지 허전했던 것이다.

‘사진만 보는 것도 좀 궁상맞은데, 얼굴만 보고 올까?’

멀찍이서 뭐하는지 정도만 보고 돌아온다던지….

한 번 스스로를 납득시키니 일은 일사천리였다. 나는 리브가 내민 드레스 대신 단순한 옷(단순하다고 해도 파티용이 아닐 뿐이지 여기 옷은 다 드레스였다.)에 케이프만 걸치고 연회에 참가하기로 했다. 지난번처럼 오르카 경이 보낸 교황님 같은 옷은 소름 돋지만 그래도 여기서 성직자인 척 하고 있는 이상 사이비라도 종교인 비슷하게는 입어야지 싶어서였다.

황궁의 처음 보는 곳까지 나와서 연회장 문 앞에 서자 접수를 맡고 있는 듯한 시종이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겉옷을 이리 주십시오.”

“괜찮아. 금방 나갈 테니.”

이름을 대지 않아도 들여보내주는 걸 보면 내가 제법 성 안에서 악명이 높긴 한 모양이었다.

연회장은 온통 시그롯이 좋아하는 하얀 장미로 장식되어 있었다. 잔잔한 음악소리와 함께 풍기는 꽃향기가 감각을 자극했다. 온 제국의 귀족들이 모였다는 게 과장은 아닌지, 잘 차려입은 서양인 비슷한 외모의 사람들이 넓은 홀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영화 촬영장 온 거 같아.’

시그롯은 어차피 일부러 찾지 않아도 눈에 띌 테니 나는 술이나 마실 요량으로 근처 테이블로 다가갔다.

전에 듀렌 오르카를 낚으러 선술집에 드나들 때 마셨던 평범한 술들도 좋았지만(평범하지 않은 술이 하나 껴 있었던 건 잊도록 하자.), 역시 황실 와인창고에서 대방출되는 귀한 포도주를 놓칠 수는 없었다.

‘소설 속 술을 마셔볼 기회가 어디 있겠어? 아, 돌아가서 어디 자랑 못 하는 게 한이다.’

라벨만이라도 기념으로 찍어갈까? 아쉬운 마음으로 폰을 만지작대고 있는데, 주변에서 묘한 시선들이 느껴졌다.

‘왠지 다 날 쳐다보는 것 같은데.’

조금 전까지 저들끼리 어울리던 사람들이 힐끔힐끔 이쪽을 보고 있었다.

진짜 내 악명 때문인가? 자의식 과잉이려나? 하긴 쳐다만 봐서 뭘 어쩔 거야. 시선을 무시하려고 생각하며 잔으로 손을 뻗던 내 옆으로 누군가가 다가왔다.

“서민하 님이세요?”

처음 보는 귀족 여성이었다.

“네.”

“황태자 전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전하께서 제 신세를 지고 계시긴 하죠.”

함께 한다는 말이 좀 이상한 뉘앙스로 들렸지만 그냥 적당히 대답했다. 그러자 여자가 ‘세상에!’라고 말하며 부채를 펼쳐 입가를 가렸다.

허튼 소리를 하면 나도 뭐라고 해줄 생각으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별안간 그녀가 얼굴을 붉히며 감탄사를 내질렀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역시 신수의 사제시라는 말이 사실이군요!”

네?

“직접 뵙게 되어 영광이에요! 부디 저에게도 전하께 해주신 축복을 내려 주시겠어요?”

“……네?”

순간 당황하여 말문을 잃어버렸다.

“온 제도에 소문이 벌써 자자하답니다. 황태자 전하께서 최근 반 년 동안 몰라보게 성장하신 건 신수 계약식 날에 나타나신 민하 님께서 신수의 힘을 발휘하신 덕분이라고요.”

“신수…의 힘이요?”

“역대 황태자 전하들께선 모두 신수와 계약하시고 나서부터 특별한 능력을 얻으셨대요. 하지만 시그롯 전하께서 신수안을 갖고 태어나지 못하셨기 때문에 신수님께서 대신 사제님을 내려주신 거라면서요?”

온통 처음 듣는 소리뿐이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 말들이 놀랍게도 딱히 틀리지 않다는 데 있었다.

‘신수 계약식? 생각해보니 내가 그 날에 오긴 했네?’

그녀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건 분명했다. 하지만 딱히 부정할 만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내가 신수인 아리와 함께 있는 것도 사실이었고 사제인 척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으니까. 시그롯을 바꿔놓았다는 것도 원작 루트에서 벗어나게 했으니 어떤 의미로 사실이기는 했다.

분명 다 맞는 말인데… 왜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지?

“잘못 알고 계시네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어쩜! 겸손하시기까지! 하지만 이미 다 들었답니다. 일부러 못된 흉내를 내어 엄격한 말씀으로 전하의 주변을 꾸짖으시고 깨달음을 주셨다고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인데…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신수가 아니라….”

나는 손사래를 치며 연회장 구석으로 자리를 피하려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 인파에서 멀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쪽으로 몰려오기 시작했다.

“사제님, 부디 손을 한 번만 잡아 주십시오.”

“신수님께 평소 어떤 말씀을 들으십니까?”

“이번 대 신수이신 라메라스 님은 신수궁에만 계셔 직접 뵐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사제님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접하니 꿈만 같습니다!”

선망의 시선들이 부담스럽게 꽂히자 내 머릿속은 그야말로 새하얘졌다. 이런 상황을 각오하고 연회장에 들어온 건 결코 아니었다. 마녀라고 수군거리며 욕하는 상황은 세 자릿수 넘게 상상해봤지만 설마하니 떠받들어지는 상황이라니?

소문이 있다면 분명 출처도 있을 것이다. 도대체 누가 날 신수의 사제라고 퍼트렸을까? 바로 떠오르는 얼굴은 그 마귀 할망구…가 아니라 오르카 경이었다. 어쩐지 결투 날에 이상한 옷을 입힌다 했지!

어쨌든 오해를 빨리 풀어야겠다. 이대로라면 오글거려서 손발이 터질지도 몰랐다.

어떻게 해야 이제까지 유지한 컨셉을 망치지 않고 변명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이건 아리와 상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주목받는 상황에선 핸드폰을 켜기도 난감했다.

빠져나가기부터 해야겠는데. 그렇게 머리를 굴리고 있을 때였다.

“무례한 언동들을 삼가도록 하라.”

갑자기 녹색 천 같은 것에 시야가 가려졌다.

자세히 보니 초록색 망토였다.

나는 내 시야를 가리고 선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고급스러운 예복을 입은 시그롯이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을 보고 있다가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모습을 본 순간 나는 방금 전까지 느끼고 있던 감상을 전면 수정했다.

조금 전까지는 영화 촬영장에서 나 혼자 엑스트라로 배우들과 함께 있는 기분이었는데.

‘시그롯에 비하면 다 엑스트라였어.’

그 정도로 그는 지금 근사했다. 깜빡 열여섯 살 짜리라는 걸 잊을 정도로.

“미안하다, 민하. 미리 사람을 보내어 네가 오는 길을 각별히 신경 썼어야 했는데. 미처 예비하지 못한 나의 불찰이다. 용서해 주지 않겠나?”

“시그롯… 아니, 황태자 전하.”

나는 넋을 놓고 평소처럼 그를 부르려다 재빨리 호칭을 정정했다. 아무리 그래도 귀족들 다 보는 연회장에서까지 그를 친구처럼 부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자 시그롯은 의아한 눈으로 나를 보다가 곧 눈매를 접으며 웃어 보였다. 조금 전까지는 약간 차가운 얼굴을 하고 있어 다른 사람 같았는데, 웃으니까 내가 며칠 전까지 알던 시그롯이 맞았다.

“이런 자리라고 해서 내게 격식을 차릴 필요는 없다.”

“그래도 때와 장소라는 게….”

“얼굴이 피곤해보여 걱정되는구나. 휴식을 취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가 내 손을 살짝 잡아오며 말했다.

지금 들어왔는데 쉬라니 무슨 말이야? 생각하던 나는 불현 듯 눈치 챘다. 아무래도 시그롯은 내 상황을 보고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모양이었다.

“어? 어, 어… 그러게? 사람이 많아서 좀 피곤…한 거 같기도?”

“역시 그렇구나. 마침 나도 쉬려는 참이었으니 따라 오거라.”

시그롯이 나를 연회장 한 쪽으로 이끌었다. 황태자가 직접 움직이는 데다 방금 전에 그가 했던 말 때문인지 누구도 우리가 가는 길을 감히 방해하지 않았다.

하지만 꽂히는 시선은 여전했다. 아니, 오히려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았다.

오늘 연회 주인공은 시그롯 아닌가? 생각해 보니 얘랑 함께 있으면 오히려 역효과만 날 것 같았다.

하지만 내가 걱정을 하든 말든 시그롯의 걸음걸이에는 막힘이 없었다. 우리는 어느 새 연회장을 빠져나와 발코니로 나와 있었다. 회장 안과는 달리 발코니에는 사람이 없었는데, 시그롯이 문을 지키던 시종에게 뭐라고 긔띔하자 그가 발코니의 문을 걸어 잠갔다.

저러면 우리 말고는 아무도 여기로 나오지 못할 텐데.

‘멀리서 잠깐 보고 가기만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담.’

적당히 그와 손을 놓을 타이밍을 계산하고 있던 나는 아까부터 느껴지는 시선을 뒤늦게 눈치 채고 고개를 들었다.

시그롯이 나를 빤히 보고 있었다.

“한 잔 하자.”

한쪽 손에 술병을 들고서.

“……지금 술 마시자는 거야?”

“그래.”

시그롯이 빙그레 웃으며 직접 병을 따고 내게 잔을 내밀었다.

“네 나이에 무슨 술이야?”

“이상한 말을 하는구나. 술은 황족에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교 수단이다. 멜프라우의 황위후계자는 여덟 살부터 교사를 들여 술을 배우지.”

“뭐, 여덟 살?”

내 눈이 크게 벌어졌다. 소설에선 읽은 적 없는 사실이었다.

시그롯은 놀란 내게 술잔을 쥐어주며 슬쩍 헛기침을 했다.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왠지 뿌듯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건강도 물론 황실 의사가 신경 쓰고 있다. 네가 걱정할 만한 일은 없어.”

“야, 술 냄새 나는데 너 벌써 좀 마셨지.”

“말했지 않나. 술은 중요한 사교 수단이라고. 오늘 만나는 사람이 전부 술을 권했다.”

“얼마나 마신 거야?”

얼굴은 전혀 취한 것 같지 않은데 시그롯에게서 포도주 냄새가 풍겼다. 티는 안 나지만 아무래도 꽤 마신 게 분명했다.

“내놔.”

손을 뻗자 그가 내 손을 피해 잔을 높게 들었다.

“싫어.”

장난감을 조르는 아이 같은 눈빛이었다.

나는 그를 쳐다보다가 문득 웃음이 나왔다. 오랫동안 황궁에서 무시당하고도 자살시도를 하기까지 힘든 티 하나 내지 않았던 시그롯이 ‘싫다’고 말하는 게 왠지 기특해서였다.

“따라줘.”

그래서일까? 나는 어느 새 그에게 잔을 내밀고 있었다.

“좋은 날인데 한 잔 해야지.”

시그롯이 놀란 얼굴로 이 쪽을 보았다. 자기가 권해놓고 왜 놀라는 건지 모를 반응이었다. 하지만 그는 내가 손을 도로 거두는 시늉을 하자 서둘러 병을 기울여 내 잔을 채워 주었다.

둘뿐이라서 조금 뻘쭘하기는 했지만 술자리 분위기를 무르익게 하는 건 내 특기 중 하나였다.

“축하드립니다. 황태자 전하!”

나는 과장되게 외치며 그와 잔을 맞부딪쳤다. 기왕 마시기로 했으니 한 입으로 두 말은 할 수 없지 않겠는가?

비싼 와인이 목구멍 안으로 들어가자 생명수가 들어가는 것처럼 기분이 좋아졌다.

와, 여기 술 진짜 괜찮은데?

“한 잔 더!”

잔을 다시 내밀자 시그롯이 농담조로 되물었다.

“간 건강을 생각해야지, 민하.”

“여기서 그 얘길 꺼내는 게 어디 있어?”

“너도 나도 사람인데 몸 구조는 똑같지 않겠느냐?”

“좋은 날에 마시는 건 괜찮아.”

맞은편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금세 잔이 다시 와인으로 채워졌다.

“이거 확 오는데. 도수 좀 있는 것 같아.”

“술에 약한 편인가?”

“세거든?”

“음식을 함께 먹으면 좀 괜찮을 거다.”

입 안으로 뭔가가 쏙 들어왔다. 우물거리자 얇게 썬 햄과 야채가 소스와 함께 입 안에서 살살 녹았다.

황태자 전하가 떠먹여주시는 안주를 열심히 소화하고 있던 내 귀에 나직한 목소리가 들렸다.

“널 보고 싶었다.”

시그롯이 들고 있던 잔의 가장자리를 버릇처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제도 어제도 만나고 싶었어. 낮에는 시간이 안 되어 밤에 찾아가려고 했는데, 너를 보면 마음이 해이해질까봐 그러지 못했다.”

원래대로라면 한참 전에 탁해졌어야 할 초록색 눈동자가 보석처럼 달빛을 담아 눈부시게 보였다.

“민하.”

그 때 그가 내게 한 발짝 가까이 다가왔다. 아름다운 소년의 얼굴이 가까워지니 문득 묘하게 현실감이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영화 스크린을 보는 것처럼, 아니면 미술관의 예술적인 그림을 보는 것처럼, 그것도 아니면… 마치 소설 속의 한 장면을 읽는 것 같기도 했다.

미지근한 숨결이 뺨에 닿았다. 시그롯이 내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나와 한 약속을 지켜주지 않겠느냐?”

약속이라고?

그러고 보니 몇 달 전에 시그롯과 약속한 게 있기는 했다. 뭐였더라? 기억을 떠올리며 한참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나와 가까이 다가붙어 있던 시그롯이 고개를 들었다.

“나는 약속대로 너를 저버리지 않고 앞으로 계속 내 곁에 두려고 한다. 네가 내게 그렇게 해 달라 바랐던 대로 말이야.”

“내가?”

“벌써 잊어버렸느냐? 내게 잘 되더라도 너를 모른 체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

시그롯이 한 말에 그제야 기억이 났다. 선술집에서 독한 술을 먹고 한 방에 기절했을 때 왜 자기를 위해 그렇게까지 하냐는 시그롯의 질문에 했던 대답이었다.

그가 날 알아서 가까이에 둬 준다면 사망플래그를 꺾기 위해 일부러 시그롯의 주변을 얼쩡거리지 않아도 되니까. 딴에는 나름대로 필요해서 한 말이긴 했는데….

“나는 너와 했던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데.”

“어어….”

“그러니… 너도 지켜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뭔가 해줘야 할 것 같은 몽글몽글한 분위기는 뭐지?

나는 시그롯의 낯을 살폈다. 연회장의 불빛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의 밀가루처럼 말간 얼굴이 약간 상기되어 있었다.

이 분위기 왠지 낯설지 않은데. 학생 때 봉사활동으로 다니던 어린이집 꼬마애가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쥐고 쭈뼛거리면서 짓던 표정이 불현듯 떠올랐다.

‘귀엽다.’

제국의 지고한 황태자에게 다섯 살 꼬마를 겹쳐보던 나는 문득 시그롯을 괴롭혀 주고 싶다고 생각했다.

“약속 기억하지. 너한테 주기로 한 보상 말이지?”

나는 일부러 고약하게 웃으며 되물었다.

“그런데 분명 말하고 싶어질 때 말하라고 하지 않았나?”

“아….”

“본인이 말씀하셔놓고 이렇게 대놓고 요구해도 되는 건가 몰라?”

짐짓 심술궂게 말하자 시그롯의 눈이 벌어졌다. 그도 그제야 자기가 했던 정확한 말이 생각난 모양이었다.

‘네가 나에게 보상을 주지 않겠느냐?’

진지한 얼굴로 했던 말 뒤에 그는 분명 한 마디를 더 덧붙였었다.

‘지금은 안 돼. 네가 말하고 싶어질 때 해다오.’

“아, 아, 그건, 저기…!”

허를 찔리자 시그롯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다. 만지면 그대로 터질 것 같을 정도로.

“미안하다! 물론 네가 좋을 때에 그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그 동안 혼자 너무 많이 생각하는 바람에, 더 기다리지 못해서….”

“…….”

“내 불찰이다. 저기, 내가 너무 자만했다.”

“시그롯.”

나는 횡설수설하는 시그롯에게 손가락을 까딱까딱해 보였다.

“고개 숙여봐.”

그가 당황한 얼굴로 날 쳐다보았다. 나는 손가락을 앞으로 구부리면서 “어서.”라고 다시 덧붙였다. 아무래도 술을 좀 많이 마셨나? 들떠서 그런지 평소라면 안 할 법한 행동이 잘도 나왔다.

머뭇거리던 시그롯은 내가 손을 거두려 하자 재빨리 내 앞으로 고개를 가까이 했다. 얌전한 강아지처럼 슬슬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니 솔직히 좀 귀여웠다.

나는 그대로 손을 뻗어 그의 머리를 안았다.

“잘했어.”

아, 본가에 놓고 온 우리 집 강아지 생각난다.

머리카락을 슬슬 쓰다듬자 미세하게 떨리던 시그롯의 몸이 번개라도 맞은 것처럼 우뚝 멈췄다. 사락사락하는 금색 머릿결이 뺨에 닿자 기분이 무척 좋아졌다.

“엄청 잘했어. 기특해. 아주아주.”

만지다 보니 엄청 부드러운걸? 나는 계속 사심을 담아 시그롯의 머리를 쓰다듬어 보았다. 마음 같아서는 애완견에게 하듯 헝클어뜨려주고 싶었지만 연회용으로 힘주어 세팅한 그의 머리 모양을 망가트리고 싶지 않았다.

잘했다.

겨우 그까짓 말이 뭐라고 ‘보상’으로 받고 싶을 만큼 간절했을까. 평범하게 살다보면 그렇게 듣기 힘든 말도 아니고, 게다가 최근 들어서는 귀에 딱지가 박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서 많이 들었을 텐데.

그냥 소설 속 설정이라고 하면 납득하기 쉽겠지만 그렇게 치부하기에 지금 닿는 시그롯의 몸은 따뜻했고, 공기를 타고 스며드는 숨소리는 물 먹은 것처럼 무거웠다.

“……정말인가?”

내 어깨에 고개를 묻고 있어 표정이 보이지 않는 시그롯이 한참을 침묵하다 물었다. 그 모습이 응석을 부리는 것 같아서 웃음이 나왔다.

“나 원래 아무한테나 좋은 말 안 해준다? 내 성격 안 좋은 거 알지? 이건 네가 정말 잘해서 하는 말이야.”

“…….”

“잘했어, 시그롯. 오늘은 네가 최고야.”

“오늘만?”

“내일은 또 내일 잘하셔야지. 황자님, 인생은 날로 먹을 수가 없어요.”

목덜미 언저리에서 그가 조심스레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몸이 아까부터 계속 딱딱하게 굳어있는 걸 봐서는 잔뜩 긴장한 모양이었다.

늘 남의 눈을 신경 써야 하는 황태자라서 그럴까?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나랑 있을 때 정도는 좀 편하게 있어도 괜찮을 텐데 말이다.

“그럼 내가 내일도 잘한다면, 또 네가 내일 나를 칭찬해 줄 건가?”

가만, 말이 그렇게 되나?

“아마도?”

“그럼 모레도?”

“너 나하고 지금 라임 맞추니?”

“앞으로도?”

“이게 자꾸 기어오르네.”

나는 웃으며 시그롯에게서 떨어지려 했다. 하지만 시그롯은 밀려나지 않고 고개를 들어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네가 원하는 거라면 가능한 한 무엇이든지 해 주겠다.”

깜짝이야. 얘가 뭐라는 거야?

“대신에 가끔 나를 칭찬해 주지 않겠느냐?”

“…….”

“많이는 바라지 않을 테니까….”

큰일 날 소리 하네. 내가 진짜로 나라를 말아먹으라고 하면 대체 어쩌려고?

어이가 없어 시그롯을 보자 그의 풀잎 같은 녹색 눈동자가 조심스레 가늘어졌다.

너는 대체 뭐가 부족해서 내 칭찬을 듣고 싶니? 물론 황태자로 살면서 앞으로 편한 일만 있진 않겠지만 이제 폐위될 걱정도 없고, 그토록 받고 싶었을 황제와 오르카 경의 인정도 받았고. 얼굴도 이만하면 아주 잘생기게 클 거고.

그러니까 이제 나 말고도 칭찬해줄 사람은 잔뜩 있을 텐데.

역시 악당이 되기 전 시그롯은 착하고 호구 같은 캐릭터인 게 분명했다. 그러니 참고 참다 터져서 원작의 그 진상이 되었겠지. 악당이 되지 않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이 호구 기질만은 내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어떻게 좀 해줘야 할 것 같다.

‘하지만 그 전에 내가 이용 좀 하고.’

기왕 내 말을 듣겠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 앞으로 꺾어야 할 사망플래그가 구십 개가 넘는데 편법을 안 쓰는 게 바보지.

“그럼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 하지 마. 네가 당했거나 당할 것 같을 때만 똑같이 갚아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나 알겠다.”

“음, 그리고 이제 술은 하루에 한 잔만 마시고.”

“그러마. 내일부터 폐하께 말씀드리도록 하지.”

“이상하게 웃지 말고.”

“혹시 내가 웃는 게 보기 이상한가?”

“한 번 볼까? 웃어봐.”

내 말에 연신 고개를 주억거리던 시그롯이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더니 몇 번 입술을 양쪽 위로 끌어올리는 시늉을 하다가 낙담한 듯이 고개를 숙였다.

“일부러 웃으려니 어렵구나.”

무심코 웃을 뻔했다. 귀여워서.

“뭐가 어려워? 나처럼 해.”

나는 시그롯을 향해 부러 입을 벌리고 활짝 웃었다. 유치원부터 학창시절을 거쳐 직장까지 ‘네가 밝게 웃으면 공포감부터 든다.’는 평을 꾸준히 받아온 악마의 미소였지만, 그건 내가 나처럼 생겨서 그런 거고 시그롯이 똑같이 하면 분명 예쁠 것이다.

그러자 시그롯이 숨조차 쉬지 않고 입을 다물었다. 아까부터 점점 짙어지던 얼굴의 붉은 홍조가 이제 목까지 내려와 있었다. 진짜 무서워서 그런가? 어린애한테 너무 공포심을 줬나? 하지만 그런다고 안 할 내가 아니지.

웃기지 못할 거면 울리기라도 할 테다. 나는 시그롯을 괴롭힐 작정으로 노선을 바꿔 계속 히죽거리며 웃었다. 그러는 동안 시그롯은 나와 시선조차 맞추지 못하고 눈을 연신 피했다가, 결국 졌다는 듯이 입술 끝을 올려 웃어 주었다.

“잘했어.”

아, 방금 사진으로 찍어놨어야 하는 얼굴이었는데.

술 때문인지 그만 눈꺼풀이 무거워진다.

“착하다. 착해.”

나는 핸드폰을 쥐는 대신 손을 뻗어 다시 시그롯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가 집에 가면 얘는 어쩌지. 누가 머리도 쓰다듬고 밥도 같이 먹고 잘했다고 칭찬도 해줘야 할 텐데.

아무래도 가기 전까지 7년 동안 친구를 많이 만들어줘야 할 것 같다.

안정적으로 목숨의 위기를 막으려면 충실한 심복도 필요할 테고.

결혼도 하려나? 그러고 보니 원작에서는 내내 칼릭스 때문에 여주인공을 괴롭히느라 딱히 다른 여자에 관심이 없어 보였지. 기왕 원작 노선도 바뀌었으니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소설 밖으로 돌아간 뒤에도 네가 이렇게 웃었으면 좋겠어.

연회가 무르익은 밤이었다. 사라진 뒤 한참이 지나서야 나타난 황태자는 잠든 여자를 품에 안고 있었다.

이 자리의 호스트이자 주인공인 그는 원래 연회가 진행되는 내내 계속해서 얼굴을 내밀어야 하는 몸이었다. 설령 연인이나 약혼자라고 해도 단 둘이서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는 건 연회에 초대받은 손님들에게 실례되는 행동이었다.

그러나 모든 암묵적인 규칙이 그러하듯이 예외는 있었다.

“민하가 술을 많이 마셨더구나. 근처에서 조금 쉬게 하겠다.”

황태자는 시종에게 그렇게만 말했으며 거기에 더 이유를 덧붙이지도 않았다. 시종장이 다가와 그녀를 인도받으려 할 때도 말없이 그녀를 고쳐 안을 뿐이었다.

제국의 지고한 위치에 있는 멜프라우의 황제에게도 낮은 자세로 대하는 유일한 상대가 있다. 바로 그와 운명으로 이어져 있는 신수였다. 황위계승자가 열여섯 살이 되어 계약식을 거행하고 그 자리에서 적합한 신수에게 선택받으면 그 때부터 계약자와 신수는 계약자가 살아있는 한, 평생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시그롯은 시종에게 토마토 스프를 내오라고 한 뒤 민하를 전용 휴게실에 비치된 긴 의자 위로 눕혔다. 그리고는 그녀의 곁에 의자를 빼어 앉아 흐트러져 있는 그녀의 옷자락을 정돈해 주었다.

그런 그를 방해하는 그림자가 있었다.

“기록을 찾아보니 인간 모습의 신수라는 게 존재하기는 하더군요.”

“스승님.”

백기사단장 클라리스 오르카가 깍듯이 허리를 조아리자 황태자가 뒤를 돌아보았다.

“휴식을 방해하는 불충을 용서하십시오, 황태자 전하.”

“상관없습니다.”

황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으나 동시에 놀랍도록 건조했다. 바로 조금 전까지 서민하의 앞에서 수줍게 웃던 소년이라고는 생각되기 힘든 모습이었다.

오르카는 고개를 들어 눈앞에 있는 금발의 황태자를 보았다. 어두운 밤 속에서 더 선명하게 빛나는 금발머리에 질투의 색이라 불리는 녹색 눈동자. 황제와 황후를 거의 닮지 않은 수려한 외모의 청년 주변으로 베일처럼 시커먼 색의 오러가 넘실거리고 있었다.

불행의 신이 축복한다고 일컬어지는 검은 오러.

말로는 ‘상관없다’고 했지만 둘만의 시간을 방해 받아 심기가 불편해지긴 한 모양이었다.

오러를 느끼는 것은 사실 오르카 가문만의 특별한 능력은 아니다. 빼어난 실력을 가진 자가 기척에 예민해지고 눈빛만 봐도 살의를 감지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달하는 경지에 가까웠다.

물론 그 경지의 기준이 매우 높기는 했다. 지금 오르카 가문에서 오러를 보는 사람은 가주인 클라리스와 막내인 듀렌 뿐이었다. 아직 어려서 철이 없는 아들이기는 하였으나 듀렌은 형제들 중 제일가는 소질을 가지고 있었다.

오르카는 듀렌이 처음으로 황제궁에서 열리는 연회에 나가 시그롯의 오러를 보았던 날을 기억했다.

"황제 폐하께 당장 말씀드려야 합니다!"

어린 듀렌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저 자가 황태자가 아니라 괴물이라는 사실을 왜 알리지 않으십니까?"

오러란 자라면서 악행과 악의가 쌓이며 조금씩 오염되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누구나 처음에는 아기처럼 맑고 투명한 오러를 지니고 태어난다.

하지만 시그롯의 오러는 태어날 때부터 어두운 상태였다.

오르카는 그것을 황제에게 말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홀로 숨겼다. 처음부터 검은 오러로 태어나는 경우는 평생에 한 번 볼까 말까할 정도로 적었다. 뼛속까지 무인인 그녀는 충성하는 주군의 아들인 황태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알지 못했다.

황제의 핏줄을 이은 유일한 후계자인 황태자가 지금은 아니더라도 장차 폭군이 될 가능성을 타고났다는 사실을 예언자도 아닌 그녀가 어떻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충언이랍시고 잘못 입에 올리기라도 했다간 오히려 황가를 기만하는 꼴이 되어 가문이 멸문될지 모르는 일이다.

날 때부터 검은 오러를 가진 자들은 타고난 악인으로 불렸다. 속어로는 ‘불행의 신이 축복한다’고 표현했다.

그들은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희박했으며, 오로지 스스로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고 죄를 저지르더라도 죄책감을 거의 가지지 않았다. 겉으로는 유순한 성격을 가졌다 해도 그들은 계기만 있으면 어김없이 악행을 저지르곤 했다.

엄밀히 말해 그들이 정말로 악인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신은 반드시 악에게 약점을 예비한다. 악은 항상 선보다 성실하기에.>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멜프라우에 전해져 내려오는 그 속담의 진짜 의미는 ‘선은 지키기 어렵고 악은 항상 달콤하여 성실하게 마음을 유혹하니, 선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늘 악을 경계하고 약점을 만들어 몰아내야 한다.’는 뜻이었다.

선악이 모호한 자는 반드시 악으로 기울어진다. 악이 훨씬 편하고 살아남기에 좋기 때문이다.

그리고 악으로 기울어진 자가 강력한 힘을 가진 권력자일수록 그 영향력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마련이었다.

이번 대의 황태자에게는 신수안이 없다. 그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불안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자칫하면 황위를 빼앗기고 다음 대 황제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짓밟힐 위험을 안고 있는 황태자에게 과연 사람 좋고 태평하게 선을 지킬 만한 여유가 남아 있을까?

타고난 약점은 고쳐질 수 없다. 그래서 오르카는 시그롯의 입지를 의도적으로 줄였다. 그의 스승으로 있으면서도 황태자를 방치했다. 차라리 시그롯이 일찍 폐위되어 권력을 손에 쥐지 못하도록 그의 사촌인 폴린스를 지지하려 했으나, 폴린스는 졸렬하고 귀가 얇아 신뢰할 수 없었기에 그조차도 영 마땅치 못했다.

사실 오르카가 좀 더 현명했더라면 그녀는 시그롯의 목을 더 일찍 베어버렸어야 했다. 시그롯을 진작에 처리하지 못한 그 우유부단함이 훗날 그녀와 아들들의 죽음을 불렀기 때문이다.

‘원작’대로라면 지금 이 순간 막내 듀렌만을 남기고 아들들과 함께 관에 들어가 있어야 할 클라리스 오르카는 모르는 새 자신의 운명이 뒤집어졌다는 사실을 짐작조차 하고 있지 못했다.

“신수는 주신의 대리자라 불리며 주신님의 힘을 나누어 받은 신성한 짐승을 뜻합니다. 다만 그 중에 딱 한 번, 인간에 가까운 형상의 신수가 계약식에 소환된 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단 반나절 밖에 현신하지 않았기에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신수는 신수안에 담긴 마력으로 현신한다.>”

시그롯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러나 그 신수는 너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에 반나절 만에 당시에 그를 소환한 황태자의 마력을 전부 먹어치우고 신계로 되돌아갔다.>”

“과연 총명하십니다.”

“저만큼 황궁에서 신수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스승님.”

인간형 신수에 대한 기록은 황실의 치부였기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황실의 서고에 접근할 수 있는 자가 작정하고 찾으면 찾지 못할 것도 없는 기록이었다.

시그롯은 누구보다 간절하게 신수를 갖기 원했던 황태자다. 분명 신수에 대한 기록이란 기록은 전부 긁어모아 읽었으리라.

“스승님께서는 제가 아니라 민하를 시험하셨지요. 듀렌 영식과 결투를 한 사람은 저였지만 역량을 시험당한 건 민하였습니다.”

“전하.”

“처음부터 절 시험하실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시그롯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냉랭했다.

“저를 처음 보셨을 때부터 줄곧 무언가를 체념하고 계셨죠. 저는 그런 눈빛을 아주 잘 구분합니다. 만인이 저를 똑같은 시선으로 보았으니까요. 아무리 우수해도, 아무리 훌륭한 성과를 보이고자 애써도 신수안이 없는 건 노력이나 시험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시선 말입니다.”

늘 착하고 우직했던 황태자 시그롯. 끊임없이 사촌과 비교당하며 수모를 겪어도 군말 없이 혼자 단련에 매진하던 소년. 하지만 끝끝내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금지된 방에서 스스로 독을 마시고 죽고자 했었던 소년.

생각해 보면 당연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묵묵히 괜찮다고 하며 애쓴다고 해서 시그롯이 그녀에게 아무런 원한도 가지지 않았을 리 없었다.

오르카는 늘 이런 상황을 상상하고 있었다. 만일 그가 악으로 기울어졌을 때 가장 먼저 치는 사람은 자신이 될 것이라고. 그녀의 짐작대로 시그롯은 이제 명백히 오르카에게 적의를 드러내고 있었다. 점점 더 짙어지는 오러는 이제 그의 얼굴을 거의 가릴 정도였다.

“으응….”

그 때.

시그롯의 앞에 잠들어 있던 여자가 몸을 뒤척였다.

“민하?”

오르카를 노려보던 황태자의 시선이 그녀에게서 가볍게 떨어져 서민하에게로 향했다.

그리고는 조금 전까지 시커멓게 황태자를 가리고 있던 불온한 오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오르카는 놀라지 않았다. 이미 몇 번이나 보았던 장면이었다. 오러는 본래 상황에 따라 좋을 대로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는 게 아니었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저 두 사람에게는 실제로 일어났다.

처음에는 시그롯의 오러가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다.

그러나 서민하와 떨어지면 황태자의 오러는 다시 되살아났다.

검은 오러가 사라질 수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조차 없었다. 태어날 때부터 점지어진 운명이 어떻게 변할 수 있다는 걸까?

어쩌면 흑마법사의 술수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오르카 자신에게 오러를 구분하지 못하도록 어떤 조치를 취했을지도 모른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오르카는 그 현상을 알아내고자 시그롯과 서민하가 어떻게 지내는지를 면밀히 살폈다.

그리고 아주 어이없는 결론에 도달했다.

‘처음에는 순진하신 전하를 유혹해 한 몫 잡아 보려는 뜨내기라고만 생각했건만.’

오르카가 들어온 서민하에 대한 소문은 악명으로 가득했다. 우연히 황태자의 생명을 구했다는 걸 핑계 삼아 그의 주변을 맴돌고, 태자궁의 시종들을 제 아랫사람인 양 코끝으로 부리고, 어떻게 입을 털었는지 몰라도 황태자의 환심을 사 결국 값비싼 선물을 받아내기까지 했다는 소문.

서민하는 소문대로 하루 종일 황태자의 곁에 붙어 다녔다. 그리고 틈만 나면 그에게 말을 걸고 챙겼으며 주변에 간섭해 댔다.

태자궁의 예산을 늘려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공부는 당분간 하고 싶을 때만 해라.

하나같이 평범하고 사소한 말들이었다.

그간 누구도 시그롯에게 해주지 않았던 말이기도 했다.

“서민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전하의 곁에 있으면 해가 될 수 있기에, 기사단장으로서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요.”

“민하가 성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압니다. 제 환심을 사려 든다고 의심받고 있다는 것도요. 스승님께서 그리 생각하신 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전하의 배려심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결투에서 이기기만 하면 해결될 문제기도 했고 말이야.”

오르카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시그롯은 여전히 잠든 서민하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상하지. 내게 공부와 검술은 아주 어렵고 고단한 벗이었는데, 이걸 잘 하기만 하면 민하가 계속 내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그 다음부터는 별로 어렵지가 않더군.”

그는 오르카를 향하여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말했다.

“나는 경이 나를 무시했던 행동들이 지금도 괘씸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의 도움을 받은 게 사실이고 귀족 중에는 아직 내 편이 적으니, 마음을 조금 너그럽게 먹어 보기로 했지.”

“서민하의 정체가 무엇이든 상관없으십니까?”

오르카는 무심코 그에게 물었다. 사실 그녀는 서민하를 나쁘게 여기고 있지 않았다. 서민하가 황태자에게 취한 태도보다도, 검은 오러를 없애는 그녀의 특수한 능력 때문이었다. 만일 그녀가 있음으로써 시그롯이 악으로 기울어지지 않을 수 있다면, 황실의 충성스러운 기사인 그녀가 황태자를 지지하지 못할 이유도 없었다.

신수 계약식 날 황족 말고는 들어갈 수 없는 금지된 방에 나타났으며 어딜 어떻게 찾아봐도 출신을 알 수 없는 여자. 스스로를 사제로 칭하며 존재만으로 황태자를 변화시키고 좋게 봐보았자 수재 수준이었던 시그롯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한 존재.

의심하고 싶었으나 어딜 어떻게 봐도 역대 황제 앞에 나타났던 신수들의 행보와 같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따로 있었다.

그녀와 함께 있는 황태자는 까칠한 말투와 달리 전혀 오르카에게 적의를 드러내고 있지 않았다. 오러는 티 없이 맑았으며 안정되어 있었고 늘 무언가를 경계하며 딱딱하게 굳어 있던 어깨는 부드럽게 풀려 있었다.

봄날의 해질녘처럼 맑고 안온한 공기만이 그 자리에 있었다.

“전하를 해칠 사람이라고 해도 말입니까?”

그녀의 질문에 황태자가 대답했다.

“나는 황태자로서 달콤한 말을 가장 불신하라고 배웠다. 그 땐 왜 그래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이유를 알겠어.”

그는 자세가 불편한지 계속 뒤척이는 민하를 살피다가, 결국 그녀의 무릎 아래로 팔을 넣고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영락없이 여자에게 빠진 한심한 권력자처럼 보이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좋은데 어찌 속지 않을 수 있겠느냐?”

황궁에서 외면 받으며 애정에 굶주려 온 황태자를 누군가가 달콤한 말로 꾀어내어 타락시킨다. 황태자는 너무나 자신을 향한 관심과 찬양에 굶주려 있었기에 그것이 감언이설이라는 걸 알면서도 귀를 기울이고, 결국에는 그 자를 측근으로 삼게 된다.

너무도 쉽게.

그것이 바로 ‘원작에서’ 악당이 마수안이라는 금지된 비기에 손을 대게 된 계기였다.

서민하는 얼마 전까지 황궁에서 모두 마녀 같다며 수군거리던 여자였다.

그 말들은 모두 사실이었다. 서민하는 모범생이던 황태자를 달콤한 말로 꾀어냈다. 만인이 제국을 위해 차라리 사라지기를 바랐던 시그롯의 권력을 지켜주었다. 악인으로 태어난 소년의 마음을 감싸고, 결국 너무도 쉽게 그의 환심을 샀으니 명실공히 사특한 술수를 쓰는 마녀라 불려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뭘 어찌하겠는가.

신은 반드시 악에게 약점을 예비하지만

악은 항상 선보다 성실한 것을.

거짓말일 거야. 아니면 분명 꿈이겠지.

그녀는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었다. 바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백작 가문의 사랑받는 딸이었으며, 황태자의 약혼녀로서 멜프라우 제국의 차기 황후가 될 몸이었다.

그런데 만인의 부러움을 사는 입장이던 그녀가 왜 지금은 파혼당해 내일 수도원으로 가는 마차에 타야 하는 운명이 되고 말았을까?

리리샤는 조금 전까지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오늘 아침에 약혼자였던 황태자 시그롯이 찾아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얼마 안 남은 결혼식의 웨딩드레스 가봉을 위해 제도에서 가장 유명한 재단사와 만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그롯이 찾아와 갑작스럽게 그녀와의 파혼을 선언한 뒤로부터 그녀가 알던 세계는 전부 어그러져 버렸다.

“시그롯, 파혼이라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나야말로 묻고 싶어, 리리샤. 왜 지금까지 나를 기만해 왔지?”

늘 친절하고 부드러웠던 황태자의 목소리는 예전의 그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치 차가웠다. 황실의 백기사들을 대동하고 나와 오만한 자세로 앉아 있는 시그롯의 손에는 그녀의 가문의 문장이 찍혀 있는 봉투가 들려 있었다.

“이걸 가지고 있던 자가 실토하더군. 내 눈을 피해 너와 밀회를 즐기고 있었다고. 토르체 백작가의 문장이 박힌 손수건까지 그에게 주었다지. 목격한 증인이 아주 많아.”

“밀회, 라니….”

맹세코 아니었다. 그 손수건은 얼마 전 참석했던 파티에서 자신과 부딪쳐 옷에 주스를 쏟은 남자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건넨 물건일 뿐이었다.

4년 전, 처음 그와 약혼하고 나서부터 리리샤 토르체는 한 번도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린 적이 없었다.

누군가가 그녀를 모함하기 위해 술수를 꾸민 게 틀림없었다.

“오, 오해, 오해예요. 시그롯. 한 번만 이야기를 들어 줘요. 제발….”

“애인을 만들어도 좋다고 말하기는 했었지만 어디까지나 내가 즉위하고 안정된 후에, 결혼하고 나서라고 분명히 명시해 놓았을 텐데.”

시그롯이 즐겁다는 듯이 입술을 한 쪽으로 밀어 올렸다. 그 비뚜름한 미소를 본 순간 리리샤는 본능적으로 이 모든 일을 뒤에서 조종한 자가 황태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원래부터 제 눈 밖에 난 자들을 철저히 배제하기로 유명한 남자였다. 하지도 않은 일을 덮어씌워서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하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시그롯의 수법은 귀족들 사이에서도 차기 황제의 정치 수완으로 포장되어 알음알음 유명했다.

하지만 저에게 쓸모 있는 사람만큼은 끔찍하게 아꼈기에 리리샤는 지금껏 그로부터 눈을 돌리고 있었다.

나에게만큼은 상냥했으니까. 토르체 백작가에만큼은 잘해줬으니까.

그가 정말로 그녀를 소중히 생각한다면 우선 오해를 풀어주려고 했겠지. 그녀를 먼저 믿어줬겠지. 바보 같았다. 쓸모가 없어지면 버려지는 건 누구라도 똑같았는데.

“내 약혼녀의 가문이라 그간 토르체 백작가에 해 준 게 참 많았었는데 이런 식으로 내 뒤통수를 치리라고는 생각 못 했어. 황족과 파혼한 여자는 평생 수도원에서 살아야 한다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야.”

시그롯이 천천히 걸어 리리샤에게 다가왔다. 금사처럼 반짝이는 금발에 흰 양복을 갖춰 입은 그는 꼭 지상에 내려온 천사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으나, 표정은 악마처럼 비열하기 짝이 없었다.

“수도원에서 당신의 잘못을 뉘우치도록 해. 되도록 얌전히, 죽은 듯이 지내는 게 좋을 거야.”

그리하여 리리샤는 지금 수도원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황태자를 두고 부정을 저질렀다는 끔찍한 오명을 쓰고서,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에게도 오해를 해명하지 못한 채.

리리샤의 아름다운 보라색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억울했다. 해명하고 싶었다. 차라리 죽을 각오를 하고 시그롯의 뺨을 치고 싶기도 했다. 하지만 무거운 거라곤 수저밖에 들어보지 못한 백작영애가 혼자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충동적으로 안고 있던 짐을 꽉 붙들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황궁도, 집안도 이제 지긋지긋했다. 더 이상은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다.

리리샤는 그날 밤 도망치기로 결심했다.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었다.

<백작 영애와 용병 황자 : 프롤로그>

-다시 정주행 중인데 시그롯은 참 프롤로그부터 글러먹은 캐릭이었네요.-

“내가 쓴 댓글까지는 안 읽어줘도 돼.”

-처음부터 우리 여주가 시그롯을 그냥 확….-

나는 아리가 더 주절거리기 전에 재빨리 귀에서 이어폰을 빼버렸다. 방금 전 식당 주방에서 나온 가게 주인이 따끈따끈한 음식 그릇을 들고 이 쪽 테이블로 다가오는 중이었다.

“차린 건 별로 없지만 맛있게 먹어요.”

“감사합니다.”

어디 보자. 주문한 대로 제대로 나왔나?

검은 잡곡 빵에 채소와 감자를 넣어 끓인 걸쭉한 스프. 차려진 음식을 보니 내가 원했던 그대로가 확실했다.

“그런데 참 특이한 분이시네. 요즘 들어선 딱딱한 빵을 찾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특히 도시에서 온 사람들은 부드러운 흰 빵이 아니면 드시질 않는답니다.”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죠. 전 이런 게 좋아요.”

“어머나.”

주인은 아까부터 날 힐끔거리며 뭔가 묻고 싶은 눈치였지만 나는 어서 가 보시라는 무언의 뜻을 담아 생글생글 웃기만 했다. 딱히 혼자 있고 싶었던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할 일이 남 보기에는 조금 뭐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주변이 조용해지기를 기다려 읽고 있던 소설 사이트 어플을 켰다.

‘프롤로그는 이제 됐고….’

내가 오늘 이 식당에 온 이유는 따로 있었다.

"딱딱하고 검은 빵에 채소와 감자를 넣고 오래 끓여 흐물거리는 스프. 이제껏 고귀한 백작영애로 좋은 음식만 먹으며 살아온 리리샤가 처음으로 입에 대는 서민들의 음식이었다."

‘바로 이 식당에서 귀족이었던 리리샤가 처음 서민 음식을 먹었단 말이지.’

찰칵! 찰칵!

카메라로 요리 사진을 줌 인과 줌 아웃까지 해 가면서 찍은 나는 그 다음으로 폰을 높이 들고 요리 앞에서 셀카까지 찍었다.

그리고는 사진 폴더를 따로 만들어 방금 찍은 사진들을 넣고 메모를 첨부했다.

<제국력 1226년 8월 9일. 드디어 백황 1화에 나오는 그 식당에 오다!>

참고로 ‘백황’이란 소설 <백작 영애와 용병 황자>를 줄여 부르는 일종의 애칭이다. 나는 지금 소설 속 여주인공이 1화에서 들렀던 바로 그 식당에 와 있었다.

현대소설이나 대체역사소설이 아닌 이상 대부분 작가가 만든 허구라고 여겨지는 책속의 장소에 실제로 내가 와서 주인공이 먹은 음식을 체험하고 있다니, 몇 번을 생각해도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게 비록 날짜 상으로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벌어질 일이라도 말이지.

‘백황’의 1화가 시작하는 시점은 제국력 1230년 봄.

앞으로 약 4년 뒤, 리리샤는 드레스 차림으로 이 식당에 들어와 울면서 이 검은 빵과 수프를 먹다 강도의 습격을 받고 남주인공 칼릭스에게 구해질 예정이었다.

‘정말로 원작대로 흘러간다면 말이지만….’

나는 도저히 씹히지 않는 딱딱한 빵을 칼로 거의 내려치다시피 하며 좀 삼킬 만한 크기로 잘라내고 있었다. 아무래도 중세풍을 흉내 낸 배경이라 그런지 이 세계에서도 딱딱한 검은 빵과 부드러운 흰 빵은 귀족과 평민의 부를 가르는 척도로 통했다.

하얀 밀가루 빵만 먹던 리리샤가 가출하여 갈 데 없는 신세가 된 뒤, 장신구를 팔아 처음으로 검은 잡곡 빵을 먹는 장면은 앞으로 주인공이 겪게 될 고난과 새로운 생활이 펼쳐질 것을 의미하는 암시의 표현이었다.

사실 현대인인 내 시점에서 보면 밀가루보다 잡곡이 훨씬 영양소가 풍부하여 몸에 좋았지만, 이 곳 사람들이 부드러운 빵을 선호한 것도 이해할 수는 있었다. 밀가루는 원래 몸에 안 좋아도 맛있잖아?

정작 내가 걱정하는 문제는 따로 있었다.

“검은 빵을 파는 가게가 왜 이렇게 없어?”

-풍요의 시대가 20년째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죠.-

무릎 위에 내려놓은 이어폰을 다시 귀에 꽂자 아리의 기계적인 목소리가 귓속으로 흘러들어왔다.

-원작대로의 흐름이라면 풍요의 신수가 잠들고 가짜인 마수가 신수로 인정되면서 나라에 흉년이 찾아와 평민들의 삶이 힘들어져야 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라메라스가 아직 살아있는 바람에요.-

“작년에도 전국에서 밀농사가 대풍년이었지, 아마?”

-네, 밀 공급이 전년대비 200%나 늘어나는 바람에 황실에서 서민들에게 밀가루 빵을 보급하는 정책을 펼쳤고 그 결과 잡곡은 가축에게만 먹이로 주게 되어 잡곡 빵을 취급하는 식당이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는 아리의 설명을 들으며 잘게 자른 빵을 입에 넣고 오물오물 씹었다. 확실히 딱딱하고 소스가 없어서 그런지 이빨이 아픈 데다 맛도 별로 없었다. 이 식당도 검은 빵을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먹는 이 음식은 내가 일부러 주인에게 부탁해 주문한 요리였다.

하지만 원래대로라면 이게 원작 속 평민들의 보편적인 식사였다. 아니, 오히려 이런 빵조차 없어 도둑질과 강도가 들끓는 세계여야 했다는 게 맞을까?

약 3년 전, 제국에 풍요를 가져다 주던 신수 라메라스가 기약 없는 잠에 빠지고 가짜 신수를 가진 시그롯이 실권을 잡게 되면서 풍요를 누리던 멜프라우 제국은 축복을 잃고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요컨대 수확이 예전 같지 않으니 사는 게 힘들어지고, 황태자가 나쁜 놈이니 귀족들은 제 배만 불리기 위해 평민들을 착취한다는 흔한 스토리였다.

그래서 위기에 빠진 제국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진짜 신수에게 선택받은 남주인공이 필요한 건데….

“큰일 났네, 정말.”

원래는 그렇게 흘러갔어야 했지만 지금 내가 있는 이 멜프라우 제국은 건국 이래로 유례없는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

풍요의 신수는 여전히 신수궁에 살고 있었고, 그 덕분에 제국은 늘 날씨가 좋아 매년 풍족한 수확을 거두었다. 거기다 황태자는 3년째 완벽하게 국정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제국민들에게 인기도 좋았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너무 잘 살고 있었다!

“이래가지고선 정말 주인공들이 원작대로 갈 수가 없잖아.”

굳이 원작을 지키지 않더라도 결과가 좋으니 된 것 아닌가? 하고 누군가는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이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바로 황태자에게 찾아올 백 개의 사망… 아니, 불행 플래그였다.

나는 달력을 열어 연도를 다시 확인해 보았다. 제국력 1226년, 소설에서 시간상으로 가장 과거 시점에 있는 ‘시그롯 과거외전’의 시간대로 떨어지고 나서부터 나는 올해로 3년째 책속 세계에 머무르는 중이었다.

‘3년이라고 하니 무척 긴 것 같은데 금세 흘러갔네.’

스물다섯 살에 이 세계로 떨어졌으니 정신적인 나이로만 치면 난 이제 스물여덟 살인 셈이었다. 하지만 외형은 처음 왔을 때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머리 길이까지도 말이다!) 나는 왠지 삼 년 째 스물다섯 살로 사는 기분이었다.

‘그래, 차라리 안 변하는 게 낫지. 나중에 돌아갔을 때 갑자기 머리가 길어지거나 나이 먹고 있어 봐.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

아리는 내게 노화방지의 버프를 걸어주었다고 했지만 작년쯤에 한 번 각 잡고 털어 본 결과, 그 말은 사기였다. 진짜로는 내 원래 세계의 시간이 멈춰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나 역시 외양상으로 변화가 없는 것이었다.

그러니 아리가 실제로 한 건 내게 버프를 걸어 준 게 아니라 내 세계의 시간을 멈춘 것이었다. 음, 이렇게 말하니 진짜 최강의 신수 같기는 하네. 믿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믿어진다기보다 믿고 싶은 마음이 크다.

정말로 원래 세계의 시간이 멈춰 있다면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내거나 날 찾고 있지 않아도 될 테니까.

“저주만 다 풀면 어떻게든 될 것 같은데 4년이나 남았다니….”

“사제님!”

따끈따끈한 스프 그릇을 들고 마시려던 차에 누군가 식당 문을 열고 다급히 들어왔다. 흑기사단의 제복을 갖춰 입은 붉은 머리의 기사였다.

저래가지고선 온 식당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나는 재빨리 그에게 이 쪽으로 오라고 손짓한 뒤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듀렌, 밖에서는 사제라고 부르지 말랬잖아.”

“죄송합니다. 그게… 지금 돌아가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저녁까지 외출 허가 받았는데? 왜?”

“방금 연락을 받았는데 황태자 전하께서 오늘 돌아오신답니다.”

듀렌의 말을 듣자 나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다.

황태자가 돌아온다고?

“분명 내일쯤 온다고 하지 않았어?”

“일정이 당겨졌다는 모양입니다. 여하튼 그렇게 됐으니 사제, 아니, 민하 님. 성으로 돌아가시죠.”

“알았어, 일단 나온 건 다 먹고.”

“하지만 조금 있으면 바로 도착하신다고….”

“이 식당 찾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럼 빨리 가야 하니까 이건 네가 처리해.”

나는 잘라놓은 빵 중에 입을 안 댄 것을 골라 그릇에 담아서 듀렌에게 내밀었다. 졸지에 옛날 서민들이나 먹던 잡곡 빵을 씹게 된 듀렌이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기에 목 막히지 말라는 뜻에서 물도 한 잔 따라 주었다.

“지난주에는 <루나 베이커리>의 치즈 케이크를 꼭 드셔야겠다고 하시더니 오늘은 무슨 이런 가축들이나 먹는 빵을 찾으십니까? 민하 님의 취향은 종잡을 수가 없군요.”

“몸에 좋으니까 먹어. 밀가루만 먹으면 면역력 떨어진다.”

참고로 <루나 베이커리>의 치즈 케이크는 소설 30화쯤에 리리샤와 칼릭스가 데이트하며 먹었던 메뉴였다. 이 세계에 머무르는 동안 주인공들이 먹었던 작중 음식과 명장면이 있었던 장소 같은 곳들을 섭렵하는 게 올해부터 세운 내 소소한 목표였기 때문이었다.

책속에 들어왔으면 이런 낙이라도 있어야지. 악플 수습하는 것만으로 7년을 보내라니 그렇게만 사는 건 솔직히 너무 따분하고 피곤하잖아?

‘그 놈의 악플.’

나는 듀렌과 함께 게 눈 감추듯 식사를 끝내고 황궁으로 돌아가는 마차에 올랐다. 처음 탔을 땐 타는 족족 멀미를 하던 마차였지만, 그래도 말 타는 것보단 백 배 나았기에 나는 그럭저럭 마차를 타고 다니는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다.

마차 안에서 다시 이어폰을 귀에 꽂자 기다렸다는 듯 아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앞으로 닷새 뒤에 열세 번째 플래그가 실현될 예정입니다.-

“네에, 압니다.”

빈정거리면서 댓글 창의 ‘내 댓글 보기’를 켰다.

‘다 내가 과거에 손가락을 잘못 놀린 업보다.’

저절로 한숨이 나온다. 이 정도가 무슨 악플이야? 그냥 감상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댓글은 연대책임으로 함께 얻어걸린 것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어쩌겠나. 까라면 까야지.

앞으로 닷새 뒤면 정확히 8월 14일.

원작대로라면 악역 캐릭터인 시그롯이 주인공인 리리샤에게 약혼을 신청하러 가는 날이다.

그리고 그게 바로 내가 깨야 할 열세 번째 플래그였다. 즉 내가 3년 동안 받은 ‘좋아요’가 아직도 열두 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원작이 시작하기도 전 시점이니 깰 수 있는 플래그도 많지 않았지.’

거기다 댓글대로라면 리리샤에게 차이는 걸로 시그롯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건데….

‘실연당해서? 아니면 물리적으로 까여서? 대체 뭘 어떡해야 이게 사망 플래그가 돼?’

아리의 말에 따르면 백 개의 플래그 중 이루어졌을 때 시그롯이 죽는 플래그는 한 개뿐이었다. 그러나 그게 백 개 중 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혹시나 하는 가능성을 생각해 백 개를 전부 막아야 하는 것이었다.

그럼 아예 리리샤에게 약혼을 청하지 못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다.

처음까지는 말이다.

“민하 사제님께서 입성하십니다!”

황궁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다. 제도 외곽까지 외출해서 그런지 오고 가는 데만도 몇 시간이 걸렸다. 아무래도 마차는 전철과 택시에 비해 느려도 너무 느린 것 같았다. 성 밖으로 외출 한 번 하려면 하루를 다 잡아먹어야 한단 말이지.

“시그롯은?”

맞으러 나온 시종에게 묻자 그녀가 부리나케 고개를 조아렸다.

“돌아오신 지 두 시간 정도 되셨습니다. 저, 사제님.”

“왜?”

“오늘 전하께서 오시자마자 황제 폐하와 다투셔서 두 분 다 심기가 좋지 않으시다고 합니다.”

“또?”

요즘 들어 황태자과 황제가 틈만 나면 싸운다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요즘은 황태자가 성을 비워서 조용했는데. 설마 돌아오자마자 또 그러고 있을 줄은 몰랐다.

“그래서?”

“그래도 전하께선 사제님 말은 들으시니 사제님께서 잘 좀 말씀해 주시면….”

“나 참.”

귀찮게 됐네. 나는 시종을 향해 대강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마차에서 내릴 채비를 했다. 옷도 갈아입기 전에 황태자를 만나러 가야 하게 생겼다.

그러나 막 시종의 에스코트를 받아 내리려는 찰나, 눈앞에 백마 한 필이 멈춰 섰다.

‘어라.’

황실의 문장이 새겨진 안장에 최상급으로 관리된 갈기. 어딜 봐도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유니콘 같은 말이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백마 탄 왕자가 지금 막 내려 마차로 다가오는 중이었다.

“손을 이리 주십시오.”

훤칠한 키의 청년이 손을 내밀자 나를 에스코트해주려던 시종이 재빨리 몸을 빼어 자리를 피했다. 그러자 청년이 내 손을 잡고 고개를 숙이며 손등에 정중히 입을 맞추었다.

예기가 서린 눈매에 영준한 콧날과 턱선. 반듯한 눈썹 위를 덮고 있는 금빛 머리카락은 그냥 봐도 눈이 부실 정도였다.

“멜프라우의 황태자 시그롯 카르스트라드 이반 멜프라우, 시찰에서 지금 돌아와 민하 사제님을 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대의 여정에 주신의 가호가 함께 하셨기를 바랍니다.”

나는 입에 침도 바르지 않은 채로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올리고 대충 문질렀다. 진짜 사제도 아닌데 사제인 척 하는 것도 삼 년쯤 되니 제법 그럴듯한걸.

시그롯 멜프라우. 올해 열아홉 살.

눈앞의 청년은 현재 삼 년째 건국 이래 최고의 성군이 될 재목으로 꼽히는 황태자이자, 문무를 겸비하며 다른 분야 역시 못하는 게 없다는 평을 듣는 팔방미인이자, 온 제도의 아가씨들이 눈빛만 보면 쓰러진다는(이건 아무래도 과장인 듯함.)소문이 도는 제도 제일의 미남이었다.

그리고 나는… 일단 이 남자를 가호하는 신수의 사제인 걸로 되어 있었다.

“도착한 지 두 시간 됐다며? 지금 왔다니 무슨 소리야?”

“저는 밖에서도 사제님의 가호를 받고 있는 몸, 사제님의 안수기도가 없이는 귀환했다고 할 수 없지요.”

“징그러우니까 기도 끝났으면 그냥 편하게 말하면 안 되겠니?”

“끝나다니요. 아직 물으셔야 할 게 남지 않았습니까?”

물어야 할 게 있었나? 내가 의아한 눈으로 시그롯을 쳐다보자 그가 입매에 슬쩍 미소를 머금었다.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매사에 소심하게 굴던 어린애였는데, 요즘 들어서는 부쩍 여유로워져서 왠지 낯간지러울 정도였다.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술은 얼마나 마셨는지, 도중에 신변의 위협은 없었는지, 건강에 이상은 없는지.”

“…….”

“사제님께서 매번 제게 하시던 질문들이었습니다. 왜 대답하게 해주지 않으십니까?”

“아니, 그냥 봐도 무사히 잘 돌아온 것 같아서….”

그간 내가 좀 극성스럽게 굴기는 했다. 성에서 시그롯을 챙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내가 따라다니며 밥도 같이 먹고 식단도 관리하고, 혹시 부득이하게 떨어질 일이 생기면 시종들에게 잘 모시라고 진상… 아니, 신신당부도 했었지.

하지만 그 짓도 한 삼 년 하다 보면 초심을 잃게 마련이었고, 솔직히 좀 너무 나대는 것 같기도 해서 적당히 자제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그롯은 은근 고지식한 구석이 있어서 어디 갔다가 돌아오면 여전히 내게 와서 상태를 보고했다. 남들에게 ‘황태자에게 신수가 있다’고 보여주기 위한 사기극의 일종으로 하기 시작한 거지만 이 안수기도 과정도 꼬박꼬박 거쳤다.

이렇게만 보면 매우 내 말을 잘 듣는 순한 황자님으로 큰 것 같지만….

“아, 물을 거 하나 있다.”

마침 생각난 게 있어 시그롯을 잡자 그가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들었다.

“말씀하시길.”

“너 또 폐하랑 싸웠다며?”

아, 이번에는 갑자기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다.

“말하지 마.”

“저기, 아직 아무 말도 안 했거든?”

“아무 말도 하지 마. 무슨 말을 하건 들을 생각 없으니까.”

조금 전까지 부드럽고 서글서글한 눈빛을 하고 있던 시그롯이 돌연 차가운 얼굴로 입을 다물었다. 얼마 전부터 황제와 싸우는 ‘그 화제’만 꺼내면 그는 저렇게 까칠해지곤 했다.

나라고 뭐 불편한 얘길 하고 싶어서 하나? 전하 모시기 힘들다고 시종들이 우는 소릴 하니까 부담스러운 역할을 해 주는 거지. 난 정말이지 마음이 너무 약해서 탈이었다.

“시그롯, 네가 싫어하는 건 이해하는데… 폐하께서도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

“그래서? 아버님 말씀을 따르라고?”

“따르라는 건 아니고 그냥 따르는 척 한 번 정도 구색만 맞추면 어떻겠냐는 거지.”

“당신도 내게 귀족 영애 사이에서 황태자비를 골라 약혼하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건가?”

시그롯이 사나운 기세로 으르렁거렸다. 아까보다 확연히 낮아진 목소리는 다소 위협적으로 들리기까지 해서 얘가 원래는 악역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하게 해 주었다.

“약혼한다고 당장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 꼭 하라는 것도 아니고 네 비 후보로 명단에 올라 있는 귀족 영애들을 한 번 만나보기만 하라는….”

“난 당분간 누구와도 결혼할 생각 없고 그런 목적으로 만날 생각 또한 없어. 물론, 약혼도 마찬가지야.”

그는 내 말을 더 이상 듣기 싫다는 듯 빠르게 말을 마치고는, 홱 등을 돌리며 내게서 돌아섰다. 그러나 서너 발짝쯤 혼자 걸어가다가는 갑자기 또 고개를 돌려서 성난 얼굴을 하고 이 쪽을 향해 다가왔다.

“인사를 하지 않았군.”

“아니, 정 화났으면 안 해도….”

“잘 자.”

그가 내 손을 들고 손가락에 가볍게 입술을 내려뜨렸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정말로 말을 타고 훌쩍 내 눈앞에서 사라졌다.

거 참 저렇게 화가 나고도 예의는 잘 지킨단 말이야.

나는 시그롯이 떠난 자리에 가만히 서 있다가 머리가 아파질 것 같아서 이마를 짚었다. 분명 얼마 전에 약혼 얘기를 처음 꺼냈을 때는 반응이 저렇게까지 나쁘지 않았었는데. 누구랑 하는 거냐고 묻기에 당연히 귀족 영애 중 한 명이겠지 하고 건성으로 대답한 뒤로 시그롯은 약혼을 암시하는 모든 단어에 얼음처럼 차갑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저렇게 약혼을 하기 싫어해서 어쩌지?’

나는 아리가 말했던 플래그 기한을 다시 한 번 떠올렸다. 내가 프롤로그에 쓴 악플이 실현되는 8월 14일까지 닷새밖에 기간이 남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닷새 후, 어떻게 해서든지 시그롯이 리리샤 토르체에게 약혼을 청하러 가도록 만들어야 했다.

“듀렌, 요즘 시그롯은 어때? 여자한테 관심 좀 있어?”

나는 내가 지내는 신수궁으로 향하며 호위기사인 듀렌에게 물었다. 시그롯의 신수 비슷한 입장이 되면서부터 나는 신수궁에 거처를 두고 있었다.

“보면 아시잖습니까? 요지부동이시죠.”

“넌 한 달마다 애인을 바꾸면서 친구인 시그롯에게는 누구 소개도 안 해 주니?”

“무슨 억울한 말씀이십니까? 제발 한 번만 전하와 만나게 해 달라고 귀족 영애들이 얼마나 줄을 서서 저를 괴롭히는데요!”

“그 중에 네가 골라서 꼬시는 게 아니고?”

내가 쳐다보는 시선에 듀렌이 가만히 걸어오다가 뒷머리를 긁적였다.

“…헤헤.”

“잘 한다. 잘 해.”

“에이, 너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도 사귀고 싶어서 사귀는 게 아니라고요. 시그롯 전하께서 항상 제게 사귀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신단 말입니다.”

“걔가 그걸 너한테 왜 물어?”

“음… 그건 남자들만의 비밀입니다.”

“지금 말할래, 너네 엄마한테 이른 다음에 말할래?”

“아, 사제님! 그것만은 좀!”

듀렌이 질색팔색을 하며 울상을 지었다. 처음 봤을 때까지만 해도 검 실력은 우수하지만 정신상태는 칠푼이라 시그롯에게도 깨졌던 듀렌은 삼 년이 지난 지금, 무사히 기사 작위를 따서 지금 내 호위기사 일을 하고 있었다.(참고로 엄마와 형들의 잔소리가 듣기 싫다고 백기사단의 라이벌인 흑기사단에 지원하는 바람에 백기사단장인 엄마 오르카 경은 한동안 홧병에 걸려 앓아누운 적이 있었다.)

지금 내 옆에서 제발 엄마한테 이르지 말라며 빌고 있는 저 듀렌이 원래대로라면 일가족을 잃고 시그롯의 오른팔인 카리스마 간지 악역이 될 예정이었단 사실은 나 혼자만 알고 있어도 충분할 것이다.

“제가 솔로 상태인지 아닌지 황태자 전하께서 늘 체크하신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귀고 있는 건데 자꾸 차여서 자주 바뀌는 것뿐이라고요….”

“여자한테 관심은 없는데, 너한테 여자가 있는지는 매번 체크한다고?”

“그렇죠!”

“요즘 진짜 걔 속을 모르겠네.”

시그롯의 행동은 요즘 이해하기 힘든 것 투성이었다. 누구나 일생에 한 번쯤은 중2병을 겪는다던데, 아무래도 악당으로 각성하는 걸 막아놨더니 비뚤어지는 시기가 뒤늦게 찾아오기라도 한 거 아닐까?

언젠가부터 시그롯은 근엄하던 말투를 부드럽게 고치기 시작하더니, 삼 년 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잘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원작보다 체격도 좋았다.

정말 놀라운 건 뭐든 어중간하다고 설정되었던 재능들이 막상 키워놓고 보니 ‘뭐든 잘한다’는 평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건 권력이었어. 입지가 좋아지자마자 사람들이 딸랑인단 말이지.’

물론 시그롯 본인이 변한 것도 크다. 키만 콩나물처럼 쑥 자란 것 같던 열여섯 살 시절과는 달리 부쩍 청년 태가 나기 시작한 그는 누가 봐도 확실히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열아홉이면 한창 이성에 피가 끓어도 모자랄 것을, 여자 쪽으로는 아예 돌부처처럼 관심이 없는 게 문제였다.

“보통 황족은 한 다섯 살이면 약혼하지 않나? 시그롯이야 신수가 없었으니 어렸을 땐 약혼자도 없었겠지만….”

“약혼만 어릴 때 하시고 결혼은 대개 열여섯 정도에 하십니다. 하지만 전하께선 사제님이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시기가 늦어지셨죠.”

“그래서 삼 년 지난 지금에 와서야 약혼 얘기가 나오는구나.”

“어머니께 들었는데 폐하께서 심려가 많으시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황태자 전하의 지지세력이 높긴 하지만, 역시 진짜 신수의 권능을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폐하께선 황태자비를 들이셔서 시그롯 전하를 보호해 줄 확실한 외척 가문과 황손이 생기기를 바라십니다.”

“결국 빨리 결혼해서 애 낳고 안정되란 소리네.”

일리 있는 말이다. 왜 원작 속 시그롯이 지금 시기에 리리샤에게 약혼을 청했었는지 알겠다.

당시 악역 시그롯은 마수안을 통해 힘으로 찍어 누르듯이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거스르는 자들은 누명을 씌우거나 물밑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제거해 왔다.

귀족들은 하나같이 살아남기 위해서 시그롯에게 아부하기 바빴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정신이 제대로 박힌 충신은 있었는데, 그 중 대표격이 리리샤의 할아버지인 토르체 백작이었다.

토르체 백작은 인망이 높고 고지식하여 많은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다. 아무리 잘 나가는 황태자라도 함부로 건드리기 힘들었다는 뜻이다. 이에 시그롯은 토르체 백작가를 배제하는 대신, 반대로 자기편으로 끌어들여 이용하기로 결심한다.

…원작대로라면 그렇게 흘러갔어야 했는데.

‘이대로라면 원작이 시작조차 못 하겠어.’

계승권을 가진 황족을 비롯해 대부분의 반대파 귀족들을 시그롯이 전부 죽여 놓았던 원작과 달리 이번에는 그 중 많은 사람들이 살아 있었다. 새삼 얼마나 원작 속 시그롯이 악의 축이었는지 실감나는 부분이었다.

그들이 살아 있다고 해서 무작정 좋은 건 아니었다. 시그롯이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지금 시기에도 폴린스나 다른 황족들을 중심으로 한 세력은 꺼지지 않고 있었으니까.

지난 3년간 열두 개의 ‘좋아요’를 모으는 과정에서 나도 나름대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몇 가지 있었다.

원작을 바꾸면 변수가 생긴다.

내가 그간 시그롯에게 달았던 백 개의 악플은 당연히 원작을 보고 쓴 원작에 기반한 내용이었다. 그러니 소설 내용이 달라져도 한참 달라진 지금에 와선 그 댓글들이 성립될 수 없었다.

하지만 내가 쓴 글들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나는 원작이 분명 변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그롯의 불행 플래그는 아직 팔십 개가 넘도록 남아 있었던 것이다.

‘원작은 처음부터 바뀌어 있었던 거야. 원래대로라면 시그롯은 마지막화까지 살아 있는 게 당연하니까.’

내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할 일은 원작을 바꾸는 게 아니라 시그롯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내가 우선해야 할 것은 시그롯의 생명이었다.

‘그리고 원작이 바뀔수록 소설에는 없었던 변수가 늘어가지.’

그 상황은 내게 있어 몹시 불리했다.

내가 이 세계에 와서 유리한 점이라곤 소설 전개를 안다는 것뿐이기 때문이었다.

이대로 원작이 제멋대로 흘러가게 두는 건 내 가장 큰 무기를 포기하는 짓이나 다름없었다. 시그롯이 언제 어떻게 잘못될 예정인지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게 되니까.

‘시그롯 바보야. 리리샤하고 약혼을 해야 널 지키기가 쉽단 말이야.’

도대체 왜 싫다는 거야? 리리샤가 뭐가 부족해? 예쁘고 착하고 배려심도 깊고 할 때는 하는 완전 멋진 여주인데. 딱 하나 단점이 있다면 너 말고 칼릭스와 운명의 짝이라는 것 정도?

물론 그래서 시그롯이 프롤로그에서 리리샤를 차긴 했지만… 가만, 리리샤 같은 애를 차긴 왜 차? 시그롯이 잘못했네. 시그롯 나쁜 놈아!

저절로 손가락이 액정으로 향했다가 멈췄다. 아무래도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전에 악플 달던 버릇이 그대로 남아 있는 모양이었다.

나도 사실은 안다. 이 세계의 시그롯은 내가 욕했던 글자 속의 시그롯과 다르다는 걸.

만일 사람 대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내 입장 때문에 시그롯에게 무언가를 강요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걸.

-시그롯 카르스트라드 이반 멜프라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민하 님, 당신이 가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리가 3년 전에 했던 말이 생각났다.

‘그냥 일찍 자는 게 낫겠어.’

듀렌은 내 방 앞까지 나를 호위해 주고 퇴근했다. 신수궁 안쪽은 라메라스의 강력한 결계가 걸려 있어 별다른 경비가 필요하지 않았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간단히 데일리 앱에 정리해 두고 침대 안으로 들어가려던 나는 문득 베개 밑으로 손을 넣었다가 종이봉투를 발견했다.

"리리샤 토르체의 근황에 관하여"

리브로부터 온 소식이었다.

"대귀족회의 절반을 황궁에서 숙청했지만 시그롯은 여전히 의심이 많았다. 그는 스스로의 입지를 확실하게 굳히기 위해 약혼을 하기로 결심했다."

…책에서라면 진작 이런 서술이 나왔어야 하는 시점이었다.

털복숭이 짐승과 신수궁의 정원에서 뒹굴고 있던 나는 황태자가 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후다닥 일어나 옷에 묻은 털을 열심히 떼어내기 시작했다.

“온다면 온다고 말을 해야지!”

최근 시그롯은 아침마다 날 보러 이 곳에 오고 있었다. 본래 신수와 계약한 황족은 아침저녁으로 신수궁에 와서 신수의 축복을 받는 게 의례라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황제폐하도 바쁠 땐 며칠 뛰기도 하시니 굳이 따지면 그렇게까지 의무는 아니었다. 게다가 어제 그렇게 화를 내며 돌아가는 걸 보고 오늘은 안 올 줄 알았더니….

“매일 일정이 그런데 뭐 하러 따로 고할 필요가 있지?”

“아니, 오늘은 안 올 줄 알았거든.”

“그래서 지금 라메라스와 정원에서 놀고 있었나?”

“음… 아, 이건 내가 좀 힐링이 필요해서… 그래, 그래. 라메라스. 착하지? 나 잠깐 얘기 좀 하고.”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내 무릎에 앞발을 올리고 살랑살랑 꼬리를 흔드는 털뭉치를 쓰다듬었다. 귀가 토끼처럼 길고 몸집은 송아지만하며 털은 장모종 고양이처럼 북슬북슬한 이 생물은 내 하우스메이트이자 멜프라우 제국의 풍요를 책임지는 신수 라메라스 님이었다.

어젯밤에 심란한 생각을 해서 그런지 오늘은 뭔가 부드러운 걸 만지작거리고 싶어서 라메라스를 찾아갔을 뿐인데, 하필 이 타이밍에 시그롯이 올 줄이야.

게다가 털짐승… 아니, 신수하고 뒹군 탓에 온 몸이 털로 뒤덮여 있는 나와 달리 아침부터 단장한 시그롯은 매우 말끔한 차림이었다. 못 보던 군청색 조끼에 깔 맞춘 바지까지. 게다가 평소 입던 옷과는 달리 어딘가 어른스러워 보이는 디자인이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딘가 부루퉁했다. 뭔가 불만이 있는 게 확실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아무래도 어제 화가 아직 안 풀린 모양인데….

“왜 그렇게 잘 입었어? 오늘 누구 만나러 가?”

“누굴 만날 생각으로 입기는 했으니 틀린 말은 아니지.”

이 애매한 화법은 뭐지? 누구 만나러 가는지는 말 안 해주겠다는 뜻인가?

“난 저번에 입었던 초록색 옷도 좋은데.”

“그 옷은 이제 안 입어. 질렸거든.”

허, 이것 봐라?

나는 이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내가 말했던 초록색 옷은 원래 시그롯 본인도 좋아해서 며칠마다 한 번씩은 꼭 입던 옷이었다. 그러다 며칠 전에 ‘당신은 내가 이 옷을 입으면 좋아하는군.’ 하고 말하기에 ‘어, 귀여워.’라고 한 마디 했을 뿐인데 그 때도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았던 것이다.

설마 입던 옷 스타일까지 완전히 바꿀 줄이야. 솔직히 말해 나는 좀 난처했다. 웬만한 사람이 까칠하게 구는 것 정도는 간지럽지도 않지만, 평소에 내 말이라면 뭐든 잘 듣고 얌전하던 시그롯이 저러고 있으니 내가 진짜 뭘 잘못했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라면 어제 생각했던 ‘연애라도 시도해보면 안 되겠니?’ 하는 말을 꺼내기도 힘들 것 같은데….

“당신이 어제 했던 말들을 생각해 봤어.”

시그롯은 성큼성큼 걸어와 긴 다리로 라메라스와 나를 갈라놓고는 그 사이에 비집고 앉았다. 갑자기 구석으로 밀려난 라메라스가 꼬리로 시그롯을 때렸지만 그는 아픈 기색조차 없었다.

“가까이 오지 마. 털 묻어.”

“상관없어.”

그는 내가 피하려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손을 뻗어 내 어깨와 옷에 붙은 라메라스의 털을 떼어 주었다. 손이 점점 머리카락으로 다가오더니 내가 눈을 깜빡이자 털을 쥐고 물러났다가 다시 가까워지기를 반복했다.

‘얘 손이 왜 이렇게 커졌지?’

전에는 이 정도로 크다고 느낀 적이 거의 없었는데.

“내가 전에 당신에게 약속한 게 있더군. 당신 말이라면 가능한 뭐든 들어 주겠다고 말이야. 생각해 보니 지키기 싫거나 어려운 것이라 해도 지켜야 하기에 약속이란 판단이 들었지.”

“어제 그거 말이야? 황태자비 후보들 좀 만나 보라는 거?”

“난 내 비 후보로 올라온 영애들 중 누구도 결혼 목적으로 만나고 싶지 않아. 확실히 말해, 아주 싫어. 관심도 없고.”

시그롯이 이렇게 몇 번이나 단호하게 말하는 건 어제를 빼면 아주 오랜만이었다. 그렇게까지 싫었단 말이야? 왠지 조금 미안해졌다.

“하지만 당신이 내게 그러라고 한다면 싫어도 한 번씩 정도는 만나 보겠어.”

그러나 그가 다음으로 한 말에 나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당신 부탁이어야 해. 당신이 정말로 원해야 하고. 만일 아버지 때문에 하는 말이라면 절대 듣지 않아.”

“응? 내가 왜….”

“민하, 내가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어?”

평소보다 유달리 낮은 목소리였다. 나는 뜻밖의 말에 무슨 반응을 해야 할지 몰라 입만 벌리고 있다가, 시그롯의 수려한 얼굴이 거리상 그리 멀지 않은 것을 보고 나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상황이지?

혹시 지금 내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시그롯은 꼭 도살장에 끌려가기 직전의 강아지 같은 눈길로 날 쳐다보고 있었고, 아무래도 나는 지금 황제 폐하와 황태자가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고 있는 ‘약혼해!’, ‘안 해!’ 다툼에 사제로서 결정을 내려줘야 하는 입장인 모양이었다.

솔직히 말해 나로서는 횡재였다. 그렇잖아도 어떻게 시그롯을 리리샤와 만나게 하나 고민하던 차였는데, 이렇게 본인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니 얼마나 좋아?

와, 신난다! 당장 일정부터 잡으라고 해야지!

…라고 바로 말할 정도로 내가 눈치가 없지는 않았다.

‘정말 싫은가보다.’

그간 시그롯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싫다, 싫다 하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설마 이렇게까지 말할 줄이야.

그래도 뭐 어쩌겠나. 내가 할 일은 시그롯의 목숨을 살려놓는 거지, 시그롯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 주는 게 아니었다. 싫은 일이라도 가끔은 해야지. 아무리 이야기 속이라 해도 황태자로 사는 게 그럼 쉬울 줄 알았어?

나는 눈앞에 온 기회를 마음이 약해져서 놓칠 정도로 멍청하지 않았다.

“싫으면 가지 마.”

그러니까… 저 도살장(이하생략)강아지 같은 시선과 다시 한 번 마주치기 전까지는 그랬었다는 얘기다.

“역시 그리 대답할 줄 알았지.”

시그롯이 기다렸다는 듯이 쓰게 미소 지으며 말을 받았다.

“하지만 민하, 가는 대신 내 쪽에서도 조건이….”

“뭐? 무슨 조건?”

“응?”

이건 갑자기 무슨 소리야? 조건이라니? 뜬금없이 튀어나온 단어를 드고 나는 시그롯을 향해 눈을 치켜떴다. 그러자 시그롯이 뒤늦게 아차 싶은 얼굴로 손을 들어 자기 입을 막았다.

“방금 가지 말라고 한 건가?”

“어, 그런데?”

“……왜지? 나는 당연히 당신이 가라고 할 줄만 알았는데.”

“네가 싫다고 했잖아? 그럼 싫다는데 억지로 보내야겠어? 난 그냥 권했던 거지. 이러는 게 지금 네 위치상 필요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그게 내가 가길 바란 것 아닌가?”

어이가 없었다. ‘왜’는 대체 왜 물어보는 거야? 말꼬리에는 왜 집착하는 거고?

“그렇게 죽상이나 하고 있을 거면 됐어. 안 시킬래.”

나는 속으로 한숨을 쉬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이상하게 요즘 시그롯에게 세게 나갈 수가 없었다. 나한테 너무 착하게 굴어서 그런가?

온 사방에 시비를 거는 걸 취미생활로 삼는 내게도 몇 가지 약점은 있었다. 첫 번째는 날 누군가가 날 진심으로 칭찬하는 거였고(차라리 욕해줘!), 두 번째는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었다. 착하고 호구 같고 순수한 사람. 둘 다 날 두드러기 날 정도로 닭살 돋게 만든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 내가 좀 더 고생하지. 뭐. 플래그 당일에 맞춰 하루 24시간 옆에서 지키고 있으면 까짓 거 무슨 생명의 위협이 와도 대응은 바로 할 수 있겠지.

‘바보. 멍청이. 웬수덩어리. 그냥 나쁜 놈으로 크게 놔뒀어야 했어.’

괜히 속으로 시그롯을 실컷 욕하고 있는데, 얼떨떨하게 이 쪽을 보는 그의 얼굴이 점점 상기되기 시작했다. 내가 잘못 보는 게 아니라면 왠지 웃는 것 같은데…….

“잠깐, 아까 너 나한테 뭐 시키려고 했지.”

“아니.”

바로 대답이 튀어나오는 게 더욱 수상쩍었다.

“아니긴 뭘 아니야? 조건 미리 생각해 왔지? 시키려고 했네!”

“민하, 오해야. 나는….”

“라메라스, 고등어 사흘 치 줄게 대답할 때까지 쟤 간지럼 태워.”

내 말에 라메라스가 긴 털을 온 사방에 날리며 시그롯의 몸 위로 뛰어올랐다. 비록 시그롯이 장신에 몸 좋은 남자라고 해도 송아지만한 신수님께서 얼굴을 연신 핥아대는 데에는 당할 재간이 없었다.

나는 라메라스에게 떠밀려 아예 뒤로 넘어가 버린 시그롯을 보고 깔깔 웃다가, 그가 입을 열 기미가 보이지 않자 싸움에 참전했다. 누워 있는 시그롯의 위로 올라타서 아예 본격적으로 그를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다.

“아하하, 하하, 민하, 간지러워. 하하하!”

“웃지 말고 대답해. 뭐 시키려고 했어, 응?”

“자, 잠깐. 잠시만 멈춰라. 숨을 쉴 수가, 하하!”

수많은 벌칙게임으로 단련된 내 현란한 손가락 테크닉 맛을 참지 못하고 시그롯은 기어이 웃음을 터트렸다. 요즘 들어 데면데면하게 굴던 그가 귓불이 빨개질 정도로 웃는 걸 오랜만에 보니 왠지 더 전투력이 샘솟았다.

역시 미남은 괴롭히는 맛이 있었다. 어느 새 본연의 목적은 어디로 가고 시그롯을 간지럼 태우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정원 안으로 뛰어 들어오는 발소리가 있었다.

“저하! 사제님!”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듀렌이었다.

“왜?”

“지금 황제 폐하께서… 어, 두 분?”

정원으로 들어오던 듀렌은 우리 쪽을 보고는 당황한 얼굴로 멈춰 섰다.

“황제 폐하가 뭐라시는데?”

듀렌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새빨개진 채로 연신 고개를 젓기만 반복했다. 말하려는 의도를 당최 짐작할 수 없는 동작이었지만, 왠지 본능적으로 불길한 느낌이 엄습했다.

나는 다급히 시그롯에게서 떨어지려고 했다. 하지만 라메라스가 꼬리를 흔들며 문 쪽으로 뛰어나가는 게 먼저였다.

그리고 뒤이어 정원으로 들어온 사람을 보고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아버지.”

내 밑에 얌전하게 깔려 있던 시그롯이 옷 머리 할 것 없이 마구 흐트러진 모습으로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한참 나한테 간지럼을 당하는 바람에 발개진 눈가에 작은 물기마저 맺힌 채로 말이다.

그리고 내 손은… 조금 전까지 시그롯의 상반신에 있다가 지금 떨어졌다.

한동안 나와 시그롯과 황제 폐하와 듀렌, 네 사람의 숨 막히는 침묵이 이어졌다.

“헥헥.”

폐하 손에 주둥이를 부비고 있는 라메라스만 빼고.

“서민하.”

내가 다른 세계… 그것도 남이 쓴 픽션 속 세계에 와서까지 교장선생님 훈육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될 줄은 생각도 못 했다.

“네, 폐하.”

“짐이 3년 전에 그대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나?”

“물론입니다.”

나는 라메라스를 쓰다듬는 황제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은 채로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다. 딱히 나뿐만 아니라 이 나라 모든 사람은 황제의 허락 없이 고개를 들어 얼굴을 마주하는 게 금지되어 있었다.

“출신도 알 수 없고 기억도 없다는 그대를 황궁에 들이고 신수에 준하는 대접을 하는 이유는 짐의 아들과 라메라스가 네게 호의적이고, 오르카 후작이 태자에게 필요한 인간이라 너를 보증했기 때문이다.”

저 말을 쉽게 풀면 시그롯을 황태자로 계속 두려면 거짓이라도 신수가 필요하고, 마침 그 비슷한 포지션에 시그롯이 잘 따르는 내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소리였다.

내가 대귀족회의 후에 있었던 파티에서 난데없이 사제니 뭐니 하고 떠받들어진 것도 나중에 알고 보니 다 황제와 오르카 경이 이러기 위해 꾸민 일이었었고. 뭐 그게 나랑 이해관계는 맞아 떨어졌지만.

“그 때 짐이 그대에게 당부했던 게 뭐였지?”

“사제로서 겉으로나마 본분을 다하되 황실의 중대사에는 관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정확하군. 그렇다면 짐이 최근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중대사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겠지.”

나는 마른침을 삼켰다. 올 것이 왔구나.

“황태자 저하의 혼사 문제입니다.”

“그래, 시그롯의 행실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황제의 목소리가 따가웠다. 역시 좀 전에 시그롯과 장난을 치고 있었던 게 적잖이 그의 심기를 거스른 모양이었다.

솔직히 말해 우리야 장난이었지만 모양새가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기는 했다. 시그롯은 정원에 쓰러진 채로 웃고 있었고 나는 그 위에 올라타서 그를 간질이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웬만한 사람은 못 들어오는 신수궁 안이었잖아? 본 사람도 폐하와 듀렌밖에 없었다고?

물론 성난 교장 선생님 앞에서 지금 그런 변명을 할 수는 없다. 여기선 역시 씨도 안 먹힐지라도 일단 한 번 납작 엎드린 다음, 최선을 다해 해명하는 게 낫겠지.

“폐하, 우선 황태자 저하를 모시는 사제로서 사죄를…….”

“민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응?

나는 고개 숙인 자세 그대로 눈동자를 굴렸다. 내 옆에서 같은 자세로 꿇어앉아 있던 시그롯이 중간에서 내 말을 잘라 먹으며 끼어들고 있었다.

“시그롯, 짐은 아직 네게 말하라 하지 않았어.”

“폐하께선 민하에게 부당한 말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민하가 한 일은 제 혼사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잘못된 오해는 정정이 늦어질수록 바로잡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무례한 줄 알면서 짐이 하는 대화에 끼어든단 말이냐?”

“진짜든 가짜든 민하는 제 신수이자 사제입니다. 황족에게 계약한 신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라메라스 님과 함께 하시는 폐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시그롯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말을 줄줄 이어나갔다. 황제 폐하 쪽에선 안 보일 것 같지만 옆으로 얼핏 보이는 눈동자에 예기가 비쳤다.

아뿔싸, 그러고 보니 이 부자는 요즘 만날 때마다 사이가 안 좋았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혼사 얘기가 나오니 예민해진 모양이었다.

“시그롯, 너는 서민하의 이름만 나오면 아주 다른 사람처럼 열을 내는구나. 혼사에 좀 그런 식으로 의욕을 가져 보면 어떠냐?”

“혼사에 대해서라면 제가 아직 부족하여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이미 폐하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너는 이 제국의 황태자다! 부족하긴 뭐가 부족하단 말이냐? 아직 결혼이 하기 싫으면 약혼이라도 하여 기반을 세우라고, 아니, 약혼까지도 바라지 않는다. 누구 사이좋은 영애라도 있어야 세간에 도는 의혹이 좀 사그라지지 않겠느냐?”

“귀족가 자제들과의 사교 관계라면 말씀하시지 않아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티에서 인사만 하는 수준의 적당한 친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짐이 몇 번을 말해!”

가만 듣고 있으려니 두 남자의 언사가 점점 험악해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의혹이라고? 이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최근 황실 정보원인 리브를 궁 밖으로 내보내 놓고 원작(?)투어를 하러 돌아다녔더니 황궁 돌아가는 소문에 좀 어두워지긴 했지. 나는 한참 아빠랑 싸우고 있는 시그롯 대신 벽에 딱 붙어있는 듀렌을 향해 시선을 보냈다. 집안에 가족도 많고 친구도 많은 듀렌이라면 분명 뭔가 알고 있으리라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내 시선을 눈치 챈 듀렌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시선을 피할 뿐이었다. 저거 왠지 알면서 일부러 숨긴 각인데.

왜 숨겼을까? 혹시 나랑 관련된 소문인가? 나와 시그롯에 관련되었고 황제가 예민하게 굴며 듀렌이 말하기 꺼려할만한 소문….

“네게 관심 보이는 아가씨들의 접근은 전부 다 뒤도 안 돌아보고 거절하면서, 저 자는 짐에게 대들면서까지 감싸는 게 우습구나. 시그롯.”

내가 궁리하는 중에도 두 부자의 말싸움은 계속되고 있었다.

저기요, 아버님. 본인이 옆에 있다는 건 아세요?

“민하는 제 사제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좋아, 그래! 다 네 마음대로 해라. 난 더 신경 쓰지 않을 테니!”

아드님, 너도 좀!

나도 한 성질 하지만 때와 장소는 가리는데 쟤는 안 그러던 애가 왜 저러는 거야? 이래가지고서야 그냥 넘어갈 일도 못 넘어갈 게 뻔했다.

나는 내 옆에 있는 시그롯이라도 말릴 생각으로 그의 옷깃을 잡았다. 그러자 황제와 시그롯의 시선이 동시에 이 쪽으로 향했다.

날 보는 황제의 눈빛이 왠지 심상치 않다고 느꼈을 때였다.

“원하시는 후보들을 만나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갑자기 강경하던 시그롯의 말투가 변했다.

나는 순간 놀라서 말을 잃어버렸다.

황태자비 후보들을 만나겠다고? 그렇게 싫어했으면서?

“갑자기 태도가 변했구나. 바로 전까지 싫다 싫다 노래를 부르던 녀석이.”

황제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아무래도 당황한 사람이 나뿐이 아닌 모양이었다.

“생각해 보니 이 나라의 황태자로서 최소한의 의무는 다해야겠다는 판단이 들더군요.”

“짐이 계속 그 이야기를 했었다만 싫다고 했던 게 너 아니냐?”

“결혼할 생각은 없지만 만나보는 것만이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제 혼사와 관련된 일이니 누구를 만날지에 대해서는 제 청을 반영해 주십시오.”

“네 손으로 상대를 고르고 싶다는 뜻이냐?”

“황실의 중대사인 국혼에 어찌 제 개인적인 입장만을 밀어 붙이겠습니까?”

시그롯의 목소리는 조금 전까지의 태도가 무색하도록 침착했다. 심지어는 입도 천연덕스럽게 아주 잘 털고 있었다.

원래부터 그는 공석에서 꽤 말을 잘 하긴 했다. 하지만 이렇게 지척에서 보는 건 처음이었다.

“국혼은 무엇보다 정치적인 행사이며, 후보 선정도 허투루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제가 만날 상대는 공정하게 세 명으로 하려 합니다.”

“셋이라고?”

“폐하께서 추천하시는 한 명, 귀족회의 추천을 받는 한 명.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고개를 황제 쪽에 두고 있던 시그롯의 녹색 눈동자가 이 쪽을 향했다.

눈이 마주쳤다.

“물심양면 이 나라와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민하 사제님께 신탁을 받겠습니다.”

야! 미쳤어?

내가 가짜인 걸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너네 아빠도 아는데 어떻게 신탁을 해? 나는 무심코 소리를 지를까봐 억지로 내 입을 막았다. 그러나 시그롯의 눈은 이미 내게서 떨어져 다시 황제에게로 향해 있었다.

황제와 시그롯의 날카로운 시선이 중간에서 교차했다. 그러다 마침내 황제가 먼저 눈썹을 찌푸렸다.

“네가 제법이구나.”

그는 입술 끝을 비틀어 올리며 시그롯을 향해 웃었다.

“야, 미쳤어?”

말로만 듣던 부자 싸움은 실제로 보니 생각보다 더 가관이었다. 나는 황제가 자리를 뜨자마자 당장 시그롯에게로 달려가 손바닥으로 등짝부터 때렸다.

“아파.”

“아프라고 때렸다!”

“나야 조금 아프고 말지만 날 때리면 당신 손이 더 아플 텐데.”

뭐, 인마? 따지려는데 뒤늦게 손바닥에 진짜로 아픔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시그롯의 등이 생각보다 단단했던 것이다.

근육은 또 언제 이렇게 키운 거야? 애꿎은 손을 털고 있으려니 어느 새 이 쪽으로 돌아선 시그롯이 내 손을 덥석 붙잡았다.

“거 봐, 아프지.”

“놔.”

“마사지 해줄게. 오르카 경에게 배웠어.”

“내가 아는 오르카 경이 다섯 명인데 그 중 누구?”

“첫째 아들.”

그러더니 내 동의는 구하지도 않고 손바닥을 꾹꾹 누르며 문지르기 시작했다. 나보다 1.5배는 클 것 같은 손가락 열 개가 내 손 여기저기를 잡아 당겼다가 돌리다가 하며 부지런히 조물거리고 있는 모양새가 신기했다.

음, 받다 보니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이 조금 누그러진다.

“폐하께 뭐 하러 그랬어. 만나기 싫다면서.”

“원래부터 내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건 자각하고 있었어.”

“거짓말한다. 나 때문이지?”

시그롯은 대답하지 않았다. 긍정이나 다름없는 침묵이었다.

바로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절대로 싫다며 황제 앞에서마저 목소리를 높이던 그가 황제가 날 유심히 쳐다보자마자 태도를 바꾸지 않았는가.

황제는 아들에게 ‘네가 웬일이냐?’ 식으로 대답했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다. 처음부터 그가 날 무릎 꿇리며 걸고넘어진 목적 자체가 사실 건수 잡고 내 옆의 시그롯을 움직이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그래서 내 선에서 그냥 엎드리고 넘어가려 했었던 건데.

“개인적인 감정으로만 한 말은 아냐. 당신이 실제로 무엇이든 간에 내 사제로 있는 한 당신은 이 성에서 라메라스 님과 동등한 지위에 있으니까. 아버지라고 해도 당신을 모욕하는 건 후계자인 날 모욕하시는 것과 다름없지.”

“어이구, 그래서 내 신탁을 받겠다느니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은 그냥 마음대로 고르면 돼. 신탁으로 만드는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온다. 시그롯은 이제 내가 등에 대지도 않은 반대편 손을 잡고 아까와 똑같은 방식으로 주무르는 중이었다. 커다란 손으로 꼭 깃털이라도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만지는 걸 보고 있으려니 이상하게 속이 점점 간지러웠다.

‘영악한 자식.’

황태자비 후보로 꼽히는 아가씨는 원래 열 명이 넘는다. 그나마도 추리고 추려서 그 정도니 실제로 시그롯이 원한다면 더 많이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그롯은 그들을 만날 테니 더 강요하지 말라고 황제에게 딜을 걸면서 수를 은근슬쩍 셋으로 줄여 놓았다.

게다가 그 셋도 어느 한 쪽이 체면이 상하지 않도록 공평하게 배정했다. 황태자의 비 후보를 천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국에 행사하는 권리의 상징이나 마찬가지니까. 황실 추천 한 명에 귀족회 추천 한 명. 실제로야 턱 없이 부족한 수지만 양쪽에 똑같이 한 명씩이니 토를 달기에도 이상해진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민하 사제님께 신탁을 받겠습니다."

“고마워.”

황제 앞에서 대놓고 내가 그의 중요한 사람이니 무시하지 말라고 선언한 셈이다.

역시 원작 속의 악역이다. 가끔 나보다 막 나가는 소릴 한다니까? 그래도 고마운 건 고마운 거니까 인사했는데, 시그롯이 갑자기 하던 마사지를 멈추고 놀란 얼굴로 날 빤히 쳐다보았다.

“으, 응.”

그의 눈동자가 눈 둘 곳을 찾지 못하고 좌우로 바삐 움직이더니 이윽고 귀가 서서히 붉어졌다. 그러더니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잠깐, 이 뻘쭘한 분위기 뭐야?

아까부터 땀이 차고 있는데 손이라도 좀 놓으면 안 될까?

아무래도 뭔가 말을 해서 이 정적을 깨야겠다. 나는 필사적으로 할 말을 궁리했다.

“…저기, 그런데 말이야. 후보는 정말 내 맘대로 골라도 돼?”

“물론이야, 당신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해.”

“지금 후보에 올라와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어차피 한 번만 만날 테니 귀족이 아니어도 상관없지.”

그럼 내가 여기서 리리샤를 추천하면 둘의 만남이 성사되는 건가? 본인이 혼사 자체를 워낙 싫어해서 마음에 걸렸던 것뿐이지, 지금은 어차피 여자 셋을 무조건 만나야 하는 상황이잖아.

갑자기 일이 잘 풀려가는 기분이 들었다. 게다가 지금 보니 시그롯도 기분이 좋아 보이는 게, 왠지 물어보는 거 다 대답해 줄 분위긴데….

“그럼 네가 아까 내게 말하려던 조건은 뭐였어?”

사실 줄곧 그게 계속 궁금하던 차였다.

“이제 말해줘도 되잖아.”

“아, 그건… 잊어버려. 별 건 아니었으니.”

“뭐가 별 게 아니야?”

네 얼굴은 그게 별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포기하지 않고 시그롯을 찔렀다. 그렇게 몇 번을 집요하게 조르자 결국 그가 대답을 토해냈다.

“같이….”

그는 가라앉은 눈을 하고 고개를 숙였다.

“내가 후보들을 나가는 자리에 수행원으로 같이 와달라고 할 생각이었다. 쓸 데 없는 오해는 받기 싫었으니까.”

“오해?”

“결혼, 할 생각 없다는 거. …당장은.”

나는 눈을 휘둥그레 떴다.

‘뭐야, 겨우 그거였어?’

당연히 따라갈 생각이었다. 이번 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를 죽일 수도 있는 플래그를 막는 거니까. 다만 진짜 사제 입장으로 가면 아무래도 분위기 잡는 데 신경 쓰일 테니 시종 같은 걸로 해서 조용히 갈 생각이었는데.

“가지, 뭐. 난 네 사제잖아.”

“됐다. 이제 싫어.”

“왜?”

“단 한 번씩이라도 이번에 난 성의를 다할 생각이야. 아버지께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이상, 책은 조금도 잡히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그제야 시그롯의 표정을 제대로 보았다. 그는 잘생긴 미간을 일그러트린 채로 쓰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모습을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진 않거든.”

잡고 있던 손이 떨어져나갔다. 시그롯은 정말로 황족이 신수에게 하는 것처럼 내게 고개 숙여 정중히 예를 갖춘 뒤 그대로 궁을 나가 거처로 돌아갔다.

그리고 다음날, 그는 내게 아침 인사를 하러 오지 않았다.

내가 신수궁으로 거처를 옮긴 이래 처음이었다.

시그롯은 8월 11일 하루 동안 세 명의 황태자비 후보를 모두 추려 달라 요청했다. 그뿐만 아니라 일주일 안에 후보들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다고 선언했다.

황제 폐하를 비롯하여 귀족회와 황궁 사람들이 죄다 뒤집어진 초유의 결정이었고 시그롯은 그걸로 또 황제와 알현실에서 2차전을 했다.

아무렴 황실이야 몰라도 귀족회는 이 나라에 귀족이 몇인데 열 명 넘는 후보들 중 달랑 하나만 추리라니 혼란이 크기는 했을 터였다.

자연히 황태자와 만날 세 장 중 한 카드를 쥐고 있는 내게는 하루 만에 로비의 손길이 엄청나게 들어왔다. 중세 시대에 면죄부를 팔던 부패 종교인이 대충 이런 기분 아니었을까?

‘좀 심경이 복잡한걸.’

양심은 아프지 않지만 시그롯만은 걱정되었다. 그도 그럴 듯이 그의 행동이 정말 이상하기는 했던 것이다.

모든 처리 과정이 너무 빨랐다. 내키지는 않지만 해야 할 일이니 의무감으로 서둘러 처리해 버리려는 느낌이라고 할까? 마치 3년 전에 마음의 여유 없이 황태자 지위에 매달리던 열여섯 살 시그롯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말이다.

어쨌든 그렇게 결정된 날짜가 세 사람에게 하루씩 8월 12일, 13일, 14일.

14일. 내 스케줄러에 기록되어 있는 플래그가 실행되는 날이다.

‘이게 이렇게 원작이랑 앞뒤가 맞아 들어가네.’

정말 우연하게도 그랬다.

나는 귀족회에서 안달을 내든 말든 태자궁으로 리리샤 토르체의 이름을 제출한 지 오래였다. 공식적으로 나와 그녀는 아는 사이가 아니지만 어차피 신탁이란 이름으로 들어갈 테니 이상할 것도 없었다.

여기 와서 실제로 만난 적도 없었고.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었는데.’

황궁에서 신수 대용이 되면서 시그롯과 황실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데까지는 좋았지만 반대급부로 나는 성 밖으로 멀리 떨어지기 어려워졌다. 그래서 원작 4년 전인 지금, 내가 가장 좋아하던 캐릭터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었다.

칼릭스는 원래부터 찾기 힘들었다. 태어나면서부터 시그롯과 뒤바뀌어 도망친 시녀의 아들로 자란 그는 강도의 손에 의해 일찍 보호자를 잃고 지나가던 용병단에게 거두어진다.

그는 이후 대륙의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점점 명성을 얻고 용병왕으로 성장한다. 그러다 4년 뒤 우연히 자신이 태어났던 제국을 방문하고 그 과정에서 리리샤와 만나게 된다. 즉 지금은 그 과거 부분의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시기였기 때문에 거취를 좀처럼 파악하기 힘들었다.

반면 백작 가문에서 사랑받고 자란 소녀 리리샤는 열일곱 살이 되도록 제도에서 먼 토르체 영지에서만 지냈다. 멜프라우 제국은 대륙의 1/3을 덮을 정도로 넓었고 개중에는 대귀족회의 때가 아니면 자기 영지에 박혀 제도에 올라오지 않는 귀족들도 많았다.

지방 귀족 자제들이 제도에 올라오는 건 바로 이 대귀족회의 때, 가주를 따라 혼사 상대를 찾거나 여행을 겸하여 오는 경우였다. 그리고 토르체 백작은 그간 대귀족회의 시즌마다 한 번도 리리샤를 데리고 상경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최근 토르체 영지로 리브를 보내어 백작가의 소식을 전해 듣고 있었다. 3년 전에는 여장을 하고 내 시중 및 감시인으로 옆에 있었던 리브를 곁에서 떼어놓은 데에는 나름대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3년 전.

황제 폐하와 입을 맞춰 가짜 사제 역할을 하는 대신 신수궁에 있기로 정해진 뒤에도 리브는 여전히 내 감시인 겸 머슴으로 남아 있었다. 이유인즉슨 그냥 ‘황태자의 환심을 산 어중이떠중이’에서 귀하신 ‘차기 황제의 사제님’으로 승급했으니 앞으로 내게 줄을 대어 시그롯에게 잘 보이려는 사람이 늘 거라는 이야기였다.

나한테 붙는 시종 하나, 옷 한 벌까지 특정 귀족의 입김이 들어가면 골치 아파질 수 있었다. 그래서 황제는 계속 자기 직속 부하인 리브를 내 최측근으로 붙여 두었고, 리브의 진짜 성별은 여전히 아는 사람만 아는 황실의 기밀 중 하나였다.

문제는 2년 뒤에 다른 곳에서 발생했다. 황제 폐하의 신수인 라메라스의 먹이 담당 시종이 은퇴하면서 던칸 후작의 추천을 받은 자로 교체된 것이다.

나는 그 사실을 내 방에 찾아온 할머니… 아니, 백기사단장 클라리스 오르카 경의 입으로 전해 들었다.

“덕분에 폐하께서 앞으로 그 능구렁이 같은 피아젤 던칸에게 더 귀를 기울이시게 생겼네.”

“먹이 담당 시종이란 게 그렇게 중요해요? 맨날 고등어밖에 안 주던데….”

“신수님께서 드시는 고등어라는 이름이 얼마나 수산업계에서 중요한지 아는가? 이제 제국민들은 고등어를 고를 때 모두 던칸 해역의 고등어부터 찾게 되겠지. 피아젤, 그 능구렁이 같은 자식이 비겁한 수를 쓸 줄이야.”

오르카 경은 비통한 얼굴로 들고 있던 잔의 흰 우유를 원 샷으로 들이켰다.

사실 신수의 입김이 이 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사제로 살고 있는 나도 아주 잘 알았다. 재작년쯤 시그롯의 간 건강을 근본적으로 지키기 위해 ‘공식석상에서는 술 대신 고귀한 음료인 우유를 마시자.’ 라는 신탁을 내린 적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너도 나도 우유를 마시기 시작해서 오르카 경마저 저 지경이 되었으니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네에게 부탁이 있네.”

“무슨 부탁이요? 설마 라메라스 님한테 던칸 후작이 발 뻗었다고 저한테도 누구 하나 받아 달라고 부탁하시려는 건 아니죠?”

“내 막내아들 듀렌을 자네 호위기사로 받아줘.”

“와, 세상에!”

“나는 재작년에 대귀족회의에서 황태자 전하를 도와드렸어. 지금이 그 빚을 갚을 때라네.”

나는 능구렁이 같은 오르카 경의 수완에 혀를 내둘렀다. 내가 알기로 던칸 후작과 오르카 후작은 기어 다닐 때부터 소꿉친구였을 텐데, 저 나이가 되도록 저렇게 으르렁거리고 싶을까?

“항상 느끼는 건데 후작님 진짜 뻔뻔하신 분이네요.”

“영주란 원래 영지민들을 위해 뻔뻔해야 하네.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만 위엄을 지키면 되는 법이지. 그리고 듀렌이 워낙 말을 안 들어서 버릇을 고쳐 줄 사람도 필요한데, 어린 남자애들을 길들이는 건 자네 특기 아닌가?”

“어린 남자애라니 도대체 누굴 말씀하시는 건지…….”

제 생각에 어린 남자를 잘 길들이는 건 산만한 기사들을 매일 연무장에서 좌삼삼 우삼삼 굴리시는 댁인 것 같은데….

오르카 경은 말없이 내 방 한 구석에 걸려 있는 시그롯의 초상화를 가리켰다.(그냥 여기가 신수궁이고 시그롯이 나와 대외적으로 계약한 황족이라 걸려있을 뿐이다.) 그리고는 아까부터 그림자처럼 옆에서 커피를 타고 있는 리브도 가리켰다.(이것도 그냥 내 최측근 시종이라서 있을 뿐이었다.)

리브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소곳하게 말했다.

“오르카 후작님께선 제가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다.”

“어, 그래…….”

“덧붙여 지금 두 분이 나누시는 대화는 오늘 안에 그대로 황제 폐하께 올라갈 겁니다.”

나한테 길들여진 어린 남자애란 소리에는 반박을 안 하는 거니?

나는 머슴 1호의 머릿속을 가늠하는 걸 포기하고 다시 오르카 경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리브가 저렇게 대놓고 말할 정도면 오르카 경은 이미 황제에게 허가를 받고 온 게 분명했다. 던칸에게 고등어를 주다니! 나한테도 뭐 하나 주쇼 하고 달달 볶았을 테지.

“이제 보니 다 짜고 오셨네. 쟤가 남자인 거 아드님들도 아세요?”

“우리 집안에선 나만 알고 있다네. 정보원의 신원은 황실의 기밀이거든.”

“허어…….”

“하지만 같은 여자로서 아무래도 걱정 되어서 말이야. 언제까지고 저 자를 경호로 두는 건 위험하지 않겠나?”

나는 리브가 타 준 커피를 마시며 잠시 고민했다. 솔직히 수락하긴 싫었지만 대귀족회의에서 그녀에게 덕을 입어 시그롯의 폐위를 막은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에 마냥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왜 받아들이기 싫었느냐 하면 듀렌의 실력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비리에 야합하기 싫어서도 아니었다.

리브 때문이었다.

‘듀렌을 리브와 만나게 해선 곤란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듀렌은 전에 내가 술집에서 미끼로 썼던 청순가련한 이름 모를 미인을 아직도 진짜 여자인 줄 알고 그리워하고 있었다.

오러를 구분할 줄 아는 오르카 가문 사람인 그가 내 호위기사로 들어와 리브를 다시 본다면 황실의 기밀도 작살날 테고, 덤으로 첫사랑의 추억도 박살날 게 뻔했다.

그리고 분명 듀렌의 절친인 시그롯의 귀에도 들어갈 텐데, 사실 진짜 문제는 이것이었다.

‘시그롯이 아직 리브의 정체를 모르거든.’

황제 직속과 황태자 직속은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달랐다. 그 와중에 황태자의 사제인 내가 그의 아버지인 황제 직속 정보원을 몇 년이나 말도 없이 곁에 두었다. 비록 리브가 하는 일이 감시라고는 하지만 그의 정체가 밝혀지면 시그롯과 내 신뢰 문제가 될 수도 있었다.

기껏 몇 년 들여 내 말을 잘 듣도록 구슬려 놓았는데, 여기서 무너뜨릴 수는 없지.

‘리브를 당분간 떼어놓기는 해야겠어.’

나는 적당히 타협하기로 정했다. 듀렌을 기사로 들이기는 하되 리브를 황제에게 반납하지도 않기로.

그렇게 리브는 작년부터 토르체 영지로 외근을 나가 있게 되었고, 오늘에 이르렀다.

“아리아리, 이거 좀 읽어봐.”

리브가 보내 온 보고서 위에 핸드폰을 올리고 전원을 켜자 늘 듣는 익숙한 기계 음색이 들렸다.

-요즘 저를 별로 찾아 주시지 않네요, 민하 님.-

“내가 그럼 인터넷도 안 되는 폰을 3년 동안 하루 종일 붙들고 있어야겠니?”

-리브와 듀렌은 예뻐하시잖아요. 저도 어린 남자애가 될까 봐요.-

“너 몇 살인데?”

나이를 묻자 아리는 번개처럼 대화를 종료해 버리고는 액정에 어플 하나를 켰다. 문서를 사진으로 찍으면 적혀 있는 글자를 전자 텍스트로 변환하고 한글로 번역해 주는 프로그램이었다.

참고로 아리의 통역 기능은 라메라스의 헥헥거리기만 하는 소리도 해석할 수 있었는데, 켜봤자 ‘밥 줘’, ‘놀자’, ‘졸려’ 셋 중 하나였기 때문에 안 쓴지 제법 오래 되었다.

-작년 여름부터 시작한 토르체 백작가 영지의 목장 사업은 순조롭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아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본래는 규모도 수입도 작은 영지였습니다만, 노백작이 영지민들에게 사업금을 지원한 게 큰 성과를 본 모양입니다. 토르체 백작가는 영지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으로 상당한 부를 누리고 있었죠.-

‘원작이랑 너무 달라졌네. 갑자기 부자가 되 버렸잖아.’

내가 시그롯에게 술 대신 우유를 마시라고 하고 나서부터 제국에 낙농업 유행이 시작되기는 했었다.

하지만 아무리 풍요의 신수가 축복한다고는 해도 설마하니 여주인공네 가문 영지에서 젖소 목장이 흥할 줄이야. 이건 정말 의도한 바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는 이전 보고에서 들은 이야기였다. 여주인공의 집이 부자가 되어 원작보다 더 잘 살고 있다면 좋은 일이기도 했고 말이다.

나는 이어지는 보고를 가만히 들었다. 주로 토르체 노백작의 건강이 어떤지, 아들 부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딸인 리리샤는 여전히 아직 사교계 데뷔를 하지 않아 바깥에 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원래도 잘 알던 이야기들을.

그런데 그 중에 이상한 문장이 하나 있었다.

“잠깐만.”

나는 아리를 잠시 멈추고 말했다.

“방금 문장 다시 읽어 봐.”

-세 달 전, 5월부터 사업에 실패한 토르체 백작의 친척 브란 자작 일가가 저택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브란?”

기억에 있는데. 어디서 봤더라? 나는 보던 걸 잠시 내려놓고 소설 사이트 앱을 켰다. 브란. 이름을 넣고 검색을 한다.

"검색 결과 : 2건"

두 건? 소설 199화 중에 이 정도면 진짜 이름만 한 번 지나간 엑스트라 수준인데.

검색 결과를 열어 보았다. 이름조차 없이 성으로만 표기되는 ‘브란 자작’은 토르체 백작가의 먼 친척으로 등장하는 인물이었다. 초반에 시그롯이 리리샤에게 부정을 저질렀다는 함정을 씌우고 토르체 백작가를 몰락시키려 할 때, 노백작이 도와달라며 손을 뻗는 ‘친척들’ 중 한 명이기도 했다.

소설 속에서 브란 자작은 토르체 백작가를 외면한다. 왜냐하면 백작가를 도우면 황태자의 눈 밖에 날 게 뻔했으니까. 시그롯은 좌절하여 쓰러진 토르체 백작을 앞에 두고 특유의 기분 나쁜 웃음소리로 웃으며 조롱의 말을 남긴다.

"“청렴하고 올바르신 토르체 백작도 이제 보니 별 것 아니었군그래. 이런 때 함께 죽어 주겠다는 멍청한 동반자가 하나도 없다니 말이야!”"

정작 그렇게 말한 시그롯은 뒤로 토르체 백작을 버린 가문들을 브란 자작가를 포함하여 전부 참수한다.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는 또라이 나쁜 놈이긴 했지만 그의 행동에는 은근히 복잡하고 모순적인 면도 있었다.

어쨌든 지금은 소설 속 시그롯의 킬수가 얼마인가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었다. 그 이름만 등장하는 브란 자작가 사람들이 왜 토르체 백작가에 와서 눌러 살게 되었을까?

아냐, 안 봐도 알 것 같다. 여주인공의 가문인 토르체 백작가는 시그롯이 말했던 대로 이 시대에 드물게 청렴하고 올바르며 사랑이 넘치는… 소위 말하는 호구 같은 가문이었다.

호구 집안이 벼락부자가 되었으니, 뜯어먹으려는 하이에나가 붙는 게 당연하지.

나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제발 이게 별 것 아닌 변수라면 좋겠는데.

“보고 내용은 그게 다야?”

-더 남아 있습니다. 아,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네요.-

아리, 쟤가 나하고 밀당하나? 중요하면 그걸 제일 먼저 읽어줘야 할 거 아냐. 나는 빈정이 상하여 보고서를 직접 집어 들었다. 외국어 같아서 읽기 힘든 것만 제외하면 나도 이 세계에 3년쯤 있었으니 문장이라면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다음 순간 보고서를 떨어트렸다.

-민하 님, 왜 그러세요?-

종이가 옆에 없어 내용을 읽을 수 없는 아리가 옆에서 무슨 일이냐며 재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아리에게 뭘 대답해 줄 수 있는 정신이 아니었다.

나는 다시 땅에 떨어진 보고서를 내려다보았다. 거기에 리브의 정갈한 문체로 적혀 있는 문장은 다음과 같았다.

"지난 달 20일. 리리샤 토르체 영애는 계단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